

# 부산 크리스천문학

Busan Christian Literature

제45호 | 2026년 상반기

권두언 송정우 | 빛으로, 침묵으로

## 특집 | 포도나무와 포도주

권갑숙 \_ 포도나무, 잘려나간 자리에서 봄이 온다

안유환 \_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조현숙 \_ 포도를 바라보는 몇 가지 시선

## 기획특집1 | 경남기독교문인회

## 기획특집2 | 양왕용 | 한국 기독교시문학사 서설

## 작품평

시 평 변종환 | 시와 종교의 근본적 만남

## 올해의 작가

성윤자 \_ 뼈라눔의 행진

## 신인상

김진건 \_ 그가 아시나니 외 2편

원하숙 \_ 봄날 외 2편

심사평 \_ 박정선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 람전은 흐른다

## 김복임 수필집

- 2011년 《문학도시》 수필 등단
- 2013년 《수필과 비평》 수필 등단
- 2015년 《아동문예》 동화 등단
- 2019년 부산문화재단 창작금 수혜
- 2019년 『목련나무가 있는 집』 수필집 발행
- 2023년 남원시 예술지원금 수혜
- 2023년 『아버지의 우물』 수필집 발행
- 2024년 남원시 예술지원금 수혜
- 2024년 『꽃샘』 동화집 발행
- 2025년 『람전은 흐른다』 수필집 발행

- 부산문인협회 회원
- 남원문인협회 회원
- 부산수필과비평 회원
- 부산크리스천문학 회원
- 황산문예 회장



세상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그 물속에는 단발머리 소녀가 앉아있었다. 그 샘물은 어린 나에게 작은 우주였다. 메마른 도시생활을 하던 때 그 샘물을 생각하면 모든 갈증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

- 작가의 말 중에서



제45호 | 2026년 상반기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괴테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건  
지금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생각과  
나에게 호의적인 운명이  
매 순간 건네주는  
유익한 일상이라는 사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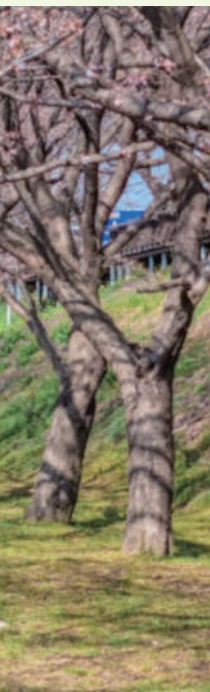


괴테\_ 요한 볼프강 폰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  
독일 고전주의 문학, 문학가, 사상가, 시·소설·희곡·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시 **감(甘)윤옥** 시인

- 2009년 《기독교문예》 시등단
- 중. 고등학교 교사역임
- 수영로교회 은퇴전도사
- 부산여류시인협회 부회장, 부산시인협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이사,  
유튜버〈인생의 길동무〉 운영
- 저서 : 『그 숲에 가면』 『그 숲에 가면2』  
『봄 햇살 젖은 발자국』



# 봄 햇살 젖은 발자국

감(甘)윤옥

어머니가 길을 나섰다

낮익은 집 기둥도 잊으시고  
꽃피는 담장도 잊으시고  
봄 햇살 젖은 발자국  
한참을 가다가 사라졌다

나는 흠냄새 속에서  
어머니 이름을 부른다  
돌아오시지 않는  
저 하늘 끝에 대고 부른다

어두운 새가  
어머니 기억을 쫓아 먹고  
남은 그늘이 바람에 흩날린다

슬픔은 뿌리로 깊어져  
내 가슴을 파고들고  
안타까움은 피로 올라  
눈물꽃이 되어 핀다

어머니,  
길 잃는 저 불빛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라  
내 심장 끝에  
등불 하나 켜 놓는다

## 올해의 작가 \_ 성윤자



- 경남 하동 출생
- 2003년 《한맥문학》 시 등단
- 2016년 《문학도시》 소설 등단
- 2017년 《부산크리스천문학》 수필 등단
- 한국문인협회, 부산문인협회, 김해문인협회 회원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이사
- 시집 『쑥부쟁이 꽃』 『옛집에서의 하루』  
『하얀 대지』 『모래의 여정』  
『수박꽃 피는 아침』
- 수필집 『이파리들의 행진』

글을 쓰는 작가는 나름의 문학관을 지닌다. 삶은 반영한 인생론을 바탕으로 쓰인 “작가의 말”은 문학이 그녀에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를 밝혀준다. “수필을 쓴다는 것은 영킨 실을 풀어가는 느낌”이라고 말하는 작가는 삶에서 떠나지 않고 땀도는 소재만을 선정하여 “가슴에 콩 나듯” 다듬었다. 작가는 그 진중한 선택으로 시련과 역경으로 가득 찬 삶을 이겨내고 문학을 세워 자신의 존재성을 정립할 수 있었다.

- 박양근(문학평론가,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 봄 햇살 젖은 발자국

## 감윤옥 시집

- 2009년 《기독교문예》 시 등단
- 중·고등학교 교사 역임
- 수영로교회 은퇴 전도사
- 부산여류시인협회 부회장
- 부산해운대문인협회 부회장
- 부산시인협회 회원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이사
- 저서: 『그 숲에 가면1』 『그 숲에 가면2』
- 시집: 『봄 햇살 젖은 발자국』
- 유튜브: [인생의 길동무]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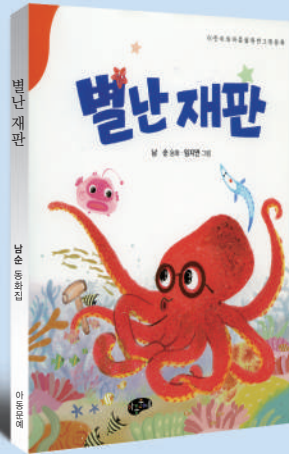
이제는 그 극복의 바탕 위에 감 시인이 추구하고 있는 영적 상상력 혹은 궁극적 관심을 바탕으로 한 현상과 현실에 대한 인식의 결과물로서의 시들을 창작하는 시인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면서.....

- 양왕용(부산대학교 명예교수) 해설 중에서

# 별난 재판

## 남 순 동화집

- 2004 《아동문예》 동화  
2013 《문학예술》 시로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어요.
- 동화집 『무지개나라 화가아저씨』  
『물고기 아파트』 『꿈꾸는 장어』 『별난 재판』  
을 펴냈어요.
- 그림동화 『빨강 연필』 『네가 딱이야!』  
『잡기 놀이』 『젓가락 행진』 『탱탱볼』을 공저했어요.
- 동요 「골목길」 「단풍나무의 꿈」 「고래 마을」  
「해바라기 일기장」 「웁크 웁크」 등의 노랫말을  
지었어요.
- 제6회 남제문학 작가상  
제21회 부산문학상 우수상 수상을 받았어요.
- 현재 부경대학교에서 동화를 연구하며 그림동화와  
창작동화를 가르치고 있어요.
- E-mail : nssky99@naver.com



어른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 알아주는 친구(지기지우知己之友)가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인생은 성공한 것이라고.

- 작가의 말 중에서

# 꽃잎에 쓰는 편지

## 신현숙 시집

- 경남 거창 출생
- 고신대학교 선교목회대학원 치유사역과 문학석사
- 2005년 《한국크리스천문학》 신인상
- 2009년 《고려문학》 신인상
- 2021년 《창조문예》 추천 완료 등단
- 창조문인협회 회원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 부산시인협회 회원
- 부산사직동교회 은퇴권사
- 시집 『상처는 향기가 난다』



아름다운 생명 이야기로 가득한 삶의 노래

저는 신현숙 시인의 시를 참 좋아합니다.

이유는 어렵지 않고 쉽게 몰입되며 따뜻한 감동으로 마음에 오래 머물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평범함을 보석같은 시어로 담아냅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거친 광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 낸 가슴 벅찬 승리의 찬가를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시인의 가슴에 요동치는 사랑의 열매라 믿습니다.

— 안민(前 고신대학교 총장, 느헤미야미니스토리 대표)

# 이제 바다로 갑니다

## 이가연 시집

포도밭이 많은 경산이 고향이며, 현재 부산에서 살고 있다.

2024년 월간 《문학도시》에 시로 등단했으며, 2025년 서울詩 지하철 공모전에 선정되었다.

첫 시집 『이제 바다로 갑니다』를 부산문화재단의 지원으로 2026년 출간하였다.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이다.



그의 시는 길 찾기이다. 타지에 가면 같은 해가 뜬 하늘인데도 다르게 느껴지듯이, 제도권을 벗어난 세상은 다른 공기로 와 닿게 마련이다. 더러는 낯설고 더러는 당황스럽고 더러는 새로운 충격 속에서 이가연 시인은 가장 먼저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 박정선(문학평론가) 평설 중에서

## 부산크리스천문학 행사

### 출판기념회



## 부산크리스천문학 행사

### 부산크리스천문학상



부산크리스천문학상 이창희



부산크리스천문학상 양윤희

### 상반기 월례회



## 부산크리스천문학 행사

### 정기총회



# 부산 크리스천문학

Busan Christian Literature

제45호 | 2026년 상반기

## 권두언

송정우 | 빛으로, 침묵으로 17

## 특집 포도나무와 포도주

권갑숙 | 포도나무, 잘려나간 자리에서 봄이 온다 24

안유환 |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9

조현숙 | 포도를 바라보는 몇 가지 시선 35

## 기획특집1 - 경남기독교문인회

경남기독교문인회 소개 42

## 시

강득송 | 비가 내리는 창가에서 43

신광열 | 숨 나눴 45

안승기 | 성령의 향기 46

우기동 | 잊지 못할 어머니 48

최경선 | 자목련 50

## 수필

김경희 | 산악녀의 영남알프스 완등 후기 51

안대현 | 전도사 시절 목회 이야기 56

## 기획특집2

양왕용 | 한국 기독교시문학사 서설 62

## 작품평 - 시 평

변종환 | 시와 종교의 근본적 만남 70

## 올해의 작가

성윤자 | 뼈라눔의 행진 86

## 작품평

박양근 | 옛집에서 문학으로 가는 서정과 서사 90

## 시

감강윤옥 | 향기를 토하는 포도나무 외 1편 106

곽병길 | 임마누엘 외 1편 110

권영숙(어미새) | 저녁 노을 외 1편 114

김경희 | 오월의 노래 외 1편 116

김동우 | 갓생(God生) 외 1편 119

김민주 | 홍마 외 1편 123

김숙희 | 내 안의 스위치 외 1편 127

발행인 : 송정우 / 주간 : 박정선 / 편집장 : 남순 / 편집위원 : 감윤옥, 권갑숙, 모정희, 조현숙

|                         |     |
|-------------------------|-----|
| 김은희   노을과 그림자 외 1편      | 129 |
| 김혜영   카톡 카톡 외 1편        | 132 |
| 류정희   피어오르다 외 1편        | 134 |
| 박인자   꽃비 내리는 봄길 외 1편    | 138 |
| 배혜숙   새 외 1편            | 141 |
| 손정란   달팽이 그녀 외 1편       | 145 |
| 송정우   손톱 재건축 외 1편       | 149 |
| 신 선   나사렛 예수 1 외 1편     | 152 |
| 신현숙   꿀벌 외 1편           | 156 |
| 양윤형   패랭이꽃 외 1편         | 159 |
| 유문경   이별 그 이후 외 1편      | 163 |
| 유병기   장미의 노래 외 1편       | 166 |
| 이가연   출판기념회 외 1편        | 168 |
| 이경옥   민들레 홀씨 되어 외 1편    | 170 |
| 이귀선   너에게 외 1편          | 172 |
| 이선화   좋은 사람 외 1편        | 175 |
| 이승훈   신의 악단 외 1편        | 178 |
| 이창희   마구간을 밝힌 그 별빛 외 1편 | 180 |
| 임병주   대한민국호             | 183 |
| 정신자   된 장 송頌 외 1편       | 185 |
| 정연원   기장 해변 외 1편        | 188 |
| 조의홍   서투른 기록 · 93 외 1편  | 191 |
| 최귀례   흥정하는 봄 외 1편       | 193 |
| <b>시조</b>               |     |
| 모정희   다시 쥐는 십자가 외 1편    | 198 |
| 박경영   민들레 외 1편          | 200 |
| 변도우   동행 외 1편           | 202 |
| 윤현수   내려놓음 외 1편         | 204 |
| 임병주   악명 높은 자           | 206 |
| 허성욱   은퇴자 월례회 외 1편      | 208 |
| <b>아동문학</b>             |     |
| <b>동시</b>               |     |
| 송순임   다섯 손가락 외 1편       | 212 |
| 이둘자   꽃밥 외 1편           | 214 |
| 정명진   췌! 비밀이야 외 1편      | 217 |
| <b>동화</b>               |     |
| 남 순   청학동 땡땡            | 221 |
| 안미영   꽃이 피기는 피겠제?       | 226 |
| 오윤형   솟탱이 할아버지          | 233 |

|                   |     |
|-------------------|-----|
| 이효정   젓가락 행진      | 239 |
| 임지연   요미와 나미      | 241 |
| 정현옥   거름더미에서 핀 새싹 | 243 |

#### 수필

|                        |     |
|------------------------|-----|
| 공기화   별난 커피타임          | 250 |
| 김복임   머위잎 편지           | 255 |
| 김해용   외진 오지에서 강도를 만나다  | 258 |
| 노장현   삼월의 눈물           | 264 |
| 명인숙   드로아의 밤을 묵상하다     | 269 |
| 박희두   북한 방문 증명서        | 275 |
| 변순희   명주 오빠            | 280 |
| 성윤자   누수가 만들어 준 텃밭     | 286 |
| 윤평원   코에 불어 넣어진 창조의 숨결 | 289 |
| 전섭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 294 |
| 전진경   모든 것이            | 299 |
| 조광순   겉잎이 품은 온기        | 304 |
| 최방식   겨울 농장 풍경         | 308 |
| 한인환   벌꿀               | 313 |

#### 소설

|          |     |
|----------|-----|
| 강신구   동지 | 320 |
|----------|-----|

#### 신인상 시

|                    |     |
|--------------------|-----|
| 김진건   그가 아시나니 외 2편 | 344 |
| 원하숙   봄날 외 2편      | 349 |
| 심사평   박정선          | 354 |

#### 부록

|                              |     |
|------------------------------|-----|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역대 회장 (1989~2026) | 358 |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2026년 임원조직        | 359 |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편집부               | 360 |
| 2026년 회원 게시판 동정              | 361 |
| 편집후기                         | 362 |

## 빛으로, 침묵으로

송정우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장



지난 연말, 뜻밖의 원고청탁을 받았다. 가톨릭 잡지사에서 타종교 신앙인의 관점에서 글을 써 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무슨 주제로 어떤 글을 쓸 것인가 막막하였다. 한참 숙고 후 내가 즐겨하는 여행에서 뽑아 올린 단상을 적으면 좋겠다 싶었다. 파리에서 아시시까지의 여정에서 받은 은총을 『빛과 침묵이 내게 말을 건네던 날』로 탈고하여 마감 시간 전에 보낼 수 있었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성당 건물을 만나게 된다. 성당은 가톨릭교회의 예배 공간이라는 생각과 개신교 예배당과는 다른 전통의 거리감이 있어 쉽게 스며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쏟아지는 빛과 성결한 모습의 아이콘이 간직한 신비한 침묵은 스쳐 지나가는 여행자의 영혼을 더 깊고 먼 곳으로 이끈다.

특히 파리의 생트샤펠의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숲은 나를 환상 속으로 끌어당기고 가벼운 마음의 관람객의 웅성거림 속에 진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신앙의 본질이 종파를 넘어 하나의 줄기로 이어져 있음을 느꼈다. 그로 인해 더더욱 작아지는 피조물이 되는 나는 작은 점으로 한없이 축소되었다가 다시 주님 안에서 더 크게 확장되는 듯한 기묘한 경험을 하였다.

말씀과 간구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익숙한 나에게 이러한 빛과 침묵의 강론은 예식과 묵상과 아이콘이라는 신앙 체험의 통로처럼 낯설면서도 경이로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혼돈 속에서 빛이 있게 하셨다.’는 창세기 말씀과 ‘태초에 말씀이 계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요한복음 구절이 한꺼번에 나에게 들어오며 빛은 그분의 첫 번째 말씀이라는 깨달음으로 전율했다.

또 아시시 외곽의 성소, 에레모는 혼자만의 깨달음을 찾는 길이었다. 성 프란치스코가 홀로 기도하던 작은 기도처로 향하는 숲길은 오래된 묵상의 고요함으로 가득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창조주의 침묵 안에 고요히 서 있는 돌과 나무에서 비로소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신앙은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을 줄 아는 것임을 알았다.

빛과 침묵은 우리가 쓰는 글의 요체이다. 글은 전하고 싶은 생각

이나 감동이 자연스레 빛으로 드러나야 하고, 의도적으로 생략한 행간의 침묵이 더욱 더 깊은 사유의 바탕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에 작가는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 하이라이트를 칠하기도 하고 독자의 상상에 맡기기 위해 과감한 생략의 도구를 쓰기도 한다.

이러한 빛과 침묵의 조화는 작가가 매일 마주하는 백지 위에만 이 아니라, 이끼 낀 성당에서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작가에게 있어 ‘빛’이 독자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영감의 발현이라면, ‘침묵’은 그 영감이 머물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겸손한 여백이다. 유려한 문장과 화려한 수식으로 그려나가고자 애쓰지만, 정작 독자의 영혼을 흔드는 것은 작가가 쏟아낸 단어들 사이, 그 고요한 틈새에서 새어나오는 소리 없는 음성일 때가 많다.

스테인드글라스가 아름다운 이유는 유리 그 자체가 빛을 내기 때문이 아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강렬한 빛을 온몸으로 통과시킬 때 비로소 신비한 색색의 무늬가 살아나는 것이다. 작가들의 삶 또한 이와 같다. 특별히 크리스천 작가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진리의 빛을 문장이라는 천을 통해 투과시키는 매개체이다. 자아가 너무 탁하면 빛은 가로막히고, 욕심이 앞서면 빛은 왜곡된다.

그렇기에 기독교 작가의 글을 쓰는 행위는 단순한 창작을 넘어 일종의 수행이자 기도이다. 한 문장을 적어 내려갈 때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을 묻어두고, 그분의 마음이 독자의 가슴 속에

빛으로 각인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마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가졌던 청빈의 영성과도 닮았다.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소유했듯, 글 속에서 나를 비워냄으로써 비로소 영원한 가치를 채워 넣는 역설의 미학이다.

오늘날 우리는 소음의 시대에 살고 있다. 자극적인 서사와 거친 언어들이 범람하는 문학의 현장에서, 크리스천 문학이 지향해야 할 지점은 명확하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 소리 높여 외치는 웅변이 아니라, 지친 영혼이 잠시 머물며 쉴 수 있는 ‘빛의 숲’과 ‘침묵의 뜰’을 조성하는 일이다. 우리의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터널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침묵의 쉼터가 되어야 한다.

이 과정은 결코 녹록치 않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언어로 형상화한다는 것은 유한한 존재가 무한을 담아내려는 무모한 도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산고의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창조 사역에 미약하게나마 동참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하며 무릎 꿇을 때, 우리의 투박한 초안 위에 임하시어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계신다.

영성 신학자, 토마스 머튼은 “하나님과 관련된 무언가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나?”라고 하였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

이 분명하여,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는 고양된 삶을 살아간다. 특별히 글을 쓰는 재능을 부여받은 우리는 글을 쓰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

안타깝게도 많은 문학작품에서 빛나간 하나님의 이미지와 암시를 접하게 된다. 크리스천 작가로서 우리는 작품 속에 그분을 왜곡하지 않고 바르게 드러내야 하는 사명이 있다. 그래서 《부산크리스천문학》은 우리의 공동선을 이루는 작품집이고 예술로 진리와 복음을 독자들과 나누는 통로이다. 그만큼 《부산크리스천문학》은 승화된 문학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랑을 나누고 구원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 2026년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신인상 공모

본 협회에서는 장차 미래를 이끌어갈 참신하고 역량 있는 문학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인상 작품을 공모합니다.

## 1. 장르

- 시, 시조, 동시, 수필, 동화, 소설, 평론

## 2. 모집 내용

- 시, 시조, 동시 : 각 5편 이상
- 수필 : 2편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 동화 : 1편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 단편소설 : 1편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 평론 : 1편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 3. 응모 자격

- 기독교인으로 문학에 뜻을 둔 사람

## 4. 선정 내역

- 선정된 분에게는 당선패와 본 협회회원으로 영입하는 특전을 드립니다.

▣ 원고 보낼 곳 | 이메일 \_ nssky99@naver.com

우편접수\_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80, 101동 2303호

(좌동, 한라아파트)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편집국

전화 : 010-9875-0087

▣ 마감 | 상반기 / 하반기 / 수시모집

▣ 보내는 방법 | 이메일이나 우편접수, 주소와 전화번호 필히 명기, 소속교회 기재. 필명일 경우 본명 기재. 선정자에게는 개별통지.

## 특집

### 포도나무와 포도주

- 권갑숙 | 포도나무, 잘려나간 자리에서 봄이 온다
- 안유환 |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 조현숙 | 포도를 바라보는 몇 가지 시선

## 포도나무, 잘려나간 자리에서 봄이 온다

권 갑 속

겨울의 긴 터널을 지나온 탓일까. 4월의 바람이 은근히 달다. 햇살마저 맑고 투명한 기운으로 내려앉는다. 점심을 먹고 난 뒤의 나른함이 온몸을 느슨하게 풀어놓는다. 잠깐 눈을 붙이면 좋겠다는 유혹이 스치지만, 그 달콤함에 쉽게 기대고 싶지 않아서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무실 뒤뜰로 나왔다.

테이블에 앉아 천천히 주변을 둘러본다. 어느새 애기 손바닥만한 머위들이 땅을 비집고 올라와 오종종 무리를 이루고 있다. 그 사이사이로 족두리를 쓴 듯한 머위꽃들도 수줍게 얼굴을 디밀고 있다. 봄은 이렇게 소리 없이, 그러나 씬 없이 세상을 밀어 올리고



| 권갑속 |

- 2011년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백일장 장원(수필)
- (사)부산문인협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문학중심작가회 회원
- 수필집 『로렘나무를 꿈꾸며』

있었다. 만약 시간을 붙잡아 슬로모션으로 펼쳐 볼 수 있다면, 이 연둣빛의 번짐이 얼마나 황홀함일지, 또 얼마나 치열할지 보게 될 것이다.

그 틈에서 문득 시선이 멈춘다. 거칠고 메마른 껍질을 드러낸 채 서 있는 포도나무 등치. 한겨울을 지나며 완전히 생기를 잃은 듯 보였던 그 나무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줄기마다 검붉게 부풀어 오른 작은 눈들이 박혀 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나무가, 조용히 제 생명을 밀어 올리고 있었다. 살아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마음의 놓인다.

지난겨울, 우리는 그 포도나무를 모질게 잘라냈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던 가지들을 아낌없이 쳐냈다. 그때 나무는 마치 고통을 호소하듯 맑은 수액을 눈물처럼 흘렸다. 한동안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너무 과하게 자른 것은 아닐까, 혹여 이대로 말라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나무는 긴 침묵 끝에, 이렇게 다시 제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제 곧 낮 기온이 오르고 나면, 이 작은 눈들은 순식간에 잎으로 번져갈 것이다. 5월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 깊어갈 즈음에는 알이 단단한 포도송이가 매달릴 것이다. 아직은 앙상한 가지뿐인데도, 상상만 해도 벌써 입에 침이 고인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동안 나무를 너무 쉽게 생각해왔다. 심어만 놓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줄 알았다. 해마다 포도송이가 부실하다며 아쉬워했지만, 정작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알지 못

했다. 해마다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조차 뒤늦게야 배웠다.

사무실 뒤뜰과 앞마당에는 감나무와 모과나무, 블루베리와 자두나무, 그리고 이 포도나무까지 여러 나무들이 심겨 있다. 그저 푸르게 자라고 열매를 맺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돌봄 없이 얻어지는 결실은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다.

문득 내 신앙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사십 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돌아보면 내 삶에는 실처럼 가느다란 가지들만 무성했을 뿐, 정작 열매라 부를 만한 것은 드물었다. 세상의 기쁨과 욕망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채, 나는 늘 두 세계 사이에 걸쳐 서 있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기대고, 익숙한 자리로 돌아갈 때는 아무렇지 않게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세상 속으로 물들어갔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나는 스스로를 속였다. 최선을 다해왔다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그러나 그것은 열매 없는 가지가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

성경의 말씀처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산다. 떨어진 가지는 더 이상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 나는 붙어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단단히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그저 필요할 때마다 기대고 있었을 뿐이다.

몇 해 전, 나는 내 삶에서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과 마주했다. 그

야말로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기척도 없이 내 삶에 훅 들어와 버린 것이다. 나란 나무는 적어도 신앙의 뿌리가 튼튼하게 뻗어 있어서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뿌리까지 뽑혀 쓰러질 일은 없을 줄 알았다. 한순간이었다. 여태까지 쌓아온 내 삶이 여름 홍수에 뿌리째 뽑혀 떠내려가는 힘없는 나무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어 수없이 묻고 또 물었다. 아무리 물어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려들어갔다.

그 시간은 길고도 막막했다. 누구의 위로도 쉽게 스며들지 못했다. 다만 견디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미세한 균열처럼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깨닫게 되었다. 가지치기의 고통은 잘려나감이 아니라 더 깊이 붙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다듬음이었다는 것을.

포도나무의 가지를 잘라내듯, 내 삶의 불필요한 가지들이 그 시간 속에서 잘려 나갔다. 아프고 견디기 어려웠지만, 그 과정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엉킨 가지들 속에서 헛된 방향으로만 자라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붙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무엇을 잘라내야 하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조금은 다르게 바라보려 한다. 내 안에서 자라나는 수많은 생각과 욕심들, 방향 없이 뻗어 나가던 마음의 가지들을 하나씩 되돌아본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려놓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조금씩 배워가고 있다.

세상을 향해 뻗어 있던 잡념의 가지들을 내려놓고, 오직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삶, 바람과 햇빛마저 감사로 받아들이며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내가 찾던 삶이라는 것을. 포도나무가 햇살과 바람을 받아들이며 조용히 열매를 준비하듯,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잊지 않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어진 시간 속에서 묵묵히 익어가는 삶.

칙칙한 겨울이 그려둔 텃밭 위로 상큼한 바람이 다시 한 번 지나간다. 그 달큰한 봄기운 속에서 내 몸에도 연듯빛 새싹이 돌아나려는지 겨드랑이가 간질간질하다.

##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안 유 환

하나의 질문은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 매일 만나는 사람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보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은 계속되어왔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겠다고 말씀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대답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 조상의 하



| 안유환 |

소설가. 소설집 『동근별』 『그는 언제나 맨발이었다』 『하이네 자서전』, 장편소설 『주네브행 열차』, 시집 『그림자의 귀향』, 수필집 『마음을 건드리는 노래』, 에세이집 『발틱해의 일출』, 선집 『문학의 시점』 등 10여 권. <부산 문학상> 등 수상. (사) 부산문인협회, 금정구문인협회 자문위원, 예장통합목사.

나눔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일러 주셨다. 모세는 하나님이 설명을 붙여주시기까지 했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지 못했을 것이다.

신약시대에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음성을 들었다.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 “주여, 누구시니이까?” 물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놀라운 대답을 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시며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했다. 박해와 질문은 복음을 더욱 확산시켰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인격적인 분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지 못했다. 율법 아래 살던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들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해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며 복음을 쉽게 풀어주셨다. 그중에서도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눈과 귀와 가슴을 열어주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요15:1)

하나님은 모세의 물음에 “여호와”라고 대답했으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했다. 포도나무는 보기에 멋있고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다. 관상수나 목재로 사용할 수 없다. 덩굴식물이기에 땀감으로도 적절하지 못한 쓸모없는 나무이다. 이사야는 메시아(예수)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예언했다. 볼품없는 포도나무는 오직 귀한 열매를 맺는 데 쓰였다. 쓸모없는 것을 요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고전1:27-28)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포도나무를 가꾸신다는 것이다. 나는 목회를 끝마치고 6년 동안 텃밭을 가꾼 적이 있다. 그때는 특별한 생각 없이 고추, 토마토, 고구마와 각종 채

소를 재배했으나 오늘 ‘농부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텃밭을 가꾸던 마음을 되새긴다. 때맞춰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며 병충해를 막아주고 약한 모종은 더욱 북돋우며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나온다.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삼 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한다.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이렇게 간청한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 농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복음 전도자들이 새겨야 할 자세가 아닐까? 하나님은 농부가 한 포기, 한 그루를 돌보고 살피듯 택한 백성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좋은 열매 맺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포도 열매는 어떤 과일보다 탐스럽고 맛이 있으며 쓰이는 곳도 많다. 생과일이나 건포도로 먹을 수도 있지만 주스, 잼, 젤리로 우리의 식생활에 쓰이고, 포도주나 식초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인간 생활에 유익을 주기 위해 포도는 자기 몸을 으깨어지게 내어준다.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으깨어져) 피를 흘리셨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때 잔을 들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막 14:24) 말씀했다. 포도주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제를 드릴 때도 사용되었고,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서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첫 번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포도주는

마시는 자에게 기쁨을 주지만 약으로도 귀하게 쓰였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는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치료했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일렀다.

포도나무 비유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임을 보여준다.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농부는 한 몸처럼 유기적인 역할을 하며 열매를 생산한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떠나시기 전에 드린 중보기도의 주제도 하나가 되라는 것이었다.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17:22)

바울은 누구보다도 ‘포도나무 안에’ 거한 사람이었다. 바울 서신에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70여 회나 등장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언제나 ‘주 안에서’로 이끈다. 바울에게 ‘주 안에서’(엔 크리스토스)는 단어가 아니라 신앙의 자리이자 삶의 공간이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나타나는 열매이다. 엉겨 붙은 포도송이는 하나 됨의 상징처럼 보인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4:13)

불품없어도 포도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달콤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내어준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성령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비유로 풀어주신 꿀송이 같은 말씀

들이 택한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이끌었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포도나무’는 크고 위대한 스승이었다. ‘하나님이 농부’라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을 중심에 받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진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첫 번째로 품은 꿈은 농부가 되는 것이었다. 농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싶었을까? 아직도 모래 한 알 만큼도 하나님 마음을 흉내조차 내지 못하고 있지만.

## 포도를 바라보는 몇 가지 시선

조 현 숙

올해 3월, 프랑스 브르고뉴 지역에서 생산한 1945년산 와인 로 마네 콩띠 한 병이 뉴욕의 경매에서 81만 2,500달러에 낙찰되었다고 한다. 당시 환율로 따지면 12억 3천만 원 정도라고 하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이걸 산 사람은 아까워서 어찌 마실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에 괜한 걱정을 해 본다.

술을 마시지 않는 나도 와인-포도주에 대해서만은 각별한 감정을 지니고 있다. 술 자체보다는 그것이 상징하는 깊은 영적 의미 때문이다.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포도원과 포도, 포도주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행하신 최초의 기적도, 최후의 만찬



| 조현숙 |

- 2017년 《시선》 등단
- (사)부산문인협회 편집위원, 새부산시인협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부회장, 부산여류문인협회 부회장.
- 제31회 부산문학상 우수상(2024), 《문학도시》 작품상(2022)수상 외 다수.
- 시집 『미로역에서』 『상처가 상처에게』

도 모두 포도주와 관련이 있는 사건이었다. 그러니 같은 포도주를 놓고도 우리의 시선은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 그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포도와 관련 있는 몇 가지의 시선을 따라가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 1. 그림 속으로-고흐의 포도밭

빈센트 반 고흐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린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은 10년이다. 이 기간에 그가 그린 그림은 스케치를 포함해 무려 2,000여 점, 그중 860여 점이 회화이다. 그 많은 작품 중 생전에 단 하나의 작품만 팔렸는데 그것이 바로 『아들의 붉은 포도밭』이다.

일생 찢어지게 가난했던 고흐가 1890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팔았던 이 작품의 당시 가격은 약 400프랑(110만 원)이었다. 고흐의 친구로 시인 겸 화가였던 외젠보흐의 누나 안나 보흐는 이 작품을 산 바로 그해 베른하임 갤러리에서 10,000프랑(약 2,500만 원)에 되팔았는데 그녀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고흐의 작품에 압도되어 작품 활동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 밝혔다. 같은 해에 무려 25배나 비싼 가격에 팔릴 수 있는 작품을 그리고도 왜 고흐는 생전에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일까. 붉은 태양의 빛으로 물든 포도밭에서 여러 명의 인부가 일하고 있는 정경을 묘사한 이 작품은 현재 1천억 원 이상의 가치로 추산되고 있다고 한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한 이들을 위한 목사가 되기를 열망했지만 결국 목회를 떠난 그는 이후 몸과 마음이 처참하게 무너질

때까지 손에서 놓지 않던 붓으로 수많은 역작을 그려냈다. 고통으로 점철된 그의 내면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들의 포도밭』을 그리던 그 순간만은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는 고통을 양식 삼아 정신병원에 있을 때조차도 쉬지 않고 그림을 그렸다. 그가 그린 아들의 포도밭은 지금 도시화의 물결에 밀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의 작품 속에서만은 영원히 숨 쉬고 있을 것이다. 물이 포도주가 되듯,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의 그림은 지금 엄청난 가치로 변해버렸지만 단 한 방울도 그 잔을 맛보지 못한 채 그는 이제 하늘의 별이 되었다.

## 2. 문학 작품 속으로- 바이런의 포도주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George Gordon Byron, 1788~1824)이 케임브리지 대학 3학년일 때의 일이다. 신학과목 기말시험에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의 종교적, 영적 의미를 서술하라”라는 문제가 나왔다. 한참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던 바이런은 종료종이 울리기 몇 분 전에 이렇게 단 한 줄의 문장을 휘갈겨 적고는 그대로 제출했다.

“Water saw it's creator and blushed”

(물이 그 창조주를 뵈고 얼굴을 붉혔다)

그는 이 답으로 최고점을 받았다.

바이런의 유명한 일화로 알려진 이 문장은 사실은 그보다 약

175년 전에 태어난 영국 시인 리처드 크래쇼(Richard Crashaw, 약 1613-1649)의 시구절에서 차용했다고 한다. 요즘이라면 표절 시비로 시끄러워졌을 법도 하지만 교수는 바이런의 재치와 독서, 문학적 감각을 인정해 준 셈이다. 바이런이 그의 문장을 변형해 사용함으로써 크래쇼의 구절이 더욱 유명해졌으니 천국에 있는 크래쇼도 별로 기분 나빠하진 않았을 것 같다. 사실 물이 포도주로 변환 사건을 이보다 더 짧고 강렬하게 영적, 문학적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였던 크래쇼의 신앙고백이 담겨 있기에 더욱 그렇게 느껴진다.

물이 창조주를 보고 붉어졌다는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물리적 변화를 넘어 자연이 창조주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존재임을 은유한다. 결국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은 창조주 앞에서 겸손과 경외심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나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바로 물이 포도주 된 기적의 사건이 아닐까.

### 3. 영화 속으로 - 포도즙과 포도

포도즙과 포도주의 차이는 뭘까?

제71회 칸 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된 <누구나 아는 비밀>에는 포도 재배자가 포도즙과 포도주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온다. 파코는 포도밭을 경영하는 인물로,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는 도중에 포도즙과 포도주의 차이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시간은 포도즙을 와인으로 만드는 것뿐 아니라 만들어진 와인에 성격과 개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포도가 단순히 자연의 산물이라면 포도즙은 인간의 힘이 개입하여 나온 산물이고 그것이 시간을 경과하여 발효된 결과가 포도주라는 거다. 과일이 발효하여 술이 되듯, 인간의 삶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비밀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영화 속의 암시이긴 하지만 영화 줄거리와 상관없이 나는 이 말 속에서 시간의 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 때로 나는 달콤한 포도즙에만 정신이 팔려 스스로 멈추었던 건 아니었을까.

오랜 발효와 숙성의 과정을 지나야 비로소 깊은 맛을 내는 와인처럼 주님도 우리가 익기를 기다리시는 데 내 조급함이 그걸 망쳐 버리진 않았는지 돌아본다. 당장의 달콤한 포도즙에만 만족한다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빚으신 질 좋은 포도주의 깊은 맛을 우린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 4. 성경 속으로 - 포도나무의 비유

어린 시절,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해마다 포도 철이 되면 여전도회 회원들이 모여 성찬식에 사용할 포도주를 담그곤 했다. 그러나 요즘은 많은 교회에서 포도주 대신 포도 주스를 사용한다. 19세기 미국교회에서의 금주운동으로 알코올이 없는 포도즙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요즘처럼 시중에서 판매하는 첨가물이 든 포도 주스는 웬지 적응이 쉽지 않다.

알알이 부서지고 으깨진 포도는 얼마나 많은 인내의 시간을 통과해야 깊은 맛을 지닌 포도주가 될까. 포도 맛 주스를 아무리 오래 두어도 결코 와인이 될 수 없듯, 우리도 알알이 부서지는 포도가 되지 않으면 주님이 빚으시는 좋은 포도주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에 나는 자주 이 말씀을 암송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15:5)

올해 경매에서 최고가로 팔린 12억짜리 와인도, 1천억을 호가하는 고흐의 포도밭도, 주님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의 포도주나 이 말씀 속 포도나무에 비교할 수 있으랴.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도한다.

부디 나도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를, 그래서 풍성한 포도송이를 맺을 수 있기를, 잘 으깨지고 발효되어 내 삶이 향기로운 한 잔의 포도주가 될 수 있기를……!

# 기획특집1

## 경남기독문인회

### Ⅰ 경남기독문인회 소개

시 | 강득송 신광열 안승기 우기동 최경선

수필 | 김경희 안대현

Christian Literature 2026

## 경남기독교문인회 소개

♡ 창립 : 2011년 1월 24일 창원중앙교회(배효전 목사 시무), 10명이 모여 창립.

♡ 취지 및 목적 : 본회는 경남지역 기독교 문인단체로 기독교 문학 활동을 통한 문화 선교와 문학창달에 기여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조직

－ 이사회 : 이사 7인

－ 임 원 :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서기, 회계, 감사

♡ 주요 활동

－ 정기총회 : 매년 12월 중

－ 문학지 발간(년 1회, 현14권)

시상 : 매년 신인상 및 문학상 시상(다수)

－ 합평회 : 봄, 가을 연 2회

－ 문학 기행(문학관 탐방)

－ 시화전 계획 중

－ 단독방 운영 60여분 참여

－ 회원 수 : 현재 80여명

이상과 같이 간단히 소개드립니다.

## 경 남 기 독 문 인 회

회 장 김 경 희

사무국장 안 대 현

## 비가 내리는 창가에서

강 득 송 원로목사

아침을 먹고 버릇으로 창가에 앉는다

간밤에 내린 빗자국이  
 조롱조롱 매달렸던 자국이  
 아침햇살을 뭉갠다

바다가 일궈낸 주름살에  
 그리움이 번진다

어떡하나  
 가는 봄의 발자국  
 하나하나 쓸어 담다 보니  
 가버린 세월의 아픔에  
 빈 하늘이 졸고 있다



| 강득송 |

- 1959년 詩作 시작
- 12권 시집 발행
- 경남기독문인회 초대 회장
- 현 남해문협 회장

그래도 내리는 비는  
그리움 한아름 담고  
보챌다

봄이 가면 어찌느냐고  
나의 시선은 추억 한편 담아 둔다

## 숨 나눔

신 광 열 목사

겨울 같은 봄  
시장바닥 길모퉁이  
새우 같은 등을 하고  
빨간 소쿠리에  
가난한 푸성귀 몇 장을 담아놓고  
조는 듯 앉아  
삶의 애환을 팔고 있다

아무도 눈길 주는 이 없이  
많은 시간만 팽팽히 지나가고

하루의 지친 무게를  
어깨에 메고 지나가던 아낙네가  
까아만 비닐 봉지에  
할머니의 고통을  
나누어 담아 간다



| 신광열 |

- 신학, 국문학, 상담학 수학
- 대민교회 은퇴목사, 돌레랑스시인학교 대표, 경남기독문인회 이사
- 수상, 세계계관문학상 “고함”으로 당선 외 다수
- 시집 『지친 그림자는 동쪽으로 누워있다』 외 다수

# 성령의 향기

안 승 기 목사

고요한 새벽  
기도 사이로  
하늘의 숨결이  
꽃처럼 번진다

메마른 영혼의  
들판 위에  
보이지 않는  
향기가 스며든다

눈물로 부르던  
이름 위에  
은은한 위로의  
바람이 머물고



| 안승기 |

- 아호 : 碧山(벽산)
- 시인, 수필가, 평론가, 문학박사.
- 경남기독문인회 부회장
- 창원대, 창신대 강사

내 마음  
작은 성전 안에  
성령의 향기  
조용히 피어난다

# 잊지 못할 어머니

우 기 동 장로

눈으로 말을 해도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말을 해도  
들을 수 있는 그리운 어머니

새벽 종소리 올리면  
먼저 일어나  
목조 건물 판자촌  
예배당으로 향하셨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님 향한 사랑으로  
한결같은 걸음으로 가셨지요



| 우기동 |

- 경남기독교문인회 회원
- 서부산노회(백석)부노회장 역임
- 양산 온누리교회 은퇴장로
- 현) 양산시기독교총연합회 고문

세월에 등 떠밀려  
함께 가는 멀고 먼  
순례자의 길  
시들지 않는 봄이라오

이제 머지않아  
천국에서 뵈을 때  
두 손 잡고 반가이  
안아 주시겠지요

새벽의 붉은 해가  
동산 위에 떠오를 때  
밤의 별들에게 감사하고  
기러기 떼 무리지어 날 때

잘 가거라  
손 흔들어 주면서  
그리운 어머니의 모습  
다시 한번 떠올려봅니다.

## 자목련

최 경 선 권사

당신의 수줍음

가슴 한 켠 설렘 피게 하지요?

꽃 이파리 하나하나 사연들 쌓여

익어가는 절규

당신의 처절한 사명인가요?

못 시선 감당하느라

부르짖어 훌쩍리는

사랑의 송가는 당신의 피눈물

얼마나 사랑스런 몸부림이던가요!

그대……



| 최경선 |

- 노동문화제 수필 수상(82)
- 경남기독문인회원, 진해문협 회원
- dy그룹 문학제 시 최우수상(23), 경남기독문학상 수상(24)

## 산악녀의 영남알프스 완등 후기

김 경 희 전도사

지난 2021년부터 울주군에서 시작한 영남알프스 봉우리 완등 이벤트에 한 해도 거르지 않고 6년 동안 완료하는 목표를 달성했다. 이제 마지막인 내년만 완등하면 7개 봉우리 기념 은메달을 모두 간직하게 된다. 지나간 산행 추억을 되돌아보면 많은 세월이 흘러갔음에 감회가 새롭다.

2,000년도 창원에서 근무할 땐 토요일도 반나절 근무하던 시절이었다. 당시의 교장선생님께서 등산 매니아로 토요일 퇴근 후 희망하는 10여명의 여선생님들과 매주 창원 인근의 산을 등산했다. “산악녀들 준비되었으면 출발!” 하시던 교장선생님의 목소리가



| 김경희 |

- 수필가, 전도사, 초등학교 정년퇴직
- 경남기독문인회 회장, 상동교회 전도사
- 저서 : 은퇴기념문집 『내 안의 나를 찾는 여정, 그 길에서』

아직도 떠오른다. 그 때 들었던 산악녀란 별칭을 내 것으로 만들어 아직도 산악녀(산악 여자)라고 내세운다. 산악회에 가서 처음 소개를 받는 사람은 “산의 악녀시군요” 하면서 놀리기도 하지만 내겐 귀한 별칭이다.

밀양에 살면서도 몰랐던 밀양의 높은 산들이 다른 고장의 산보다 멋지다는 걸 교장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알게 되었고 울주군과 인접해 있는 영남알프스의 아름다움을 서서히 익히게 되었다.

창원에서 밀양으로 귀향해서 인터넷 카페인 부산토요산악회에 가입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퇴직할 때까지 별일 없으면 따라다녔다. 전국의 명산과 주로 영남알프스의 산을 많이 다녔지만 완등 이벤트는 하지 않았기에 그 땐 예사로 생각했었다. 가지산, 천황산, 운문산, 고현산, 영축산, 신불산, 간월산(문복산, 재약산)과 부근의 다른 산들도 수없이 다녔다.

영남알프스는 영남 동부지역에 위치한 해발 1,000m 이상의 산악군으로 9개의 봉우리가 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9개 봉우리를 완등하는 취지로 했지만 산불 방지로 인해 문복산과 정상부근의 위험으로 재약산을 제외시켜 7개 봉우리만 다녀오면 된다.

교직생활을 퇴직하자마자 교회에 목사님이 떠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 주일 준비로 토요일에 산행을 중단했다. 몇 달에 한번 참석해 보았지만 이제 산악회 회원들을 따라 다니기가 힘들어졌다. 다행히도 작년에 목사님 오셔서 주변의 산을 다니며 산행을 회복하고 있다. 퇴직 무렵부터 영남알프스 완등이벤트가 시작되어 해마다 빠지지 않고 나름대로 계속 다니고 있어서 조금은 위로를

받고 있다.

올해 2026년부터는 한 달에 2개 봉우리만 인정하도록 규칙이 바뀌어서 빨라도 4개월이 되어야 완등 완료가 된다. 1월에 가지산과 고현산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2월에는 운문산과 간월산, 3월에 천황산을 완등 했었다. 지난 4월 11일 토요일에 신불산과 영축산을 끝으로 이벤트를 완료했다.

가지산은 1,241m로 가장 높은 봉우리이다. 눈이 하얗게 내리는 겨울에 자주 갔던 산이라 영알 이벤트에서는 언제나 가장 먼저 다녀오는 산이다. 이젠 눈을 감고도 산길을 외울 것 같다. 예전과는 달리 숨이 차고 헉헉대는 나를 발견한다. 고현산도 1,033m 고지로 언양쪽 외항재에서 올라가면 계속 오르막이라 힘은 들지만 천천히 오르면 어느 새 정상에 도착해 있다. 언제보아도 혼자 뚝 떨어져 나온 봉우리로 잘 생긴 멋진 산이다.

운문산은 1,188m의 험한 산으로 여러 갈래의 산행코스가 있지만 주로 석골사에서 올라가서 되돌아 왔다. 정상 가까이에 있는 상운암도 가 볼만하고 전구지 바위와 조선 최고의 명의 허준의 스승이라 알고 있는 유의태가 지냈다는 동굴도 있다. 밀양의 산행 회원들과는 가끔 동굴에도 가 보았다. 등산매니아들은 하루에 운문산과 가지산을 함께 다녀오는 경우가 많다.

간월산은 1,083m 봉우리로 남들이 하듯이 3개 봉우리를 하루에 다녀온 적이 있다. 영축산에서 출발해서 신불산 찍고 간월산까지 3개의 봉우리를 다 완등하면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하산하여 캄캄하도록 덜덜 떨면서 산행하며 신불산 하단 휴양림 주차장으로 내

려운 기억이 난다. 지금도 함께 갔던 동료들을 만나면 한참 동안 그 때의 일을 나누면서 웃으며 추억을 더듬는다.

요즈음은 혼자 산행하기에 짧은 시간에 할가분하게 다녀오려고 배내골에 주차하고 오르막을 올라서면 배내봉을 만나고 간월산 뒤편으로 올라가 빠르게 다녀온다.

천황산은 1,189m 봉우리로 많이 알려진 산이다. 주로 재약산을 지나 천황재로 내려와 정상으로 올라온다. 재약산 부근의 사자평 역새가 유명하고 예전에는 고사리 분교도 있었다. 지난 3월에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얼음골 케이블카를 타고 두세 시간 소요해서 다녀왔기에 가장 수월한 산행을 했다. 표충사 뒤로 올라가서 층층폭포를 구경하고 영남알프스의 속살을 들여다보던 짧은 시절이 그리웠다. 사자평 통과하여 재약산 오르고 천황재로 내려가서 천황산을 오르는 돌계단과 바위는 이제 나무계단으로 다 바꾸어져서 쉽게 갈 수 있다. 누구나 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지만 산꾼들은 등산로가 사라져서 서운하다고 한다.

영축산(1,081m)과 신불산(1,159m)도 역시 영남알프스의 대표 얼굴이다. 육중한 능선을 걸으며 좌우로 살펴보고 하늘을 쳐다보면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낀다. 가을이면 길가에서 하늘거리는 억새길을 잇을 수가 없다. 나도 모르게 산의 정기를 받고 묵묵히 걸어가는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발견한다.

정상에서 인증샷 하고 다시 신불재에 도착하면 신불산 휴양림 쪽으로 하산길이 나온다. 가파른 내리막길을 지루하게 통과하여 주차장에 도착하면 온몸은 파김치가 되지만 형용할 수 없는 나만

의 뿌듯함과 성취감으로 행복함에 사로잡힌다.

돌아보면 수많은 산을 오르내리며 여태까지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 온 것도 산행을 통해 영육이 강건하도록 힐링한 결과라서 감사하다. 변함없는 영남알프스와 함께 해마다 기쁨을 누리길 소원해본다.

## 전도사 시절 목회 이야기

裕然 안 대 현 목사

신앙은 삶과 연결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시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다윗의 영성을 만난다. 삼십여 년 전 전도사 시절 두 번째 목회지는 진주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간 길목, 경남 하동에 있는 나환자 정착촌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했지만 2년 반 동안 그들을 섬기는 축복을 받았다. 손가락이 굵고 힘든 나환자들도 있었다. 생전 처음이어서 그랬을까. 그분들과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것이 쉽지 않았다. 내 안에 사랑의 부족함이 느껴져 왔다. 많이 애썼지만 심방을 마치고 사택



| 안대현 |

- 《지구문학》 시, 《문학고을》 수필 등단
- 〈철도신문〉 매주 3년간 시 게재(2014~2017.10)
- 진주노회장 역임, 경남기독문인회 회장 역임, 영은교회 위임목사
- 경남기독문인상
- 시집 『마카리오스』

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회에 들어서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 한 가정, 한 가정 사랑이 필요한데 그런 사랑이 내 안에 잘 준비되지 않아 목회를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몰려 왔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동네 전체가 가축(돼지, 닭, 개)을 키우는 관계로 냄새가 진동한다. 비가 오는 곳은 날은 냄새가 더 심하고 파리도 한없이 많아진다. 그곳이 구조적으로 바람골이어서 한번은 사택 지붕 슬레이트가 날아갔고, 고치기 전 비가 와서 온 방에 물이 가득 차 며칠간 피신한 적도 있었다. 부임한지 처음 한 달 동안 목회 사역은 스물세 가정 심방이 중심이었다.

처음 부임한 그 해 크리스마スイ브 날이었다. 기도 중 ‘가장 어려운 성도를 마음에 두라.’라는 내적 음성이 마음 깊숙이에서 올라왔다. 성탄전야 행사 후 베개와 따뜻한 이불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혼자 사는 남자 성도님 집으로 갔다. 작은 도랑 같은 동네 하수 천을 지나 성경책 가방에 이불 보파리 베개를 싸 들고 가는 내 모습이 우스웠을 것인데도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셨는지 마음은 여느 때와 달랐다. 그런데 그날 밤 거기서 나는 한잠도 잘 수 없었다. 그 성도의 천식이 얼마나 깊은지 밤새도록 피를 토하듯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반성하는 마음이 밀려왔다. 주님은 나를 아시는데 나는 주님께서 만나게 해 주신 분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주일 예배 시간에도 기침을 좀 했지만 밤 시간에 함께 있지 않았다면 그렇게도 심한 줄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함께 잠을 자지 못하고 이른 새벽녘에 둘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 그분은 지금은 새 찬송가로 588장이지만 당시는 307장인 “공중 나는 새를 보라”를 부르자고 제안했다. 우리 두 사람은 그 찬송을 여러 번을 불렀다. 그분은 몸이 좀 허약하여 일거리도 거의 없었다. 회갑이 지났는데도 동네 아이들이 말을 놓고 “넵죽이”라고 별명을 부르며 놀려대곤 해서 마음이 아팠다. 얼마나 이 찬송을 부르셨는지 4절까지 줄줄 외우셨다.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것을…….”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다. 숙연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그가 고백했다. 6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집 방안까지 들어와 함께 하룻밤을 잔 사람은 안전도사가 처음이라고…….

그때 나는 뭔가가 가슴에 ‘쿵’ 치는 것 같았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허물어지고 기울어진 움막 같은 집에서 오랜 세월을 외면당하고 산 한 분의 소외된 영혼 앞에 내가 있음을 느꼈다. 주님은 성탄절 전날 밤에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의 마음을 재촉하셔서 그 성도의 외로운 마음을 위로하고 싶으셨다는 확신이 들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때 나는 그 성도의 손을 잡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아무도 없는 새벽, 그분과 나만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그 집에 주님도 함께 계셨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거룩한 영의 임재 아래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가장 부유한 시간을 함께 보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 피어

난다. 주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기쁨을 부으셨다. 언젠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현장에 나가거든 예수께서 낮고 천한 말구유까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가장 낮은 자라고 여겨지는 성도에게 마음을 쏟으라는 말이 생각났고, 그 마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소원을 주신대로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도 감사드릴 뿐이다.

성탄절에 주님이 주신 마음을 온 교우들과 예배 중 말씀의 선포 가운데 나누었을 때 ‘말씀과 삶’에 대해 함께 기도하며 형제의 아픔에 대한 사랑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을 돕고자 제직회를 열었고 교회 재정의 일부를 들여 교우들이 직접 봉사하여 그분의 집을 수리하여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주님이 시작하시고 이끄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 2년 반 나환자촌 목회를 마치고 진주로 목회지를 옮기기 위해 나오는데 이사하는 날 모든 성도님들이 나와서 부족한 우리 부부를 배웅해 주며 눈물로 떠나보내 주었다.

함께 사역하는 동안 부족하나마 양계를 돕고 돼지 쫓을 쳐보며, 아내는 아이들을 모아 가르치고, 매일 읍내로 교회 봉고차를 통해 학생들을 통학시키며 삶을 몸으로 함께했다. 특히 아프신 분들을 진주에 있는 의료기관에 모시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작은 목양의 삶을 살았는데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역을 마치고

나오는 그 해에 네 살 된 딸을 입양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도 베풀어 주셨다. 지금도 자주 아내와 말하곤 한다. “하나님 나라에도 공짜가 없구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께서 작은 순종에도 생각에 넘치는 선물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각자 사명의 자리에서 복음적 삶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확신하며 주 앞에 그때 그 시절의 초심을 다시금 간절히 구하며 무릎을 꿇는다. 모든 움직임에 주의 은혜가 흘렀다. 허물어지는 한 지체의 거처를 리모델링하는데 동참한 모두의 마음이 기뻐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보배로운 말씀이 서로를 통해 성취되고 있음을 몸으로 경험했다. 주님이 하셨기에 3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눈시울에 감동이 고인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임을 간직하려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고 싶다.

## 기획특집2

Ⅰ 양왕용 | 한국 기독교 시 문학사 서설

- 신체시 시기의 최남선과 이광수의 시

Christian Literature 2026

## 한국 기독교 시 문학사 서설

— 신체시 시기의 최남선과 이광수의 시

양 왕 용

(1)

改新敎가 한국에 처음 들어 온 것은 미국의 의료선교사 Horce Newton Allen(한국명 安連 1858-1932)이 입국한 1884년으로 보면 금년은 139년이 된다. 天主教의 경우는 그보다 100년 전인 1784년 북경에 간 李承薰(1756-1801)이 한국최초의 천주교 신자가 되어 귀국한 때부터라고 보면 239년 전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기독교 문학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개신교문학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139년 전 개신교가 전래된 이후 기독교가 한국의 문학, 그 가운데

| 양왕용 |



1943년 경남 남해군 창선도 출신. 진주고, 경북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동 대학원 국문과 졸업(문학박사). 1966년 대학 재학 중 김춘수 시인 3회 천료《월간 시문학》 데뷔. 시집 『천사의 도시, 그리고 눈의 나라』 외 8권. 연구 논저 『김춘수 평전』 외 8권. 시문학상 본상, 부산시 문학상(문학부문), 한국예총 예술문화대상(문학 부문)등 수상. 한국크리스천문학가협회 회장,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장 역임. 현재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동북아기독교 작가회의 한국 회장, 남해유배문학관 명예관장.

시에 어떻게 수용되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2)

우선 현대시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 新體詩時期(1908-1918)의 대표적 시인인 崔南善(1890-1957)과 李光洙(1892-1950)의 시 가운데 기독교 영향을 받은 작품이 있다.

최남선의 경우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어린 시절 성경책을 통하여 한글을 깨치고 10세 이전인 1895년에 선교사 James Gale (1863-1937)이 번역한 John Bunyan(1628-1688)의 『The Pilgrim's Progress』(『天路歷程』)을 통독하였다고 한다. 그가 18세 소년으로 창간한 『少年』(1908. 11. 창간 - 1911. 5. 통권 23호로 종간)에 발표한 신체시 「大韓少年行」(1909년 10월호)과 「바다 위의 勇少年」(1909년 11월호)에는 성경구절을 차용하여 민족의 앞날은 소년이라는 미래 세대에게 기대해야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는 정식으로 개신교 신자가 되지는 않았다. 다만 만년에 천주교에 입교하여 ‘베드로’라는 영세명을 받았다. 그리고 1955년 11월 17일 「나는 왜 카톨릭으로 전향하였는가」라는 성명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당면한 국난 타개의 길과 정신적 기반을 위한 길이 카톨릭이다’라고 보고 있다. 말하자면 그는 종교적 목적보다 민족의식 양양이라는 입장에서 카톨릭을 수용한 것이다. 이러한 그의 종교관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의 신체시 시기의 시작태도는 민족의식으로서의 시작행위라고 볼 수 있다. 최초의 신체시 「해에게서

소년에게』는 1908년이라는 시점에 이미 1905년의 을사늑약에 의하여 외교권이 박탈당한 우리나라의 상황에 절망하고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소년에게 희망을 거는 시로 알려져 있다.

크리쓰마쓰

최남선

동편하늘 빗치나니 샛별나도다  
편안함의 밝은 기운 세계덥흐니  
곤코 병코 어려운자 다이라나라  
그품에가 안가는자 복잇으리라.

무궁뜰에 흘러가는 목숨의물을  
사람에게 대여주라 그가오도다  
어려워하지 마라라 지체마려라  
그앞혜와 구하는자 복잇으리라.

채쭉쭉다 칼들도다 고식의머리에  
큰깨터림 더하라고 그가오도다  
얇은줄노 아지마라 어렵지안타  
그를보고 고치는자 복잇으리라

못된나무 뿌리에는 독기언포다  
깍쟁이를 살으라고 그가오도다  
더러움의 없서질것 멀지아니니  
그의불을 두드리는자 복 잇으리라

좁은길이 뜰니리라 문열리니라

새벽머리 종치라고 그가오도다  
게어름과 거면함을 꽤히버리고  
그의부름 응하는자 복잇으리라.

—《少年》(1910.12)

인용한 「크리스마스」는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난 뒤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시하는 점에서 그 창작 시기가 그의 민족의식 혹은 상황의식과 연계된다. 그리고 《少年》은 이 호 다음인 1911년 1월 호를 내고 강제로 폐간 당하다시피 종간된다. 최남선은 종간호에서 경술국치로 인한 절망감을 「양소천(仰笑天)」이란 글에서 하늘 바라보고 웃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에서는 착잡한 심정이 억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 편에 예수강탄절(이 명칭이 시 「크리스마스」의 괄호 속의 다른 제목임)에 대한 찬탄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최남선의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단순한 이해의 단계를 넘어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존재를 신앙의 대상으로 갈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한다. 이러한 생각을 최남선이 하고 있는 배경에는 1907년 1월 6일부터 14일까지 계속된 평양대부흥운동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며, 최남선의 경우 일제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기독교 즉,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을 또한 찬송가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연마다 나와 있는 ‘안기는 자’, ‘구하는 자’, ‘두드리는 자’, ‘응하는 자’는 신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한 간구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자세는 각각 성경에 바탕(마태복음 7장 7-8절)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신자뿐만 아니라 비신자인 교양인들에게도 알려져 있는 ‘산상수훈’의 일부분이며 예수님의 생애와 공생애를 배경으로 한 서양영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수사적비유가 바로 성경의 비유로 되어 있는 부분도 많다. 즉 ‘목숨의 물’(둘째 연), ‘못된 나무와 도끼’(넷째 연), ‘좁은 문’(다섯째 연) 등이 그것이다. 그 가운데 누가복음 3장 9절(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뿌리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을 패로디한 수준인 넷째 연의 1, 2행(못된 나무 뿌리에는 독괴언도다/ 깎쟁이를 살으라고 그가오도다)에서의 ‘못된나무’는 우리나라를 삼킨 일본제국주의자들을 상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최남선은 1910년대 이미 언젠가는 일본제국주의는 패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성경을 통하여 예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시는 비록 소수의 독자들에게 읽혔겠지만 그 당시의 기독교인은 물론이고 비기독교인들에게도 1910년의 시점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깨우쳐준 시라는 점에서 한국기독교시사에서 첫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작품이다.

(3)

이광수의 경우는 유년 시절이 아니라 제 1차 일본 유학기(1905-1910)에 성경을 처음 접하였고 明治學院 중학부 3학년 시절(1907년 9월)에는 일기에 크리스천이 되겠다는 글도 남긴다. 중학을 졸업 후 귀국하여 1910년 3월 고향 평북 정주군에 南岡 李承薰(1894-1930)이 세운 개신교 미션 스쿨 五山學校 교사가 된다. 그러나 경술국치 이후 교주 이승훈은 구속되고 오산학교 경영에 참여하는 교회와 갈등하여 1913년 9월 사임한다. 이광수는 비록 신앙인이 되고자 했으나 그 당시의 교회와 갈등하여 교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최남선이 『少年』 다음으로 발간한 《青春》(1914. 10 창간 - 1918. 9, 통권 15호로 강제 폐간)에 「耶蘇敎의 朝鮮에 준 恩惠」(1917년 7월 제9호)와 「今日 朝鮮 耶蘇敎會의 缺點」(1919년 11월 제11호)을 발표하여 기독교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신체시 시기의 신체시 17편 가운데는 기독교를 수용한 작품은 없다. 신체시 시기 이후 한국 최초의 문학동인지 《創造》(1919. 2. 창간-1921. 5, 통권 9호로 종간)에 발표한 「미쁨」(1920. 5 제6호)은 上海 臨時政府 기관지 《獨立新聞》(1919. 8. 21.) 사장 겸 주필로 있을 때 창작하여 일본에서 발간하고 있던 《創造》에 기고한 작품으로, 요한복음 13장 37-38절의 베드로 세 번 부인의 예언과 18장 17절과 25-28절 사이의 베드로의 행적이 맞아 들어간다는 거짓말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신체시시기의 대표적인 시인 두 사람은 기독교나

성경을 시에 수용하고 있으나 신앙고백의 차원이라기보다 민족의 식이나 상황의식을 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독교를 수용하고 있다.

다음에는 이광수의 시 『미쁨』에 나타난 기독교의식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작품평

부산크리스천문학 2025년 하반기 44호에서

〈시평〉

변중환 | 시와 종교의 근본적 만남

Christian Literature 2026

## 시와 종교의 근본적 만남

변 중 환 (시인)

김현승 시인(1923~1975)은 1934년 《동아일보》에 양주동의 추천으로 등단하여 세상을 떠날 때까지 260여 편의 시를 6권의 시집으로 남겼다. 그는 성실한 시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기독교적인 가풍 속에서 청교도적 교육을 받으며 자란 기독교 신자이기도 하였다. 때로는 신앙에 회의하며 고독을 노래하고 시에서 구원을 모색하지만 1973년 어느 봄날 고혈압으로 졸도하여 사경을 헤매다 깨어나면서 극적으로 확고한 신앙을 얻게 된다. 이듬해 어느 산문에서 시인은 ‘씩어질 그 문학 때문에

### | 변중환 |



- 부산진구문화예술인협의회 회장, (사)한국바다문화학회 회장, (재)부산진문화재단 이사,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 국제PEN부산지역위원회 고문.
- (사)부산광역시문인협회 제16대 회장, 부산시인협회 제10대 회장, 한국문인협회 이사, 국제PEN한국본부 이사, 부산예총 감사 등 역임.
- 시집 『水平線 너머』(1967, 親學社), 『우리 여춘계장 박씨』(2002, 다충), 『松川리에서 쓴 편지』(2015, 두손کم), 『겨울 운주사에서』(2020, 두손کم), 『멀리서 오는 것들』(2023, 두손کم) 등 9권, 산문집 『釜山詩文學史』, 『餘滴』 등 4권

하마터면 영원한 생명의 믿음을 저버릴 뻔하였다’고 적었다. 그리고 송전대학 채플 시간에 기도 중 다시 고혈압으로 쓰러진 얼마 후 영면에 들 때까지 ‘마지막 지상에서’의 3년을 고스란히 신앙이 충만한 삶을 향유하며 보낸다. 이러한 그의 삶은 ‘돌아온 탕자’에 비견할만한 한 편의 드라마이다.

이러한 전기적 사실과 작품의 표면을 장식하고 있는 기독교적 색채는 여러 연구자들을 매료하여 김현승 시에 관한 연구의 궤도를 종교적 형이상학이나 이념을 구명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 필자는 지난번 시평에서 ‘기독교 시’ ‘기독교 시인’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와 자료 발굴 등에 열의를 보여줄 것을 말씀드렸다.

더러는/沃土에 떨어지는 작은생명이고자.....//  
 흙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 제, //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도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 김현승 「눈물」 전문

김현승 시인은 “내가 그렇게도 아끼던 나의 어린 아들을 잃고 나서 애통해 하던 중 어느 날 문득 얻어진 시”라고 「눈물」에 관해 적고 있다. 그가 말하는 대로 이 시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고, 죽은 자의 소생을 바라는 종교적 염원이 깃들여 있다. 우선, 1연은 복음서의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매 흑 백 배, 흑 육십 배, 흑 삼십 배

의 결실을 하였느니라”라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마태복음』의 이 구절과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연금술사들이 연금술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항상 인용하는 대목이다. 그것은 ‘죽음과 재생’을 모형으로 하는 연금술적 상상력을 가장 잘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연금술적 상상력이 종교적인 것은 모든 종교적 관념의 모형이 되는 ‘죽음과 재생’을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일차적 상상력의 차원에서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은 세속적인 것의 죽음을 통한 신적인 것으로의 재생 혹은 부활을 상징한다. 즉, 슬픔이라는 여과과정을 통해 죽음은 재생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물질적인 차원에서는 눈물이라는 액체가 “흙도 티도 금가지 않은” 결정체로 변성된다. 한편으로 결정체는 옥토에 떨어져 죽은 아들이 신성의 품안에 재생하는 것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주체의 슬픔을 형상화한다. 이 작품에서는 “당신”이라는 절대적 원인자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차적 상상력의 차원이라 할 수 있는 전자의 의미가 지배적으로 드러난다. 불완전한 요소를 제거하여 완전한 것으로 변형시켜,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신성한 활동이 죽음을 재생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러한 “눈물”은 김현승 시에서 가장 시적인 이미지의 하나이다.

김현승의 시와 산문 곳곳에는 기독교 신자로서 그리고 시인으로서 감내해야 했던 고뇌와 갈등의 흔적이 남아 있다.

다시 《부산 크리스천문학》 제44호(2025년 하반기) 회원님들의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모두 스물일곱 분, 씬 두 편의 작품이 실렸

는데 몇 작품을 선정하여 함께 읽어 보자.

혼자가 아니다.  
살아남기 힘들 때면  
늘 혼자라 생각했다.

밤은 늘 곁에 있었고  
그 밤은 스스로 길어졌다.

벽을 두드리다 지친 기도는 하늘이 되고,  
호흡을 잃은 낡은 날이  
두려움으로 웅크린 곳.

방 끝에 앉은 누군가의 손짓 사이에서  
대답하지 않는 사랑을 찾는다.

그 목소리는,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  
식은 손끝 위로 새벽이 번지고,

한 줄기 빛이  
책상 위 낡은 책을 덮는다.  
그제야 안다.

외로움은 떠남이 아니라  
함께 계신다는  
또 다른 이름임을.

— 광병길, 『임마누엘』 전문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돼 있다. “보라 처녀가 잉

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은 히브리어 ‘임’(함께, with)와 ‘마누’(우리, us)와 ‘엘’(하나님, God)이 결합된 단어이다. 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으로 예언해 주셨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은 구원자로 우리 곁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찬송을 드릴수가 있는 것이다. 성탄의 감격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요? 성탄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요? Merry Christmas가 왜 merry일까요? 왜 성탄이 기쁘다고 할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비천한 나를 찾아 오셨기 때문이요, 찾아오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성탄이 기쁜 것이리라. 이미 세상을 떠난 독일의 유명한 설교자 헬무트 틸릭케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였다. “성탄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찾으러 오신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오신다.”

“한 줄기 빛이/ 책상 위 낡은 책을 덮는다/ 그제야 안다// 외로움은  
떠남이 아니라/ 함께 계신다는/ 또 다른 이름임을.”

— 광병길, 「임마누엘」 부분

그러하다. 모든 것이 절망에 다다른 듯이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회는 정말 시작된다는 데 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  
면, 내가 외롭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말씀이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이것  
이 바로 성탄이 주는 메시지인 것이다.

우리는 안다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만물이 어떻게 지구 위에 존재하는지  
이제 하나님의 창작물인 가을 속으로 들어가본다  
빨강 노랑 갈색으로 저마다 색을 내는  
애기 같은 깨끗함을 갈아입은 산들  
그 속에는 음악이 흐르고  
그림이 그려져 있다.  
꽃 피고 지는 바람 일렁임에도  
계절은 흔들린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계절 속에서 숨을 쉬며 만난다  
30일 여정을 마다하고  
하나님은 시나이 반도를 한참이나 돌아  
서리 깊은 기러기 죽지 위로 핏물을 보였었나  
긴 여정 애움길 돌아온 40여 년 시간  
“만나”의 양식을 거절하고  
고기를 달라고 모세를 원망한 부르짖음 위에  
메추라기 고기는 그믐밤에도 춤추면서 내 입에 내린다  
훗날  
목마름을 알고 배고픔 뒤에 얻은 진리 애굽의 노예가 아닌  
이스라엘을 살아가는 멋진 양식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푸른 숨결 풀어놓은

저 높은 가을하늘 위에 풍성하게 빛날  
진 고통 속에서 얻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 김정희, 『풍성한 생명의 빛을 보라』 전문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는 신의 창조적 힘과 인간의 존재를 상징하며, 성경 창세기의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재현한 빼어난 작품이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는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로, 1508년부터 1512년에 걸쳐 제작되었다. 이 작품은 “아담의 창조” 장면을 중심으로 하며,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다. 두 인물의 손가락이 거의 닿을 듯 가까운 위치에 있는 장면은 신과 인간의 연결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천사들에 둘러싸여 역동적으로 표현되며, 아담에게 생명을 전달하려는 모습인데 이 순간은 신의 창조적 힘과 인간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미켈란젤로는 생생한 색채를 사용하여 인물들의 육체적 아름다움과 신성을 강조했다. 아담의 부드러운 색조는 그의 자연적 상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강렬한 색조는 그의 권능과 초월성을 나타낸다. 이 작품은 단순한 성경 이야기의 재현을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과 신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깊은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목마름을 알고 배고픔 뒤에 얻은 진리 애굽의 노예가 아닌/ 이스

라엘을 살아가는 멋진 양식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푸른 숨결 풀어놓  
은/ 저 높은 가을하늘 위에 풍성하게 빛날/ 긴 고통 속에서 얻어질 영  
원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 김정희, 「풍성한 생명의 빛을 보라」 부분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며칠 만에 들어갈 수 있었나에 대한 정  
확한 대답은 아무도 할 수 없다. 어떤 경로로 누구와 어떤 수단으  
로 가나안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이다.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확실한 날짜는 “호렙 산에서 세일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하루 길이었더라”이다.

그러므로 대략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시작해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소요된  
기간은 약 3개월 정도였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어  
봉헌하는데 약 2년이 걸렸다(출 36~40장).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하였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는 약 224km  
정도로 200만 명이 이동하는데 걸린 기간은 11일 정도였다. 하루  
에 평균 20km를 행군한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  
해 머물렀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의 거리는 약 80km로 4일  
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까  
운 거리를 무려 38년 9개월 만에 들어갔다.

주여!

참으로 지난여름은 무덥고

길었습니다.

가뭄과 거친 비바람에  
노심초사하던  
고단한 농부의 마음 밭에 촉촉이 내린  
축복의 단비

여름과 가을이 만나  
주황빛 혈류를 타고 불타는  
성전 앞 들국화

빈껍데기  
가라지를 털어내고  
천국 창고에 알곡을 채우는  
기쁨의 추수감사절

값없이 주는 은혜에 고개를 숙입니다.

— 김혜영, 「추수감사절에 부르는 노래」 전문

추수 감사절의 기원은 구약 성경의 맥추절(수확의 절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는 전통에서 시작되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다. 그들은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1621년 첫 수확을 맞이하여 원주민들과 함께 감사의 잔치를 열었다. 이 날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추수 감사절이다.

“가뭄과 거친 비바람에/ 노심초사하던/ 고단한 농부의 마음 밭에

축축이 내린/ 축복의 단비”

— 김혜영, 『추수감사절에 부르는 노래』 부분

추수 감사절은 초기에는 특정한 날짜 없이 지역적으로 기념되었다. 그러나 1863년,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 국가적 화합의 날로 선포하며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후 미국 전역에서 가족과 함께 모여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전통이 자리 잡았다.

청교도들이 북미로 오게 된 ‘역사적 배경’은 영국 헨리 8세와 제임스 1세, 찰스 1세 때 이어진 종교 박해였다. 순례자의 조상들(Pilgrim's Fathers)이라 불리는 영국 청교도들은 1600년대 초기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미 대륙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102명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미 대륙으로 이주한 것이 직접적인 유래에 해당한다.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자,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 그해 가을 기대이상의 추수를 하게 됐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시 126:6).” 청교도들은 엄동설한에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 미 대륙 개척자들로 삼아주신 것 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렸다.

결국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 온 다음 해인 1661년 가을,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

추수한 첫 곡식들과 채소들 중 최고 우량품들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들은 기도 중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라고 기도했다.

내 발이  
 짹짹인 줄 모르고  
 신발만 탓하다

한세월 다 보냈네

그 세월 한 가운데  
 절름거리며 걸었던

내 모난 발

신발 벗기어  
 두 손으로 닦아 주네

— 이가언, 「발을 닦으며」 전문

시선은 보이는 것만 고집하기에,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치기 쉽다. 눈에 보이는 것도 대부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동시에 응시할 수

있는, 두 눈이 없는 존재는 미생(未生)일 수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시선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착하기 때문에 불안과 갈등을 겪는 것도, 거기에 있다.

“내 발이/ 짹짹인 줄 모르고/ 신발만 탓하다// 한세월 다 보냈네// 그 세월 한 가운데/ 절름거리며 걸었던// 내 모난 발”

— 이가연, 『발을 닦으며』 부분

완전하지 못한 한 쪽 눈으로는 미생을 완수할 수 없지만 ‘동백’과 같이 빈틈없이 자신 내면의 꽃잎을 포개고 끊임없이 바라볼 때, 완전하고 온전한 전체를 만들 수 있다. 온점은 ‘마음의 눈’으로서 육체의 눈에서 독립하기 위해 고통스럽게 피워 올린 ‘통꽃’인 것이다. 아지랑이와 같은 고행의 막바지에 이르러 마음에 찍은 ‘고요한 점’을 바라보자. 시선은 절벽보다 깊은 응시로 바뀌면서 완생(完生)에 가까워지리니.

구포국수 식당이 문을 닫았다

큰길가 모퉁이 요지에  
국수 한 그릇 이천 오백 원 받아 장사가 될까  
걱정스런 시선이 무색하게  
몇 년 동안 자리를 잘 지키더니  
불 꺼진 가게 문에 폐점 안내문이 붙었다

밖으로 쫓겨나 쌓아놓은 집기들  
엮어진 의자들 틈새로

부상병 같은 신음이 새어 나온다

한때 저것들은

한 끼 국수에도 배부른 사람처럼

흐뭇한 시선으로

찬바람이 쓸고 가는 거리를 내다보았을 것이다

문이 열릴 때마다

가난이 찬 공기처럼 우르르 들어와도

이내 김 오르는 멸치 국물로

마음을 데우곤 했겠지

고명 없는 국수처럼 희멀건 하루를

정성껏 우려내던 그는

어디로 갔을까

가늘게 이어오던

국숫발 같은 날이 끊어진 걸까

문 하나로 나뉘는

안과 밖의 온도

달힌 문 앞에 누운 낡은 의자처럼

구멍 난 꿈들이 노숙하는 차가운 거리에서

기다린다

빼꺼리는 문을 열면

가난한 바람도 안으로 들여주던

그의 목소리를

국물을 듬뿍 부어주며  
또 오십시오 인사하던 그 사내를

— 조현숙, 「문 앞에서」 전문

폐허란 무엇인가? 모든 삶의 논리가 소유와 박탈이라는 두 가지 테제로만 나뉘고, 그렇게 된 후에도 아무도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자본주의의 삶은 폐허다.

행복과 모멸이라는 양분된 감정만이 존재하고, 그 이외의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세계는 이미 폐허다. 그곳에서는 존재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생존하려는 노력과 끊임없이 경쟁한다.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존을 포기해야 한다. 모든 삶의 덕목들은 이러한 경쟁을 위해 전용되며, 미래 역시 같은 방식으로 소진된다. 미래를 소진한 세계에서는 모든 희망이 악몽으로 변질된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진실로 폐허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수많은 폐허를 목도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구성되곤 했던 폐허의 공동체와 연대의식을, 그 불가능한 가능성을 경험했다. 전쟁과 자연재해 앞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불가해한 연대의식을 보라. 그러나 지금 이 폐허는 이러한 연대의식과 공동체로서 느낌 자체를 말살한다. 그 점에서 이것은 그 이전의 폐허들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지속적인 연대는 고사하고 바로 내 눈앞에 있는 타인의 슬픔에 공명하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다.

시인의 시야에 비친 ‘큰길가 모퉁이 요지’에 있던 ‘구포국수 식

당'의 폐점 안내문과 불 꺼진 가게의 폐허 같은 광경은 지금 우리 주변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가난이 찬 공기처럼 우르르 들어와도/ 이내  
김 오르는 멸치 국물로/ 마음을 데우곤 했겠지” 생각에 생각이 꼬  
리 물듯 지난날들이 스쳐간다.

“닫힌 문 앞에 누운 낡은 의자처럼/ 구멍 난 꿈들이 노숙하는 차  
가운 거리에서” 사라져간 사람들의 “멸치 국물”같이 따뜻했던 음  
성은 멀리서 아득하게 들릴 뿐이다.

세상의 보살핌은 누군가의 품으로 깃들인다는 것이었을까.

사람은 스쳐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오래 머무는 풍경이라  
는 깨달음을 맑고도 단정하게 남긴다.

# 올해의 작가

성윤자 | 뼈라눔의 행진  
작품평

Christian Literature 2026

## 뼈라눔의 행진

성 윤 자

창밖에 숨털 같은 눈이 사락사락 내린다. 선달이라 바깥 날씨는 제법 춥다. 집안 곳곳에 놓인 크고 작은 화분에는 계절을 잊은 화초들이 색색의 꽃봉오리를 피워 올린다. 앙증맞은 꽃기린, 연분홍색 제라늄, 붉고 노란 별 모양의 칼랑코에, 크리스마스 꽃이라고 불리는 빨간색 게발선인장…….

모두 거리에서 데려온 식물들이다.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던 생명이 꽃을 피우기까지 온갖 정성을 다 쏟았다. 온도를 적절히 해주고 물도 정성껏 주었다. 내 정성을 저버리지 않고 결실을 보여준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애뜻하고 소중하다.

데려온 식물들을 예쁜 화분에 담지도 않았고 제때 수형을 다듬



| 성윤자 |

- 경남 하동 출생
- 2003년 《한맥문학》 시 등단, 2016년 《문학도시》 소설 등단
- 2017년 《크리스천문학》 수필 등단
- 한국문인협회, (사)부산문인협회, 김해문인협회 회원,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이사
- 김해중앙교회 권사(현)

어 주지도 않았다. 생사의 기로에 놓인 식물 그 자체만 보였다. 목숨이 위태로웠기에 오직 이파리 하나라도 소생하기만을 고대했지, 겉모양을 다듬거나 멋을 부릴 여유가 없었다.

식물 키우기에 멋을 부리려면 화원에 가면 된다. 얼마든지 예쁜 화초들을 만날 수 있다. 요즘은 화원까지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꽃이 만개한 화분을 택배 포장하는 장면을 텔레비전에서 보았다. 화분 안 화초 포기 사이에 부드러운 휴지나 종이로 채우고 두꺼운 종이로 화분을 돌돌 말아 테이프로 단단히 묶어 상자에 담아 고객에게 보내 주는 서비스였다. 이파리 하나 다치지 않게 세심하게 포장해 집까지 배달해 준다.

화원에서 간택을 기다리는 화초들은 화장을 곱게 한 여인 같다.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사랑받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한다. 고객이 돈의 가치만 따진다면 구입해 온 화초 대하는 마음도 돈 가치만큼 일 것이다. 판매 목적인 식물들은 기른 이의 애정이 묻어 있지 않다. 오직 돈 가치만큼 관상하다가 키우기 어렵고 번거로워지면 쉽게 내다 버려도 그리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것이다.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많은 요즘 세태와 다르지 않다.

버려진 식물을 관심 있게 보고 시들어가는 생명의 목마름을 느끼며 정성과 사랑으로 살려낸 식물은 그렇지 않다. 식물에 꽃이 더디게 피어도, 끝내 꽃이 피지 않아도 쉽게 버릴 수 없다. 가족이 된 반려식물이기 때문이다.

2년 전 초가을이었다. 산책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고목 아래 두 여인이 엮드려 무엇을 하고 있었다. 그녀들의 행동이 궁금하여

가던 길을 멈추고 가까이 가 봤다.

고부 사이처럼 보였던 두 사람은 남남이라는 걸 곧바로 알았다. 젊은 여자는 옥색 셔츠를 입었다. 시어머니처럼 보이는 노련한 여성은 회색 모자를 썼다. 두 사람은 검은 플라스틱 큰 화분을 이리 저리 굴리며 뭐라고 이야기하더니 옥색 셔츠 여자가 무거운 화분을 들고 고목에 툭툭 두드렸다. 흙과 화분을 분리하는 것이다. 잠시 후에 흙에 싸인 식물이 쑥 빠져나왔다. 여인은 흙과 식물은 텅 겨버리고 화분만 치켜들었다.

“이 화분 제가 가져갈래요.”

“그러세요. 저는 흙만 가져갈게요.”

두 사람은 마치 마태복음에 나오는 로마 군병들 같았다. 군병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듯 벗겼다. 두 여인은 화분과 흙을 공평하게 나누더니 가장 중요한 식물은 아무렇게나 던져버리고 자리를 떴다. 알맹이는 버리고 쪽정에만 가져간 셈이다.

옥색 셔츠 입은 여인이 가져간 흙은 상토다. 상토는 석 달이 지나면 영양분이 없다. 화분은 플라스틱이고 허영계 변색했다. 하지만 그녀들이 버리고 간 막대기 같은 식물은 생명을 지녔다. 살리기만 하면 무한히 많은 화분을 만들 수 있고 꽃을 피워볼 수도 있다.

잎도 꽃도 없이 마른 막대가 되어버린 식물에서 눈을 땔 수가 없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것부터 알고 싶었다. 크기는 노트 길이 두 배쯤 되었다. 여름 더위에 잎이 다 녹아버린 식물이었다. 그 식물의 집이 되는 화분과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흙마저 빼앗겼으니 그냥 두면 소생할 희망은 희박하다. 마른 꼬챙이 같은 식물을 만져보

니 수분이 촉촉하게 느껴졌다. 손톱으로 꼬집어보니 잠시 후 투명한 진액이 겉면에 솟았다. 벌거숭이이지만 수분을 배출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다. 속으로 기쁨의 감탄사가 터졌다.

막대기 같은 식물을 집으로 데려왔다. 모질다 하겠지만 “아픈 김에 더 아파야 산다”며 삼목을 했다. 살리기 위해 대수술이 필요했다. 가지를 여덟 토막으로 잘랐다. 한 화분에 한 토막씩 꽂아 작은 화분 여덟 개를 만들었다. 바람 잘 통하는 곳에 두고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다. 잎도 꽃도 보이지 않으니 꽃 색깔도 알 수 없어 좋은 이름이 얼른 생각나지 않았다. 빼만 남았으니 ‘빼라눔’이라고 지어 불렀다.

점점 겨울이 다가왔다. 토막 빼라눔으로 부활한 지 2주가 지났다. 조바심이 났지만 참고 기다렸다. 좁쌀 같은 새순이 돌아났다. 반갑고 사랑스러워 환호성이 터졌다. 다시 2주가 지나면서 솜털 같은 새잎이 겹겹이 층을 이루기 시작했다. 화분마다 작고 앙증맞은 포기들이 계속 생겨났다. 그것들을 분리하여 삼목하니, 화분이 수십 개로 불어났다.

다음 해 3월부터 빼라눔에서 꽃이 피기 시작했다. 서른 개가 넘는 꽃 핀 화분을 지인들과 나누었다. 거리에서 거저 데려온 제라눔이 생명을 놓지 않고 꽃을 피웠다고 자식 자랑하듯 하니 지인들도 기뻐하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삼목은 이어지고 화분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 꽃송이가 큰 연분홍 화분들은 오늘도 베란다에서 어느 집으로 생명을 전도하러 행진할까 준비 중이다.

## 옛집에서 문학으로 가는 서정과 서사

박양근 | 문학평론가,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이 누구인가를 표현하고 싶어 한다. 갓난아기가 울고 소녀가 일기를 쓰기 시작하고 중년 여인이 책과 글을 가까이하는 것은 모두 마음속에 있는 무엇을 전달하고 싶기 때문이다. 세파에 시달리고 연륜에 성숙하면 말보다는 문자와 문장으로 소통하려 한다. 한 편의 시든 한 권의 수필집이든 창작의 소출로써 자신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믿음을 가진다. 마침내 작가라는 이름을 얻는다.

작가란 글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글의 길에서는 굴곡진 삶 일수록 다채로운 색깔과 빛을 지닌다. 사람들이 가난하고 무지했던 어둠을 울적하게 회상할 때 진실한 작가는 가난을 아름다운 시절로 기억하는 글쓰기 작업을 한다. 그늘 속에 숨겨진 순수하고 청초한 자아를 발견한다. 그 언어의 길은 삶을 새롭게 인지한 조명이라고 할 것이다.

수필은 걸어온 삶을 풍경으로 직조하는 장르이다. 작가가 수필을 쓰기 위해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는 성찰과 관조는 어둠을 되새

기는 시선이며 주변을 무심의 마음으로 둘러보는 안목이다. 성찰이 내적 사색이고 관조가 외적 해석이지만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더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달리 말하면 문학은 과거를 재인식함으로써 정갈한 자아로 변신하려는 실험이라 하겠다.

수필의 길은 다양하다. 작가가 어떤 삶을 거쳐 왔고 어떤 정신을 지키는가에 따라 수필의 풍경이 달라진다. 수필이 생의 기록이라는 설명만큼 삶과의 밀착성을 설명하는 말이 없다. 삶의 풍경은 자연 속에, 사람 속에, 언어 속에 오래전부터 존재해 오고 있다. 그것을 자신의 상상과 언어와 관점으로 불러낸 것이 수필이다.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을 살핀 가라타니 고징(柄谷行人)은 글쓰기를 “풍경의 발견”이라고 하였다. 그가 말한 풍경은 삶을 형상화하라는 뜻이다. 성운자 작가는 그 점에서 삶을 재발견한 성실한 작가이다.

성운자는 강물과 산자락이 어우러진 하동에서 태어났다. 그곳에서 성장하여 도시에서 활동 범위를 넓히는 동안 기독교 신앙에 눈을 뜨고 늦게 배움의 나무를 식목하여 대학원 국문과 석사를 수료하였다. 2003년 《한맥문학》에서 시인으로, 2017년 《크리스천문학》에서 수필가로 등단한 후 다섯 권의 시집을 발간했고 20년 만에 첫 수필집을 발간한다. 어찌 보면 늦다 할 것이지만 <작가의 말>에서 밝히듯이 한 편 한 편의 글을 서정과 서사로 엮는 가운데 성운자의 풍경을 일구게 되었다. 이런 평이하면서도 특이한 삶이 『이파리들의 행진』이라는 첫 수필집을 완결하였다.

수필집은 작가의 삶과 영혼이 거쳐 온 진로를 담은 집이다. 그 문제에 충실할 때에 작품은 깊은 연륜이 자아내는 생의 향기를 갖

는다. 이 또한 『이파리들의 행진』이 가진 단아한 발걸음이 아닌가 한다.

## 1. 옛집으로 가는 길

『이파리들의 행진』은 성운자의 삶과 문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밝혀준다. ‘이파리’라는 이름은 삶이 어떻게 돈고 어떤 모양으로 피어나며 어떤 결실을 거두는가를 말한다. 작가 스스로 한 포기의 채소가 되고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 묵묵히 피고 지고 거듭함으로써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보도록 한다. 그런 가운데 작가는 자신이 키운 갖가지 채소와 꽃과 나무의 이야기를 듣고 들려준다. 여름 빗줄기 소리도 가져오고 가을 풀벌레 소리도 실어오고 겨울 달빛을 깔아 ‘나는 이렇게 살았다’는 진솔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성운자는 그 정경이 새겨진 질박한 향아리 같은 삶을 살았다. 특별히 아름답지도 호사스럽지도 않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견딘 여인만큼 지긋한 눈길과 발걸음을 가진 자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 삶의 배경이 어머니가 살던 시골집이다. 작가는 무대 설치 감독처럼 독자들이 잠시 들어와 쉬도록 소담한 글의 꽃밭을 만들어 둔다. 그 장소에 들어간 독자는 왜 작가가 그토록 애착을 갖는지 이해해 나가면서 작가가 품은 ‘자연과의 어울림’에 감탄한다. 자신들도 한때 그런 곳에 살았다는 추억의 주인공이 된다. 이것이 『이파리들의 행진』이 이루어낸 미적 구조다.

고향으로 가는 길을 담아낸 대표작이 <옛집>이다. <옛집>은 캐나다 인문 철학자인 이푸 투안이 설명하는 토포필리아라는 모티프를 선택한 작품이다. 토포필리아는 어떤 사람이 특정 장소나 공간에 가지는 ‘장소애’라는 문학 용어이다. 사람은 출생지나 성장한 고향에 심리적 향수를 갖는다. 짧은 기간 동안 살았을지라도 정서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받은 곳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리움에 대상이 된다. 태어난 집, 놀이터, 꽃밭뿐만 아니라 처음 다녔던 절과 교회, 학교 등은 추억의 장소로서 문학적 배경이 된다.

성운자가 회상하는 시골집은 예스럽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집에 기거하는 가족은 없지만 작가는 시간을 내어 채소를 심고 꽃을 가꾸어 누군가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정갈하게 지켜낸다. 살림 도구도 그대로 두어 사람이 살아야 집이 산다는 이치를 실천한다. 하지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집이 외로워 보인다고 작가가 느낄 만큼 뒤란에는 들풀이 우거지고 손때 묻었던 살림 도구에는 먼지가 쌓이고 집 안 향아리는 손길이 닿지 않아 터져 버린다. 그러나 그곳은 가족이 살던 곳이고 어머니가 반가이 맞아 주던 시간이 머문 곳이므로 옛집으로 찾아갈 때는 연어의 회귀처럼 가슴이 설렌다.

한세월의 추억을 간직한 옛집! 나를 키워낸 옛집이라는 허물을 벗고 나는 도시의 삶을 이어간다. 들풀이 허물어져 가는 사랑채까지 기어오르고 깨어진 축담 틈새에도 비집고 들어가 제집처럼 자라고 있다. 들풀에게 옛집을 내어주고 나를 키운 옛집의 어머니와 따스한 지난날을 되새김한다. 잠시라도 도시를 떠나 쉼을 찾고 잊고 있던 나 자신도

찾을 수 있는 곳, 언제나 그리운 나의 옛집이다.

— <옛집>에서

들풀이 가득한 집을 ‘그리운 옛집’으로 부르는 이유는 작가가 어린 시절을 보낸 토폠피리아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토폠피리아는 지형적 조건을 초월하여 그것을 이긴 존재의 근원인 향수와 자연애를 자극한다.

제1장에 실린 <바가지>, <갯꽃>, <멈춰버린 절구 소리>, 2부에 실린 <덩이호박>, <맨드라미꽃> 등은 직간접적으로 <옛집>과 이어지는 갯가지 가족사를 펼쳐낸다. <갯꽃>은 농사꾼 어머니처럼 도시 농사꾼임을 자처하는 작가가 텃밭 농사를 짓는 자신의 일과를 그려낸다. 갯씨는 채소 나물을 거두는 이익도 있지만 어머니가 집 주변을 온통 갯꽃으로 꾸몄던 풍경을 부활하려는 소망을 표현한다. 노란 갯꽃 속에서 “아가, 네가 오냐?”하며 구부정한 어머니가 걸어 나오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생전에 모녀 사이에 깊게 흘렸던 애정을 되살려주는 심미적 착상이다. 어머니가 벽에 걸어두었던 씨앗 주머니도 수십 년이 지난 후 딸인 작가에게 추억의 글 주머니가 되었다.

시골에서는 웬만한 살림 도구는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 찌리 빗자루, 감 따는 장대, 바지랑대 외에도 박 바가지는 아내를 위해 남편이 만들어 준 대표적인 살림이다. 무뚝뚝하지만 자상한 아버지가 선연하게 되살아나는 시간도 작가에게는 그지없이 화목한 순간이다. <바가지>는 “밥 무려 안 내려오냐”라는 어머니의 목성을

다시 듣는 시공을 마련해준다. 지붕에서 박을 조심스럽게 내렸던 아버지의 손길을 되살리기 위하여 작가는 플라스틱 바가지로 박 바가지로 여기면서 화초에 물을 준다. <멈춰버린 절구 소리>는 어머니와 함께 절구통에 겉보리를 찧다가 손가락을 다친 사건을 되살린 글이다. 무려 60여 년 전이지만 손가락을 다쳤을 때 어머니의 황망한 표정을 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어머니의 부주의를 되살리기보다는 지금 열 손가락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고 말한다. “어린 시절에 아담한 초가’에서 일어난 갖가지 일들이 작가의 수필을 통해 오래도록 기억하고픈 글감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성윤자는 지금도 유년기의 옛집에 대한 기억을 소중히 간직한다. 여유를 가질 때마다 찾아가 허물어진 곳을 고치고 군불을 지펴 사람의 온기를 불어넣는다. 초가 주위의 대숲, 갖가지 채소를 가꾸던 텃밭, 절구통이 놓인 장독대, 보름달만 한 박꽃이 피던 지붕, 갖꽃이 피던 주변 공터는 단순히 물상과 장소가 아니라 추억을 심연으로부터 끌어 올린 소재들이다. 이러한 연상은 기억보다는 가슴에서 우러난 작가의 감수성으로 이루어진다. 옛집 풍경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채색미가 넘치는 문장으로 복제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작가가 지닌 섬세한 반응력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 2. 집터 지키기와 생태 실습

시골은 사람들에게 매일 꽃과 나무를 키우고 새 소리를 들으며

사는 장소를 제공한다. 자연이 가장 위대한 도서관이라고 하는 말은 시골이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동식물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실습 현장임을 뜻한다. 그곳 사람들은 밭과 들판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을 하는 가운데 고단한 삶을 견디기 위해 반려식물이나 반려 곤충을 돌보기도 한다. 시골은 학교와 달리 자연 숭배나 생태주의나 공생 같은 어려운 용어를 가르쳐주지는 않지만 생활을 통해 그 의미를 체득하도록 해 준다. 그냥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채소가 풍성하고 가을이면 단풍이 물드는 변화를 통해 자연과 어울려 산다는 사실을 배운다. 때로는 꽃가지가 바람에 꺾이고 참새가 날개를 다치고 콩이나 벼가 버려져 시들어가는 아픔을 바라보면서 조상들도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회상하기도 한다.

그 아이가 성장하여 도시로 이주하면 화분에 꽃을 심고 베란다에 고추 모종을 심는다. 어린 시절이 유복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가꾸던 채소밭과 꽃밭에서 자연이 변하는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던 성윤자는 그때 그것을 되살리고 싶어 한다. 어머니의 손길을 유심히 지켜보았던 눈썹미와 천성적으로 타고난 남다른 감수성으로 일찍부터 생명의 소중함도 체득하였다. 집 주위가 어떤 학교보다 유익한 교육 현장이라는 점도 독자에게 알려준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교육의 진정한 의미이다. 지식이 아니라 인문정신을 배우는 것, 자연친화 사상을 체득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윤자는 하동 본가에서 태어나고 지금도 종종 본가에 들리는 가운데 생명의 소중함과 그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박애주의를 키워온다. 그녀가 꽃을 가꾸고

모를 심고 채소를 키우는 일은 단순히 가족의 식탁을 풍요롭게 하려는 농사가 아니라 자연을 지켜 인간과 함께 공존한다는 생태의식의 실습이라 하겠다.

성윤자는 태어난 시골과 현재 살고 있는 도시를 이어주는 공간을 마련한다. 그곳은 아파트의 베란다와 발코니로서, 시골 풍경을 도시로 옮긴 장소이다. 작가는 발코니에 예전에 어머니가 밭에 심었듯이 상추, 배추를 심어 자라게 하고 황금빛 벼를 키운다. 베란다에서는 토마토 삼대와 맨드라미꽃의 생명을 이어준다. 베란다와 발코니를 농촌 생활을 재현해 주는 무대로 삼은 그녀는 도시에 살지만 농촌의 모심기가 얼마나 고된 작업이었는가를 잊을 수 없다. 부모의 고생을 기억하고 분담하려는 듯 작가는 한 포기의 모도 소중히 여긴다. 한 알의 알갱이는 농부의 수고를 의미하므로 벼모는 제대로 눈에 심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날 벼모가 논둑에 버려진 것을 발견한 작가는 몇 포기라도 살리기 위해 아파트로 가져온다. 포대에 물과 흙을 채워 모를 심고 별 잘 드는 발코니에 놓고 한철 내내 초록빛 벼가 자라는 성장을 지켜보면서 농부의 후손임을 자랑스러워한다. 나아가 작가는 진정한 생태주의란 벼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새들이 벼 알갱이를 먹도록 허용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후여, 후여!”

새를 쫓아 봤지만 허사였다. 하루 중 어느 시간에 새가 날아들지 알 수 없었다. 피어나던 이삭들은 순식간에 새들의 양식이 되고 허연 껍데기만 뜨물처럼 말랐다.

내 속이 타들어갔지만 한편으론 괜찮았다. 집에서 벼를 길러 농부의 수고와 인내를 한 번 더 느껴 봤고 어린 날 추억을 재생해 보았다. 그것으로 되었다고 위안했다. 배고픈 새들의 배를 불러 주었으니 그것으로도 족하다. 식물의 정직함도 가까이에서 다시 한 번 보았으니, 좋은 경험을 한 셈이다

— <모심기>에서

<모심기>에 담긴 작가정신은 발코니에 모를 심는 것이 아니라 벼 알갱이를 새와 나누는 배려에 있다. 새와 함께 살아간다는 마음은 고스란히 작가의 인생관을 반영해준다. 굶주린 참새를 박대하지 아니한다는 농심에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신앙을 통해 배운 나눔의 정신과 일흔 나이로 성숙한 연륜이 합쳐 특유의 생태관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운자가 지닌 자연애의 폭은 매우 넓다. 그녀는 좋은 토양에서 자라는 화초나 식물뿐만 아니라 버려진 식물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그녀는 <맨드라미>에서 고추밭에 버려진 맨드라미를 집으로 가져와 살려낸다. “오갈 데 없는 슬픈” 맨드라미가 마침내 “윤기가 반들반들한 붉은 꽃”을 피워내는 변화는 그녀에게도 감격적이다. 맨드라미의 고향이자 자신의 고향 집 마당에 살아난 맨드라미 씨앗을 파종하겠다는 말은 고향 옛집에 대한 그녀의 애착이 얼마나 강한가를 강조한다. 나아가 “시들지 않는 사랑”이라는 맨드라미의 꽃말에도 일치한다.

시골에서 습득한 자연애가 도시로 옮겨진 예를 선보이는 작품 중의 하나가 <보금자리>다. 시골에 사는 새와 달리 도시에 사는

새들은 먹이를 찾아 공원이나 아파트 주변으로 모여든다. 발코니에 설치된 실외기 주변은 비둘기들이 즐겨 둥지를 만들고 새끼를 키우는 좋은 보금자리가 된다. 이 작품은 실외기 밑에서 사는 비둘기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해주는 작가의 자상한 마음씨를 바탕에 둔다. 팍팍해지는 도시 아파트에서 맨드라미를 키우고 버를 심고 비둘기를 키우는 행동은 인간 중심의 이기주의를 초월하여 사람의 집을 동식물의 둥지로 삼는 애정을 강조한다. 이 점에서 『이파리들의 행진』이 표방하는 주의는 체험의 성실한 기록을 지향한다.

성운자에 자연에 대한 관찰력이 바탕이 된 작품으로 <뼈라늄의 행진>, <고구마 전도>, <노란 텃밭 축제> 등이 있지만 대표작은 <덩이 호박>이다. 호박에 대하여 꾸준히 관찰한 것으로 작가의 체화가 얼마나 진솔한가를 보여주는 척도로 삼을 만하다. “이른 봄에 호박씨 하나를 심었다”로 시작하여 “평퍼짐하고 누르스름한 호박이 수확될 때”까지의 과정은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움아매고 오르며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엄숙한 사실을 강조한다. 호박은 계절이 깊어질수록 대추나무, 감나무를 감아 포로로 만들고 울타리를 훌쩍 넘어 사람이 다니는 길조차 막아버린다. 작가는 호박덩굴을 무법자라고 부르지만 살아남으려는 호박의 몸부림에 경외감마저 품는다. 이런 생태적 현장을 목격한 작가는 인간사회에서 전개되는 생존본능을 점검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나도 살아오면서 누군가에서 호박넙쿨의 호박손이었는지 모른다.

또 어떤 호박손은 나를 타고 뛰어넘으며 자랐을 것이다. 우리는 너나 없이 서로 기대어 살아가야 할 연약한 생명이 아닌가. 나도 이제 누렇게 익은 덩이 호박을 내어놓아야 할 때다.

— <덩이 호박>에서

빈집과 텃밭은 작가에게는 추억의 장소이면서 식물의 생존 과정을 지켜보는 학습 공간이다. 나아가 그녀는 그곳을 개인의 삶과 인간사회의 공존을 자각하는 인식 공간으로 풀어낸다. 단순히 여가를 즐기는 전원생활의 연장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는 생태주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성윤자의 수필은 또 다른 문학성을 확립하였다고 하겠다.

### 3. 한 번의 인생과 세 가지 윤좌

성윤자의 인생을 끌고 가는 동력은 세 가지다. ‘옛집’에 대한 향수와 자연생태 의식과 기독교 신앙이 작가의 인격체를 발달시키는 세 가지 수레바퀴다. 그중에서 기독교 신앙은 작가가 추구하는 배움에 대한 열망과 정신적 인간애를 후원한다. 고향에 대한 향수와 자연 사물이 서정을 키워준다면 폭넓은 인간애를 받쳐주는 것은 신앙심과 학업에 대한 집념이다.

그녀는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에 귀의하여 예수를 믿었고 친정 가족과 시가 가족을 전도하였다. 당시는 무속이 시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던 때인 만큼 기독교라는 새로운 신앙은 작가의 호기심과 구원을 향한 희망을 반영한다. 비유하면 그녀에게 신앙

은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님이 밝은 빛을 준다는 믿음이다. <무녀의 촛불>은 어린 시절 새벽기도에 참가하기 위하여 동생과 함께 캄캄한 시골길을 걸어갔었던 어느 날을 소재로 삼고 있다. 그녀는 킁킁한 개울을 건너던 중 무녀가 켜둔 촛불을 발견하고 그것을 들고 교회에 무사히 도착한다.

어둡고 추운 밤에 촛불을 켜 놓고 돌아간 무녀가 고맙기만 했다. 우리는 무녀가 켜 놓은 촛불을 하나씩 들고 바람도 조용한 어둠 속을 걸어 교회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다. 성도들은 세수도 못 하고 나온 우리 자매의 얼굴을 보고 놀라며 반겨주었다.

곧 새벽기도가 시작되었다. 설교 말씀은 기억나지 않지만, 무조건 듣기 좋은 말씀이었다.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산등성이 위로 아침 해가 떠올랐다. 그마저도 은혜로워 가슴이 뜨거워졌다.

— <무녀의 촛불>에서

무녀가 남긴 촛불을 들고 새벽기도에 갔던 일화는 그녀가 받아 들인 신앙의 절대성을 설명해준다. 촛불은 샤머니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믿음의 빛이다. 신자로서 이런 자세가 오늘날의 성운자가 되게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가는 스스로 고백하듯이 만학도이다. 당시는 산간 시골에서 자라는 딸에게 정규교육을 한다는 건 가정 형편상 거의 불가능하였다. 읽을거리가 성경뿐이었다고 기억하듯이 스스로 공부할 여건도 만만찮았다. 하지만 그녀에게 배움터는 자연과 그곳에서 자라는 갖가지 식물과 새들이었다. 정규교육을 놓쳤지만 늦은 나이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수료했다.

<책 사랑>과 <소 뒷발로 쥐 잡듯>의 두 작품은 작가의 학업 정신을 대변하는 대표작들이다. “나의 책에 대한 열정은 평생 변함이 없다”는 첫 문장처럼 책이 뻥뻥이 꽃힌 도서관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에게 일어난 호기심은 실로 감격적이다. 세상은 넓고, 편협한 지식이 부끄럽다는 솔직한 자성은 주부가 되어 학업을 시작하고 작가로서 살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진다. <소 뒷발로 쥐 잡듯>은 숭한 실패를 거듭한 끝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던 쾌거를 담고 있다. 어떤 배움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소 뒷발로 쥐 잡듯’이라는 말도 우연히 이루어진 결과를 빚낸 속담이 아니라 소가 뒷발로 수십 차례 시도한 끝에 성과를 거둔다는 은유의 격언이다.

무엇 하나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다. 소가 뒷발로 쥐를 잡으려면 우연히 되는 게 아니다. 운전대와 내가 한 몸이 된 듯 몸으로 익혀야 운전이 제대로 되듯 소도 뒷발을 수월하게 놀려서 쥐를 잡을 경지가 되려면 수많은 발놀림을 거쳐야 한다. 나도 여러 번 낙방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끈기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 <소 뒷발로 쥐 잡듯>에서

작가가 운전면허 시험을 통하여 얻은 교훈은 “배워서 남 주나”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진실이다. 작가는 오늘도 어떤 것을 배워야 한다면 모든 노력과 방법을 강구하고 자력으로 이루어낸다. 이러한 노력은 자연에서 관찰한 식물들의 끈기와 일치한다. 이파리들은 제 힘으로 땅을 뚫고 하늘을 향해 성장한다. 그녀

에게 이파리들은 인생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동행자이다. 사람이 가야 하는 길에서는 동행자가 필요하다. 그들이 생을 운택하게 하는 덕분에 작가의 담론은 희망을 던진다.

근면한 생활을 투영한 작품으로 <술과 조끼>를 제시할 수 있다. 경제적 수준과 소비성향이 높아지면서 패션에 관심이 높아졌다. 집집마다 있던 재봉틀이 사라지고 시장마다 자리 잡았던 옷 수선점이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다. 헌 옷을 수거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유행이 지났거나 몸에 맞지 않으면 옷을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작가는 옷장 속에 묵혀 둔 조끼가 맞지 않아 궁리 끝에 예전 솜씨를 발휘하여 몸에 맞는 새 옷을 만든다. 작가의 검소하고 근면한 성품을 반영하는 이 작품은 소용없던 옷이 재생되어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조끼”가 된 재활용이 생태적 복원임을 나타낸다. 작가가 버려졌던 모를 키워 수확하고 버려진 꽃을 정성스럽게 키웠듯이 옷 수선도 넓게 보면 재생의 지향성에 일치한다.

## 마무리

글을 쓰는 작가는 나뭇의 문학관을 지닌다. 삶을 반영한 인생론을 바탕으로 쓰인 “작가의 말”은 문학이 그녀에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밝혀준다. “수필을 쓴다는 것은 영킨 실을 풀어가는 느낌”이라고 말하는 성운자는 삶에서 떠나지 않고 맴도는 소재만을 선정하여 “가뭇에 콩 나듯” 다듬었다. 작가는 그 진중한 선택으로 시련과 역경으로 가득 찬 삶을 이겨내고 문학을 세워 자신

의 존재성을 정립할 수 있었다.

『이파리들의 행진』은 작가가 시골에 뿌리를 둔 과거와 신앙과 문학을 이어가고 서정과 서사를 잇는 의미도 갖는다. 이제 이파리들은 어엿한 꽃과 나무가 되어 성윤자의 분신으로서 독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첫 수필집일지라도 여섯 번째 문학 작품집이라 농익은 삶을 미학적으로 승화시킨 결실임을 알 수 있다.

성윤자의 작품 세계는 흙내 나는 자연 소재와 땀으로 이루어낸 자아 정립을 모티프로 한다. 감성적인 서사와 진솔한 문장으로 정성스럽게 짠 인생교실이 『이파리들의 행진』이라는 점을 평설의 마무리로 삼는다는 것이 평자로서 기쁘기 이를 데 없다.

# 시

|                   |                   |
|-------------------|-------------------|
| 감 <sup>ㅁ</sup> 윤옥 | 향기를 토하는 포도나무 외 1편 |
| 곽병길               | 임마누엘 외 1편         |
| 권영숙(어미새)          | 저녁노을 외 1편         |
| 김경희               | 오월의 노래 외 1편       |
| 김동우               | 갓생(God生) 외 1편     |
| 김민주               | 흥마 외 1편           |
| 김숙희               | 내 안의 스위치 외 1편     |
| 김은희               | 노을과 그림자 외 1편      |
| 김혜영               | 카톡 카톡 외 1편        |
| 류정희               | 피어오르다 외 1편        |
| 박인자               | 꽃비 내리는 봄길 외 1편    |
| 배혜숙               | 새 외 1편            |
| 손정란               | 달팽이 그녀 외 1편       |
| 송정우               | 손톱 재건축 외 1편       |
| 신 선               | 나사렛 예수 1 외 1편     |
| 신현숙               | 꿀벌 외 1편           |
| 양윤형               | 패랭이꽃 외 1편         |
| 유문경               | 이별 그 이후 외 1편      |
| 유병기               | 장미의 노래 외 1편       |
| 이가연               | 출판기념회 외 1편        |
| 이경옥               | 민들레 홀씨 되어 외 1편    |
| 이귀선               | 너에게 외 1편          |
| 이선화               | 좋은 사람 외 1편        |
| 이승훈               | 신의 악단 외 1편        |
| 이창희               | 마구간을 밝힌 그 별빛 외 1편 |
| 임병주               | 대한민국호             |
| 정신자               | 된 장 송頌 외 1편       |
| 정연원               | 기장해변 외 1편         |
| 조의홍               | 서투른 기록 · 93 외 1편  |
| 최귀례               | 흥정하는 봄 외 1편       |

## 향기를 토하는 포도나무 외 1편

감윤옥

새벽을 입고 온 그분은  
백합 향기 날리며  
내 이름을 포도송이로 부르신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그 음성에  
굳게 닫힌 빗장이  
무화과 속살로 찢어진다

그 은총은  
깨진 향유병 파편으로  
공기 속에 흩어지며  
내 심장에 걸어 와 박힌다



| 감윤옥 |

- 2009년 《기독교문예》 시 등단
- 중·고등학교 교사역임, 수영로교회 은퇴전도사
- 부산여류시인협회 부회장, 부산시인협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이사, 부산해운대문인협회 부회장, 유튜브<인생의 길동무> 운영
- 저서 『그 숲에 가면 1』 『그 숲에 가면 2』 『봄 햇살 젖은 발자국』

나는 검고  
먼지와 땀에 절었지만  
그분 눈에는  
햇살 머금은 예루살렘 장막이다

그분 가슴에 귀를 대면  
두려움은 옷을 벗고  
포도주보다 깊고  
입맞춤보다 높은 안식으로 눕는다

## 생채기를 위한 기도

주님

말씀이 피를 흘리는 도시에  
혀를 갈아 어둠을 베었습니다

아픔은 자라

심장에 뿌리를 내리고  
나는 스스로를 물어뜯는 사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생채기 난 마음마다  
눈물이 기도가 되어 밤을 건너가게 하소서

탓은 깊은 고요 속에 접어 두게 하시고  
그 고요의 바닥에서  
당신의 심장을 내 심장에 이식해 주소서

주님

부서진 용기 위에 빛을 얹어 주시고  
아픈 자리에 당신 손길을 잠들게 하소서

생채기를 안고도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  
당신 그늘 아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 임마누엘 외 1편

곽 병 길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살아내기 힘든 날이면  
나는 늘 혼자라고 믿었다

밤은 곁에 있었고  
그 밤은 스스로 깊어졌다

벽을 두드리다 멈춘 기도는  
허공에 남아  
어디에도 닿지 못하고  
숨을 놓친 날들이  
두려움 속에 웅크려 있을 때

방 한쪽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 곽병길 |

- 2014년 《수필과 비평》 수필, 2015년 《문학도시》 시 등단
- (사)부산광역시문인협회, (사)부산시인협회, 부산수필문인협회, 수필과 비평,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누군가  
오래 머문 기척

대답 없는 침묵 사이로  
식은 손끝에 스미는  
아주 미세한 온기

그리고  
어둠을 밀어내지 못한 채  
조용히 번져 오는 새벽

책상 위  
덮인 채 놓여 있던 책 위로  
빛 한 줄  
나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한다

혼자라고 부르던 시간들이  
천천히 다른 이름으로  
흘러간다

## 존귀와 영광

어둠을 가르며  
한 줄기 빛이  
천천히 번져 간다

낮은 곳  
누군가의 상처 위에  
머물던 손 하나  
말없이 건네진 온기가  
조용히 번진다

새벽의 공기 속에서  
흘린 땀 한 방울

그 작은 빛이  
꺼지지 않고  
남아 있는 동안  
우리는 서로를 비춘다

흔들리는 별빛처럼  
가늘게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서로의 어둠을 건너  
하늘 위에 닿는다

## 저녁노을 외 1편

권영숙(어미새)

굽이굽이 흘러가는 강물 위에  
저녁노을 고요히 젖어 든다

붉은 물결 비단 필 끝없이 흘러간다  
한 필 척 끊어내어 옷 지어 입고  
찰랑찰랑 머리 적셔 붉은 머리 만들어 본다

누굴 마중가고 싶은 마음 가득 안고  
강가를 걸어 본다

패랭이꽃들도 저녁노을에 젖어 피었다  
바람에 강물이 스친다

붉은 비단 필 차르르 떨어 끝없이  
이어진다



| 권영숙 |

- 2012년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백일장 장원(시)
- 부산문예시대 작가상, (사)부산문인협회 작품상 수상
- 시집 『어미새』 외 7편
- 스토리 텔링집 『꽃은 한을 먹고 핀다』
- 장편소설 『양들의 분노』

## 나무

나무는 한 점 부끄럼이 없다  
깨끗한 나무

비리를 담을 주머니도 없다  
여름이면 푸른 옷 한 벌  
하나님 지어주신 옷

한 겨울  
미련 없이 푸르던 옷 홀랑 벗어버린 나무  
뿌리만 살아

봄을 기다리며 세상을 가르치지만  
사람은 도무지 알아듣지 못 한다  
나무는 또 한 해를 산다

윤동주 시  
하늘을 우리러 죽는 날 까지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생각해 본다

## 오월의 노래 외 1편

김 경 희

이제쯤  
잘 익은 오월의 농주 맛은  
달디 달게 하늘을 주름잡을 듯 퍼질 것이다  
진중일 고단한 허리는  
이팝나무 그늘이 만져주니  
우듬지 앉아 짓궂게 노래하는  
까마귀도 어여뻐 보이는 오월

이리도 화려한 오월을 만들어 내게 주신 하나님  
오늘도 찬양하면서  
사랑으로 아침 열어주시는 풍성함이 감사해서  
이팝나무  
그늘에 앉아 휘파람 읊조리며 쉼을 노래한다



| 김경희 |

- 2008년 《새시대문학》 시 수필 등단
- 음악박사, 명예 문학박사
- 제31회 부산문학상 대상 수상
- 전국 해양문학제 우수상 수상

이제

내 익은 심장을 흠치다 들킨 오월의 노을을 건져

그 옛날 소쩍새 등에 업혀 배 주렸던

그녀 불우물에 연분홍 눈물로 고이게 하리라

## 전쟁은 터지고

세상은 봄꽃으로 희망을 불러오지만  
지구는 왜 이리도 아픈지  
대국의 거대한 간섭이  
먼 이곳까지 상처를 부른다  
커다란 오랜 나라가 늙어가니 무서울 게 없나 보다  
구부정한 큰 어른 대추같이 붉은 얼굴이  
오늘도 영상으로 잡힌다

주님  
세상을 지켜주옵소서  
정원 없는 지구를 원치 않습니다  
뭉게구름 꺼멓게 가린 하늘 역시 원치 않습니다  
진달래, 개나리  
서로 어우러져 산에 살게끔 그냥 내버려 주세요  
다래실 타고 올라가는 우리 집 정원  
농소화를 올해도 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피는 벚꽃  
지는 벚꽃  
일 없이 보게 하는 범사에 충실한  
안일한 하루를 주옵소서

## 갓생 (God生) 외 1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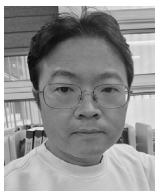
김 동 우

아침에,  
카톡왔송

쌤 저 학교 못가요  
 왜 또 뭐?  
 자전거 사고 나서요 엄빠랑 병원가요  
 이 녀석, 또 픽시 탔냐?  
 죄송합니다

근데요 쌤  
 저보고 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쌤이 하지 마라 한다고 내가 하지 말 놈도 아니고  
 그냥 열받쥬 킹받쥬 어쩔티비 저쩔티비  
 아무 것도 못하쥬

그러니까 브레이크라도 좀 달라고  
 그러다 인생 하직하고 싶냐



| 김동우 |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졸업
- 2020년 《신세계문학》등단
- 시집 『너테를 위해』
- 현, 부산동중학교 국어교사

솔까말 그건 완전 에바쵸  
픽시 자전거는 노브레이크가 레알 근본이니깐요  
자빠질 듯 말듯 아슬아슬  
스키딩은 캐간지 그 잡채거등요  
파털 어택 마털 어택으로도  
멈출 수 없는 가싶남  
그래도 반박 시 썸 말이 맞는 걸로 하쵸

아침에 또,  
카톡왔송

MBN골드 김영민매니저  
반도체 관련 주가는 여전히 급등 중  
오늘의 투자 포인트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BESS  
수요 대폭발!  
지금 탑승하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오를락 내릴락 예측불허  
아슬아슬 역시계곡선에 탑승한다  
브레이크가 없어 멈출 수 없는  
갯생을 위해  
반박 시 내 인생이 맞는 걸로 하고

## 구구절절한 사랑 노래

서면 중앙대로 666번길 더샵 센트럴스타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오면 그러니까 십수 년 전 장미니 물망초니 원색 간판을 내걸고 술장사하던 좁은 골목 보금빌딩 5층에는 박 목사가 20년째 섬기고 있는 하늘소망교회라는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린시설이라 지하에는 당구장 1층에는 치킨집 2층에는 보람인 채소가 있어 박 목사가 가끔 전도지 인쇄를 맡기려고 들리는데 불경기라 일이 없다고 하소연하곤 합니다 그러면 박 목사는 가만히 전도지 한 장을 내밀 뿐이지요

3층은 무슨 건설소 간판을 달고 있긴 한데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중년 남자 둘이 가끔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콩초를 아무데나 버립니다 그러면 4층을 사택으로 쓰는 박 목사는 콩초를 주우며 옛날을 떠올리곤 하는데 박 목사도 신학을 하기 전에 힘 좀 쓰고 다니며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당구도 치던 때가 있었더랬죠

물론 목사 안수를 받고서는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새벽에는 엘베가 작동하지 않아 1층부터 5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야합니다 다만 4층에 사택이 있는 박 목사는 5층 예배당까지 올라가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러 예배당으로 올라가는데  
시린 새벽부터 경찰자 경광등이 골목에 반짝입니다  
예배당 아래 누군가 술에 취해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데  
어쩐지 목소리가 익숙한 게 2층 보람인쇄소 사장인 것 같은데  
쉬불년 쥐길년 걸쭉한 욕설이 술지게미처럼 쏟아지며 좁은 골목  
에 쌓이는데

박 목사는 가만히 창을 닫고 본당에 앉아 경건하게 찬양을 부릅  
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 어깨가 시렸지만  
열심히 찬양을 부르면 괜찮습니다 기도는 금대접에 담겨 아버지 앞  
으로 올라가겠죠

저 멀리 구구절절한 사랑 노래가 경광등 불빛과 함께 세상 속으로  
스며듭니다

## 홍마 외 1편

김민주

누벼라! 이 땅을 발자국이 길을 만든다  
가파른 언덕 숨이 차도 타는 니 눈 그대로가  
뜨거운 심장 박동 소리 옷깃까지 전해지는 불길  
혈떡이며 올라서는 오늘이 내일의 발판

달려라! 달리자! 우리 모두 희망 찾아  
홍마야! 달려라! 달리자! 우리 모두 달려보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붉게 타는 너를 믿자  
홍마야! 달려라! 달리자! 우리 모두 달려보자!

아직도 가야 할 길 저 멀리에 흐릿한 한 성  
니 붉은 열정남은 자리 못 다 한 미래 비전  
꿈의 설계 한 장 한 장 벽돌처럼 마음에 쌓고  
때를 기다린 작은 소망 창문마다 불을 켜다



| 김민주 |

- 1999년 경남문학 시 부분, 1999 시조 문학 당선
- 시조집 『그리움은 바다가 된다』
- 신앙시집 『그 사랑은 걸작품』
- (현) 무지개 생명치유 통합 연구소 (상담치유교육) 1호 무지개칼라리더십 경영학 박사 & 자연치유칼라테라피 박사

달려라! 달리자! 우리 모두 희망 찾아  
홍마야! 달려라! 달리자! 우리 모두 달려보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불게 타는 너를 믿자  
홍마야 달려라 달리자 우리 모두 달려보자

언젠가 어깨의 짐을 조용히 바닥에 내리고  
물가 초장 푸른 풀밭 니 그림자 길게 눕는다  
갈매 빛 산 노을 저 끝에서 큰 산 품은 니 자태  
불게 젖은 눈동자에 지나온 길 전부 비친다

달려라! 달리자! 우리 모두 희망 찾아  
홍마야! 달려라! 달리자! 우리 모두 달려보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불게 타는 너를 믿자  
홍마야! 달려라! 달리자! 우리 모두 달려보자!

\* 2026년 병인년 붉은 말의 해 희망의 상징적 의미로 담아 짓다  
유티브 무지개 치유연구소 김민주 무지개 tv에서 작사가 노래 감상

## 흑마 2

어둠의 밤을 달려온 그림자 같은 내 인생  
두려움이 이름이 이었고 상처 난 발굽 위로  
나는 오늘 너를 위해 태운다  
어둠이라 불린 그 자리 그 속에 숨 쉬던 생명 하나

어둠은 나를 삼킨 게 아니라 빛으로 가는 문이었다  
흑마여! 멈추지 마라! 내 손을 잡고 달려가다오!

나는 어둠에 묻힌 그림자를 건너는 용기를 내고  
나는 지금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정원의 한가운데서  
빛의 친구야 너를 바라본다

이 어둠 속에서 치절한 상처 난 내 육신과 정신에게 누군가가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일어나자고  
다시 빛으로의 지혜의 바다로 나가자고 속삭여주고 있듯

나는 밤바다 파도를 타고 춤추고 있는 저 어둠 속의 생명 빛  
먼 우주의 달빛의 어머니 품을 그리워하며 다시 살아야겠다  
다시 일어나야겠다

몸부림치는 이 순간 나는 미래의 꿈을 그리워하는 이 시간 살아보자고  
절망에서 희망을 건져 올리는 전환의 길에서

친구야 나를 잡아다오 나를 태워  
저 눈부신 아침햇살을 맞으며 달려가다오  
저 눈부신 수평선 갈매기처럼 빛으로 날아 보고 싶단다

흑마야! 흑마야! 같이 달려가다오  
멈추지 말고 달려가다오 흑마야! 흑마야!  
우리는 어둠의 친구지만  
저 환한 생명 빛을 찾아가야 해! 찾아가야 해!

\* 흑마의 상징적 의미 속에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들을 위한 치유의 노래  
유틸브 뮤지개 치유연구소 김민주 뮤지개 tv에서 작사가 노래 감상

## 내 안의 스위치 외 1편

김 숙 희

일출이 기지개 켜 때  
새 각기 볼 감싸쥐는 순간  
아리랑 춤추는 연기가  
굴뚝마다 피어오른다  
아침햇살이 올린 스위치가  
식탁에 앉는다  
햇살을 밥에 얹어 먹는다  
깊어지는 여덟 시간  
또는 서너시간 겹쳐지는 무게로  
짓눌리는 걸음에 뒤통이 끌린다  
눈 치뜨는 순간이 종일 이어지고  
미처 마무리 못하는 꿈은 뒤따라 온다  
내안에 불빛 힘껏 켜고 내리고 다람쥐 보듯  
다림질 한 날이나 주름간 날이나  
웃음 담아 심호흡으로 멈추었다가  
긴 숨을 토한다  
별 스위치를 켜 준비를 한다



| 김숙희 |

- 2013년 《문예사조》시, 2020년 《부산크리스천문학》수필 등단, 동화구연가
- 대전지방법원근무
- (사)부산문인협회, 새시인협회, 외성문학, 사하문협,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 시집 『오래된 사랑읽기』, 『푸른처방전』

## 풍선가슴

교복맵시를 내던 열다섯  
소박한 그림은 온통 오방색이다  
스물 네 시간에 담아 낸 빛  
수첩에 빼곡하던 일기들이  
떡국 그릇이 쌓일수록  
햇볕에 한 겹씩 벗고  
한 줄씩 지워진다  
어느 날 꿈 꾸듯 펼치는 그림들  
가슴 한 귀퉁이 떼어 내 단단히 여며  
떨리는 눈으로 곱게 날려 보낸다  
멀리 애드벌룬 두 개가 수평선 위에서  
내 풍선가슴을 향해 손짓한다

## 노을과 그림자 외 1편

김 은 희

저녁노을도 햇살임을 알게 되면서  
하루를 두 번 살게 되었다

그림자로 돌아가 그림자로 머무르는 법을 배웠다  
후회 가득했던 내 삶을 더 이상 탓하지 않기로 했다

어제처럼 아침이 찾아오면  
그림자를 거두고 지하철을 탄다

그림자를 잃은 사람들이 화장하고  
분주히 오가는 길 위에 나도 서게 될 것이다

구름이 머무르는 한 날  
꽃이 피고 바람이 부는 한 날



| 김은희 |

- (사)부산문학인협회 시 등단(2022), 수필 등단(2024)
- 부산 마음심리상담연구소 소장 역임
- 시집 『저녁노을이 백미러에 보내온 엽서』

늘 같아 보이지만  
단 하루도 같은 날이 아니다

오래 묵은 새로움으로 하루를 씻어내면  
그림자는 길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 은행나무 연대

밤새 서리 내리던 날 아침 가로수길  
은행나무들이 샛노랗게 물들어있다

이 도시 이 거리는 우리가 지켜냈다고  
빛나는 존재감을 드러낸다

황사가 휘몰아치는 그날에도  
폭염과 태풍에 몸서리치는 날들에도

서리에 발목이 시려오는 날에도  
은행나무는 조용히 거리를 지켜내고 있었다

반짝이는 무수한 깃발들 흔들며  
온 마음 다해 쏟아져 내리는 함성, 함성들.

## 카톡 카톡 외 1편

김 혜 영

세상 귀 열어 놓은  
스마트 폰

카톡 카톡  
실시간 퍼 나른다.

오타 치는 굵은 손가락  
흐릿한 시력

병든 답이 따로 없다.



| 김혜영 |

- 2011년 《문예시대》 시 등단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이사, 부산남구문인협회 부회장, 가람문학회 이사
- 남구문인협회 오륙도 문학본상 수상(2024)
- 시집 『춤추는 목각인형』 외 6

## 세레요한의 검은 손톱

음산한  
이스탄불의 톱까프 사원

세레요한의 검은 손톱 조각.  
언약의 증표

궁전 지붕 굴뚝에 각인된  
내 동공

헛되고 헛된 모든 영광  
한낱 꿈인 것.

## 피어오르다 외 1편

- 조각가 장상만 장로님 목조각 전시를 보고

류 정 희

운암산 자락에 엮드리어  
두드리는 망치 소리

바람이 놀다 가고  
햇빛도 쉬어 간다

밤이 긴 이곳에도  
망치 소리 그치지 않는다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않았으리  
그것은 영혼의 기도 같은 것

날마다 첫날이다  
피어오르는 새날이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 류정희 |

- 경남 거제 출생
- 1991년 《월간문학》 신인상
- 시선집 『당신은 지금도 오고 있다』 외 다수
- (현) 한국시인협회 회원,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상임고문
- 부산 사직동교회 출석

멈추지 않는 망치소리  
새파란 하늘에 닿아  
끝이 없다

목숨 걸고 살았던  
어머니 어머니  
뿌리 깊은 숨결  
나무 속살마다  
두드리다 잠이 들면

흘러간 세월도  
고맙다

## 친구를 보내고

너 떠나고  
나도 가야한다는 생각

잠시 머물다 가는 생  
주고받았던 애기  
털어낼 자리가 없다

내가 스무 살 되었을 때  
너도 스무 살

광활한 벌판 같은 세상  
함께 휘젓던  
노래할 이가 이제는 없다

빛소리에 섞여 흐느끼던  
고독의 문자  
뚝 끊어지고

그동안 뜨거웠던 햇빛과  
그동안 냉담했던 공기를  
동그란 무덤 밖으로  
전부 내어 주고

바깥에는 바람 불고  
반짝이는 별 몇 개 말고는  
마주할 따뜻한 입김이  
이제는 없다

## 꽃비 내리는 봄길 외 1편

박 인 자

꽃이 피고 꽃이 지고  
고운 꽃잎 떨어지는 길  
그 꽃잎 밟지 않으려 까치발로 걷는다

봄은 사랑을 타고 와서  
속절없이 휘날리고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이별하고 헤어지고

꽃잎 속의 하늘이  
슬픈 눈물 흘리고  
바람은 뒤돌아서서 부채질하며 달려간다

꽃비 내리는 봄 길을  
가슴에 구멍 난 풍선 하나  
바람 소리 흉내 내며  
달리고 또 달린다



| 박인자 |

- 2013년 《시와 수필》 수필 등단, 2023년 《문학도시》 시 등단.
- (사)부산문인협회, 신서정문학, 부산문학인협회 회원
- 시집 『내 마음의 창』

## 나보다 나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그분의 존재를 알아가는 것  
그것은 내게 말할 수 없는 큰 축복

내가 바다 끝에서 있을 때  
바람 부는 벌판에서 길을 잃고  
나 혼자라고 생각 했을 때  
그분은 내 곁에서 내 손잡고 있었다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드신 분  
내가 걸어온 모든 길은 은혜  
이제야 어렴풋이 알게 된 그 고난의 길도  
나를 위한 축복의 연속이었음을

나의 가는 모든 길  
오직 그 분께 맡겨 드리고  
이제는 내 발걸음 나비처럼 가벼워졌다  
나도 너도 우리 모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한 사람  
너에게도 그분의 사랑 임하여  
그분의 뜻 깨닫게 되기를

## 새 외 1편

배 혜 숙

새벽 미명  
후드득  
새떼가 날아오른다.

봄이 스며오는 계절  
햇살이 이른 아침에  
바람을 헤치며  
날아오르는 새들은  
환희로움을 춤추듯  
생명을 일깨운다

어디서 왔을까  
어디로 가는 걸까  
가없는 허공을 훨훨 나는  
저 당당함과  
저 자유로움은 무엇인가



| 배혜숙 |

- 부산 희망의 교회 목사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 시집 『울고 있음은』 『꽃처럼 불처럼』 『사랑하는 이여 그대 앞에』

새들이 사라져 버린 빈 하늘  
바라보는  
내 허한 동공에  
움츠린 비상의 염원이  
슬픔처럼 일어난다.

## 이제는

숨 가쁘게 걸어서  
어디쯤 왔을까

우리네 인생의 의미가  
우리네 삶의 모습이

별들이  
바람이  
너무도 멀리 있었지

친구여  
이제는  
이야기 나누어야 할 때

친구여  
이제는  
노래하여야 할 때

지친가슴 가득히  
사랑으로 채워야 할 때

그대 향한  
주님의 두 손을  
뜨겁게 잡아야 할 때.

## 달팽이 그녀 외 1편

손 정 란

세찬 비의 물결이나 바람이 지나가더라도  
몸을 말아 지하철 계단아래 잠을 청한다  
과거로 돌아간 시계는 차디찬 바닥이다

외국 남자 만나 고국을 떠났지  
그곳에서 난 배나무를 심었다  
폭력적인 발길질은 방해된다며  
딸아이를 뺏고, 날 밖으로 내몰았지

고국 땅 길 위의 여자가 되어  
퍼즐을 맞추는 내 이름은 노숙녀

동전 소리 울릴 때마다 복권이 꿈이지  
10년, 더 잠은 지하철 계단이 집이어서  
영어잡지를 읽거나  
뜨개질하며 기억을 삼킨다



### | 손정란 |

- 시인, 수필가
- 부산 크리스천문인협회 이사, 수영구 문인회 부회장, 그림나무 시문학 부회장,  
(사)부산문인협회 회원, 노마드 문학동인
- 시집 『어딘가에 물어 암호를 묻다』 『꿀값』

공중전화는 더 이상 그곳에 가닿을 수 없고  
시애틀 아이도 내게 와 닿을 수 없다  
등에 짊어진 집은  
지하철 역사와 함께 늙어가고

## 무엇이, 왜라는 이유 1

가정해 보지 않아도 ‘참’이 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다니엘이 사자 굴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히브리 사람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타는 풀무 불에 던져지지 않았다면

본 휘퍼가 형장의 이슬이 되지 않았다면  
주기철 목사와 손양원 목사가  
코람데오 정신을 따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결코 돕지 않으셨다  
내 버려두시고  
문제들이 모두 일어나게 하셨다  
그럼에도 그들은 좁은 길 택해  
그분께 더 가까이 갔다

무엇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는가  
마침내 모두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되었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죽음으로 내몰고도 잠잠하실 수 있었는가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사망에서 부활로 향한 인류 구원의 길이라네  
  
가정은 ‘참’으로 우리를 이끈다

## 손톱 재건축 외 1편

송 정 우

목공 일을 하다 손가락을 찢었다

작은 못 자국 -

벗겨진 살갗에 베어나는 선명한 피

소독약 하나로 하룻밤을 넘겼다

부어오른 손가락 끝에

검은 멍이 번져

기어이 병원에 가 깁스를 한다

불편한 시간의 파편들은

손톱을 잃게 하고

깊게 파여 울퉁불퉁한 층계를 이룬

기형의 건축물이 튼튼하게 세워진다

몸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시원의 설계도와

충격의 자리를 허물고

다시 지어가는 보이지 않는 손을.



| 송정우 |

- 2012년 《문학도시》 등단.
- 한국문인협회 회원, 국제PEN한국본부 재정위원, (사)부산문인협회 이사, 부산 크리스천문인협회 회장.
- 역서 『짧은 사랑 긴 여로』, 전기 『청보리 언덕에 핀 데이지』, 시집 『계절풍이 분다』외, 산문집 『길에 창을 내다』(2020 ARCO문학나눔도서 선정), 문학 산문집 『시간과 공간의 변주』(eBOOK), 국영문시화집 『꽃피운 한 걸음』 등.

## 마가 요한

밤빌리아에서 로마까지  
산맥은 등을 보이고 있었다  
타우루스의 빙벽 앞에서  
차마 몸을 돌렸다  
예루살렘, 어머니의 부엌  
밀가루 반죽이 부푸는 동안  
소아시아에서 돌아온 소식들이  
식탁 위 먼지가 되어 쌓여갔다  
내가 버린 길 위에서  
누군가 이삭을 줍고 있어  
구브로 바람을 맞는 삼촌의 배  
나는 노를 젓기 시작했다  
여러 갈래 길에서도 헤매지 않아  
늙은 어부의 아람어를 받아 적는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도 세 번—  
펜은 멈추지 않았다  
부인한 자의 목소리를  
도망친 자의 손이 따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쇠사슬 매인 손 편지가 왔다

그를 데리고 오라, 유익한 자니라  
한때 나를 지운 사람의 문장에서  
잊혀지지 않는 이름으로 남았다

## 나사렛 예수 1 외 1편

신 선

폴잎 위에서 이슬이 뒹굴고 있다  
들판은 쓰러지는 바람을 떠올린다

태초의 운행 속에서  
그대 가슴 속에 감추어진 슬픔이 일렁거리고  
담아낼 수 없는 바다는  
부서지는 파도 끝에서 정적을 길어 올린다

별판에 드리누운 하늘 끝자락이 흐느끼자  
그대, 거리를 떠도는 전능한 구름이다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풍량은 저만치 어깨가 기울고  
그대는 뜨락에 피다 만 베꼬니아의 붉은 울음이다

비싼 향유를 허비한  
베다니의 머리카락은 끝없이 펄럭인다



| 신 선 |

- 1993년 《시와의식》 등단
- 〈부산시협본상〉 수상 외 다수
- 시집 『봄의 현상학』 외 다수

햇살이 말없이 창문을 넘나들 때  
나사렛의 연민은 강물의 몸짓을 부풀린다

태양이 소멸하는 도로 위에서 십자가는 빛나고  
제어할 수 없는 한 줄기 빛은 끈질긴 길이다

갈릴리 바다는 혼자 출렁거리고  
나는 흐릿한 그림자를 밟고 따라간다

## 자폐아

걸어 잠근 문이 덜컥거린다  
불안한 하루가 시동을 걸고 날개를 펴득인다  
고유어를 습득하지 못한 나는  
해독할 수 없는 들판에 풍경을 걸어두고  
소통이 단절된 유리창에서 눈빛을 풀어낸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나의 몸짓,  
고성을 지르며 어둠을 찢는다

너덜거리는 소음이 트랙을 통과하는 사이  
닫힌 문의 틈새로 자벌레들이 기어다니고  
고래의 뱃속으로 들어간 바다가 입을 벌린다

문들이 귀를 열고 뒤돌아보자  
나는 부어오른 손등을 핥는다

가파른 언덕이 뛰어내릴 즈  
젖은 아랫도리가 줄기를 감아 올린다  
눈부신 지상은 나를 뒤흔든다

찬란한 고통을 껴안은  
나의 영토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나는 시린 상처를 훈장처럼 내걸고  
끝없는 길을 내다본다

에드바르 뭉크가 귀를 닫고 소리를 지른다

## 꽃벌 외 1편

신 현 숙

꽃밭으로 날 데려가 주오  
내 날개를 펴리이다

그대를 위해  
꽃송이 깊숙이 입맞춤 하리이다

육모 곳간 지어  
달콤한 내 사랑  
가득가득 담아 두리이다

그대 날 찾는 날  
활짝 문 열어  
줄줄이 쏟아부어 드리리이다



| 신현숙 |

- 2021년 《창조문예》 시 등단
- 창조문인 협회, 부산시인 협회, 부산크리스찬문인 협회 회원
- 시집 『상처는 향기가 난다』 『꽃잎에 쓰는 편지』

당신 위해  
내 날개를 펴리이다

은장도 품에 안고  
나 살고 당신 사는 길 택하리이다

## 할미꽃 사랑

너의 작은 움직임 움직임은  
마음에 던지는 물수제비  
겹겹이 번져가는 입가에 파문

느린 저녁 하품하는 삶의 언덕  
뒷덜미 웃음 낄낄대는  
하얀 눈 내린 지붕 아래  
너 엮은 곱은 허리 거울을 본다

보고 또 보고 눈 시려도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떼지 못하네

하루 힘 다 쏟아  
파스로 옷 입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눈 감으면  
아른거리는 얼굴  
물수제비 하나  
가슴에 풍당

## 패랭이꽃 외 1편

양 윤 형

한겨울  
어떻게 살았냐며  
파르르 떨고 있는 한 생명을  
노신사가  
내게 내려놓고 떠난다

그도 외로운 사람  
쓰라린 세월을 알기에  
별판에서 떨고 있는 풀 한 포기  
마음 아팠을까

그렇게 침묵은 흐르다가  
유월의 햇살아래서  
자신을 알리는 몸짓



| 양윤형 |

- 2001년 월간 《한국시》 등단
- 부산여류시인협회 회장,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부회장, 영호남 문인협회 부회장
- 영호남문인협회 본상,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문학상, 문화예술부문 부산 시장상
- 시집 『소금꽃 향기』 외 5권

그동안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을까  
입술을 동그랗게 하고 웃고 있다  
햇볕 속으로 자신을 펴 올리고 있다

## 행운의 열쇠

비린내 묻어나는 징소리 북소리

생애에 내게 허락된 공간은  
그저 눕거나 일어설 수밖에 없는 곳  
푸른 풀밭 위로 마음껏 달려보는 것은  
늘 꿈속에서나 가능 했다

이제 내 머리는 넘실대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뱃전에 올라 고사상에 올려질 것이다  
멀고 먼 풍랑길 태풍 세찬 파도 잡아주오  
오대양 육대주의 지폐를 코에 박고 입에 물려주니  
더 품위 있게 웃어야 한다  
웃는 내 모습이 존경스러운가  
저 높은 눈을 내리깔고 무릎 꿇고  
무사 항해 만선을 기원한다며  
번갈아 조아리는 머리를 내려다본다

한때는 버려진 것들이나  
저들이 먹다 남긴 찌꺼기로 키워온

내 머릿속은 냄새나는 찌꺼기뿐  
저들이 머리를 조아릴 때마다 멀미가 난다  
잠시 기름졌던 웃음을 바다 심연 속으로 묻으며  
행운의 키를 쫓는다

## 이별 그 이후 외 1편

유 문 경

이젠 깊어진 겨울  
약속 없이 찾아온 이별

봄을 기다려야 하나  
아니, 봄이 오기나 할지

이별이 가져다준 선물  
겨울이 추운 건 당연하지만  
몸 마저 아픈 건 아니, 마음이 아픈 건  
차마 못 견딜 일이야

개구리 땅 속에 들어가듯  
어느 구석진 곳에 틀어 박혀야 하나  
숨만 사근사근 쉬면서



| 유문경 |

- 1954년 대구 출생
- 2025년 《부산크리스천문학》 신인상(시)
- 미국 커넬 대학교 기독교 상담학 박사, 국제 커넬 제자 훈련원 교수, (사)한국 장애인 자립 연계 협회 이사

지구는 점점 따뜻해진다는데  
나는 아직 뽁뽁 얼어붙은 겨울

이별의 추억이 자주만  
눈바람을 몰고 와  
내 정수리에 들어부어

그래도 세상은 아무 일 없이  
잘도 돌아가고 있어  
누군가 내 손을 자꾸 잡아끌면서  
삶은 아모르파티(Amor fati)라고 하면서  
위로 하지만  
나는 아직 추운 겨울  
겨울이네

## 새봄을 맞아

그 분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묵은 계절의 그림자를 멀리하고  
새 봄의 첫 빛이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나무에 물오르는 소리가  
경쾌하게 심장을 울립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따뜻한 햇살을 안고  
걸어가는 내 입가에  
웃음이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상쾌한 초록 잎 냄새가  
가슴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분께서 저만치서  
솔깃해 주신 덕분입니다.

## 장미의 노래 외 1편

유 병 기

푸른빛으로 충만한 계절  
담장 밑에서 군가 부르듯  
일사 분란하게 소리 맞춰  
핏빛 멍울진 장미꽃들의  
오케스트라를 듣노라면  
선명하게 떠오른 어머니의 얼굴  
오월이 소진될 무렵  
만개한 자이꽃들은  
이별 없는 담장 밑에서 작별의 노래를 한다  
변심한 애인이 잊어질 무렵  
청순한 모습으로  
다시 활짝 웃으며  
군사처럼 쳐 들어와  
나의 온 감성을 점유할  
장미의 계절을 그리워 한다



| 유병기 |

-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2009년 부산시인협회 우수상, 2021년 부산문학상 대상 수상
- 시집 『새벽에 흐르는 강』외 10권
- 수필집 『설거지 하는 남자』외 7권

## 지구의 종말

루시퍼의 타락으로  
인류의 평화를 깊은 바다 속  
물고기들에게 던져버린  
로미오와 줄리엣의 슬픈 사랑의 연속이다  
죽음의 역사는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욕망의  
바다에서 자라왔다  
인간의 지나친 욕심으로 묵시록은 종말을 고한다  
지구는 허파가 터지고  
달은 눈의 광채가 사라지며  
해는 충기를 잃고 바닷속에 처참하게 가라앉는다  
미움과 전쟁으로 점철된 가인의 후예들  
70년 전 히로시마 앞바다에 수장 되었다  
평화 어디에 있나  
대접과 사랑을 실천한 조상의 손바닥과  
해맑은 웃음에 숨겨져 있다  
사랑과 평화를 잃어버린 랭보는  
전쟁의 추억을 기억하는 세느강에서  
오페리아의 슬픈 노래를 부르며  
아픔을 위로한다

## 출판기념회 외 1편

이 가 언

오랜만에 네 식구가 둘러앉았다  
멀리 사는 큰 아들도  
얼굴 보기 힘든 둘째아들도  
잡채며 불고기며 한상 차려놓고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 하는데

눈치 없이 둘째 아들이  
“오늘, 무슨 날이에요?” 한다

“그래, 오늘  
금쪽같은 내 새끼  
낳고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밥 한 끼 같이 먹는  
출산기념일이다  
출산기념일!”

내 헛말에  
헛웃음 가득한 저녁식사



| 이가언 |

- 2024년 《문학도시》 시 등단
- 2025년 서울詩 지하철 공모전 선정
- 시집 『이제 바다로 갑니다』
-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 황매화

뒷집 황매화  
우리집 담을 넘었네

담이라 봐야  
고작, 싸리 울타리

허물어라  
허물어  
담의 경계여

노란 꽃 한아름  
우리집에 심겼네

송이 송이 노란 송이  
우리집 뒤란에 피었네

허물어라  
꽃의 경계여

이집 저집 온 동네  
노란꽃 천지네

## 민들레 홀씨 되어 외 1편

이 경 옥

하나의 핏줄이 흐르듯이  
뿌리 내리려는 몸 짓  
어디에 심겨져야 할 지  
알지 못하고 알바 아니나  
가만히 내려앉아  
고운 자태 뽐내려고  
작은 몸 하나 내밀어 보건만  
지나 온 흔적 지우지 못해  
찾아 헤매는 발걸음  
이리저리 둘러보아  
스쳐 지나 간 자리 찾지 못하더라도  
나만의 둥지 안에  
살포시 꽃 피우리



| 이경옥 |

- 2008년 월간 《한맥문학》 시 등단
- 서정문인협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부산 알바트로스 시낭송회 회원
- 부산사하문인협회 편집장
- 2009년 서정문인협회 대상 수상

## 해란강 연가

산등성이 올라 내려다보니  
굽이굽이 흐르는 해란 강줄기  
‘푸른 술은 흘러 흘러갔어도’  
노래하며 음미하는  
옛 선조 삶의 흐름  
떠나면 오지 못 할 고운 흔적에  
가만히 바라보는 평온의 들녘  
생명수 길이길이 천 년으로 흘러  
다음 세대의 눈빛에 초롱초롱  
함께 나누는 언어  
지나 온 연민의 정 나눌까

## 너에게 외 1편

이 귀 선

생선을  
끼워 줄에 너니  
꼬리에서 눈물을 흘린다

위에서 흘린 눈물이  
예리하게 갈라진 배 밑으로  
타고 흘러 내린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마음이 무너질 때면  
나도 늘 배가 아팠다

아들 집에 데리고 갈께  
거기서 너의 사명을 다 하는거야  
기차를 타고 같이 가자꾸나



| 이귀선 |

- 《부산문학》시 등단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 시집 『나를 연주하는 이』

사랑하는 이의 한끼 식사에 희생된다면  
너에게 그 이상의 행복이 있을까  
나도 언젠가 그 분이 주신 뜻을 따르다가  
용감하게 사라질 그날이 올거니 말이야

## 시가 나를 부른다

시가 나를 부른다  
내가 시를 부른다  
첫 글자가 뒤에 글자를 당긴다

온통 거리에 시가 깔렸다  
먼 산도 나무도 사람들도  
시의 손이 되어 이끌어주네

시가 기도가 되고  
시가 노래가 되고  
시가 그림이 된다

시가 나를 부른다  
나도 시에게 다가가 안기니  
영혼의 합주가 되네

## 좋은 사람 외 1편

이 선 화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좋은 일만 가득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 하늘 문이 열려  
차 한 잔 혼자 먹기 아까워  
봉지에 넣어 너 한잔 네 한잔

아름다운 꽃을  
혼자보기 아까워 가지를 잘라  
너도 주고 나도 주고 피어난 꽃을 보니  
주님사랑 꼭 닮아 저 하늘가에 심어 둡니다



| 이선화 |

- 경남 사천 삼천포 출생, 시낭송가
- 가람문학회, 부산문인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영도문인회 회원
- 한국가람문학상 수상
- 시집 『인생은 바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좋은 사람 마음에  
예수님 사랑 꽃이 되어  
그 향기 멀리 멀리 날아갑니다

## 유서

세상 살아가면서  
삶을 추구하는 욕망과  
끝없는 꿈을 심고  
달리고 달리는 인생길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지만  
장애물이 너무 많아  
높은 산을 넘지 못해  
좌절하며 술잔을 기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빛과 말씀은  
진실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주신다

이 말씀을 받은 후  
삶은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니  
30년 눈물기도가 열매를 맺어  
이 영혼 구원시켜 천국 데리고 간다  
유서 한 장 쓰지 못해도 삶이 유서인 것이다

## 신의 악단 외 1편

이 승 훈

얼어붙은 땅  
차디찬 대지 위로 흐르는 선율

총칼의 감시 속에 숨죽인 호흡이  
어느새 하나의 화음으로 피어난다

가짜로 시작된 가짜의 찬송이  
메마른 가슴 적시는 진심이 될 때

보이지 않는 신은 그들의 손을 잡는다

죽음의 그림자가 앞길을 막아도  
악기 앞에 매달린 희망은 꺾이지 않으니  
총성보다 강한 노래가 광야를 울린다



| 이승훈 |

- 경남 함안 출생
- 2020년 《부산크리스천문학》 신인상(시)
- 前 법무부 교정공무원
- 부산가야교회 안수집사

## 몰래 먹은 보리밥

정짓간 살강 위 삶아놓은 보리밥  
배가 고파 한 술 크게 물었는데  
산만한 발끝에 치인 참기름 병  
바닥에 처박혀 산산조각 났다네

고소한 향기 사방에 진동하고  
매끄러운 기름기가 흠을 적시니  
들킬까 겁나는 마음은 허공을 맴도는데  
아까운 향기만 코끝에 머무네

입안에 아직 보리알 굴러가는데  
엄마 오시면 야단맞을 생각에  
삼십육계 줄행랑을 쳤다네

오늘 저녁은 보리밥 냄새보다 짙은  
참기름 냄새로 집안이 가득하겠네

## 마구간을 밝힌 그 별빛 외 1편

이 창 희

한밤 중에 방안을 서성거리다  
문득 거울을 마주보게 되었다

누구나!  
너는?

예. 저는

.....

말문 트는 아리의 하부지입니다  
일곱살 이삭군에게는 외할부지  
여자 정영숙의 그냥 남자  
찔레순같은 슬이에게 친청 아빠  
국화빵 군이 아버지

진이 다 빠져서 조기 은퇴한 원로목사  
그저, 평평범범한 신도



| 이창희 |

- 월간문학, 부산 mbc 신인문예상(1985)
- 부산크리스천 문학상
- 시집 『고맙다』 『어제 나는 죽었다』 외

어제 기억 새김질하며  
썩어가는 호박 속 씨앗 한알

이듬해 봄  
어떤 손길이 둔덕에 다시  
심어주지 않으면  
그냥, 바람결에 비쩍 말라서  
꺼져버릴 촛불 그림자

넋째서  
다시 오시어서  
적셔주지 않는다면  
꼬물거리다 객사할 지령이

마굿간을 밝힌  
님의 그 별빛  
받아 마셔야 비로소  
불을 달고 날아오를  
만뎃불이

## 닭은 꿀

근이는 막내아들  
사람들은 아빠의 국화빵이라고,  
운동회 때 녀석은  
여섯 명 중에 달리기  
5등을 했다

일곱 명 중에 6등을 한  
아범을 닮아서 그렇다고  
어머니는 싱글거리시고,  
나도 병글거리다  
에비 닭은 놈이 마냥 좋았다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그림 몇 장  
나는 내 아버지를 얼마나 닮았는지  
갈릴리 해변 돌레길을 걷고 걸어서  
꿀찌 인생을 찾아다니시던,

내 주님 그 여윈 뒷발꿈치를  
나는 닮았는지

# 대한민국호

임 병 주

유월이 돌아오면  
파아란 하늘에 아지랑이처럼  
순국선열이 아련히 떠오른다

민족 절반의 아둔한 선택에  
우리는 남으로 밀리는 위기에 내몰렸고  
세계 십육 개국이 남을 위해 피 흘렸다

삼천리 금수강산을 피로 물들이고도  
유위부족하여 걸핏하면 무장 공비 출몰  
공산당이 싫다는 어린 이승복을  
입을 찢어 죽이는 잔인무도한 자들

적들의 선전 선동에 속고 또 속아  
세월호 물에 잠기듯  
큰 세월호 핏빛 바다에 잠기고 있다



| 임병주 |

- 경북 달성 출생
- 대구 계명대학교 철학과 졸업,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우리글 문학》 신인상 (시)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 현) 해운대 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적을 위해 살아온 인생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 오리라

이제라도 마음을 가다듬고  
지존자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가상히 보시고 대한민국호 건져주시리라

## 된 장 송<sup>頌</sup> 외 1편

정 신 자

속이 불편할 때  
꼭 찾는다  
맑은 흰죽에  
된장국

고국 떠나  
먼 여행길에서 돌아왔을 때  
나의 입은  
너를 가장 반긴다

나에겐 네가  
우리나라 으뜸 음식  
김치보다 비빔밥 보다



| 정신자 |

- 2007년 《새시대문학》 등단
- (사)부산문인협회, 부산시인협회, 남구문인협회, 국제PEN한국본부, (사)부산여성문학회, 부산크리스천문학회, 가연문학회 회원.
- 한국꽃 문학상, 오륙도 문학상, 부산여성문학상 수상.
- 시집 『갯지스에선 아무도 울어선 안 된다』 『그냥 가자』 『세월이 물이다』 『두고 온 꽃』

너를 먹으면  
어릴 적 배탈 나면 콧속 배를  
눌러 주시던 할머니의 거칠지만  
순한 손맛이 생각나

삶은 콩이 되었다가  
누룩으로 삭혀온 인고의 날을 지나  
내어 놓은 어머니의 묵은 정

아픔까지 발효되어 구수하고  
푸근한 너의 맛이 되었네

## 대만 매화 차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드신 바다 건너 대만의 자연 속에서  
만났습니다  
들었습니다

일찍 추위 견디고  
일찍 입을 연 매화나무들을

그 꽃 그늘 아래  
펼쳐진 찻자리

차향보다 더 진한  
매화향기가 들려주는  
봄의 애길 들었습니다

## 기장 해변 외 1편

글향 정 연 원

머나먼 하늘로 소풍 떠나신 어머니  
사무치게 그리울 때  
홀로 걷는 기장해변

힘한 세상 달려가다  
너무 지쳐 힘들 때  
푸른 기장바다를  
그리운 얼굴 보듯 바라본다

갑갑한 세상 숲 헤쳐가다 인간에 지쳐 힘들 때  
저 눈부시게 넓은 바다  
통째 마셔본다

어느새  
새하얀 파도 타고 곁에 다가오신 어머니



| 정연원 |

- 2016년 《문학도시》 시 등단
-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상담 석사
- (사)부산문인협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 (사)자살예방전국학교연합회 부산시 부회장(생명존중 전문강사)

인생 답안지인양  
한마디 푼 던지신다  
“일체유심조”

## 일광해변

미역향 진동하는  
일광 이동등대 향해 걸어가다 본 풍경화

바닷물이 빠져나간  
검은 갯바위에  
바둑돌처럼 앉아 있는  
하얀 갈매기들  
넓은 해변 자갈밭엔  
어느 엄마 홀로 앉아  
갯내음 믹스된 커피와 함께 넓은 바다를 마시고 있다

영혼 없는 말 난무하는 시끄러운 카페보다  
갈매기 울음이 더 정겨운 일광해변 카페

숨가쁘게 달려온 세월반추하며  
분주함에 찌든 삶을  
조용히 세탁하시나

새하얀파도 소리만  
요란하다  
낡은 세탁기 돌리듯

## 서투른 기록·93 외 1편

조 의 홍

꽃이 피면 떠날 수 있겠지. 그대 집 처마 아래서 한 구절 경전을 읽고 그리고 꽃이 피는 만발의 세상,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꽃피는 세상은 놀라워라 어린 새들이 하늘을 날아 구름 속으로 가는 일. 나는 숙연해진 경전 한 구절을 더 읽네. 성급하게 핀 꽃들이 조금은 어색해도 세상에는 그렇게 꽃들이 핀다네.



| 조의홍 |

- 《심상(心象)》 등단
- 부산시인협회장 역임
- 한국시인협회 중앙위원

##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다.

(요한12:44~46)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여  
빛 속에 있는 주의 나라  
빛들이 넘치는 말씀의 나라  
우리가 간절합니다  
어둠이 없는 주의 나라에  
우리가 빛의 열매로 달리게 하옵소서.

## 흥정하는 봄 외 1편

최귀례

빨간 볼캡을 쓴  
늙수그레한 남자가 쪽파를 다듬고 있다  
고개를 숙인 남자는  
하늘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  
손만 놀리고 있다

산의 것과  
들의 것  
좌판에는 초록 물결이다

이것 주세요  
참두릅 엄나무순 청경채

상자에 든 것과  
비닐봉지 안의 것을 집어 든 나는  
넋러진 들을 흠칫 바라봤다



| 최귀례 |

- 2003년 《문예한국》 등단, 2021년 《창조문예》 추천 등단
- (사)부산시협 부이사장, 한국기독교문협 이사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고문, 해운대문협 고문
- 시집 『풀 세잔느의 여행』 외 4권

마주친 황령산  
파란 정수리가 안부를 묻는다

남루한 옷 벗기는데 몰두하던  
어진 눈빛이  
내가 끌어내린 구름 속에  
향기 나는 봄 채우고 있다

## 잘 지냈어

지하철역을 향해 걷는다  
길가의  
자잘한 풀꽃들이 밤비에 젖어 반짝거린다

얼마 전  
슬픔을 맞은 옛된 미망인의 눈빛 같다

붉은 눈망울에 새겨진 또 하나의  
분신은 먹구름이다

이어지거나  
끊어진 사슬 같은 단편들이  
종잡을 수 없는 허구의 탈을 벗는다

애써 서사를 쓰는 사람들의 말들이  
등을 훑고 간다

꽃진 나뭇가지마다 새잎 내느라 분주한  
삶의 터 위에서

마음 설레게 했던 희고 노란 꽃들도  
저마다 가는 길  
마냥 서러워 널브러져 있다

훗날  
스쳐 지나가듯 건넌  
한마디가 가만히 남는다  
잘 지냈어

# 시조

모정희 | 다시 주는 십자가 외 1편

박경영 | 민들레 외 1편

변도우 | 동행 외 1편

윤현수 | 내려놓음 외 1편

임병주 | 악명 높은 자

허성욱 | 은퇴자 월례회 외 1편

## 다시 쥐는 십자가 외 1편

모 정 희

십자가 장식되어 거리마다 빛나건만  
외치는 입술마다 세상 말만 가득하고  
예수님 계시지 않는 거룩 없는 세상아

회개 없는 눈물로 죄 덮는 말만 무성  
은혜라 자위하며 속여 온 내 심령이  
주 잃은 빈껍데기로 이제서야 드러나

무너진 골방에서 다시 무릎 꿇어 앉아  
말씀을 등대 삼아 좁은 길 쫓아가면  
움켜쥔 두 손을 펴고 다시 쥐는 십자가



| 모정희 |

- 2011년 《시조시학》 신인상 시조 등단
- (사)부산문인협회 회원,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재무
- 유열인교회 전도사 · 부산구치소 교정위원(교육)
- 저서 『노을강 붉은 매화향』 외 2권

## 어디로 갈거나

금빛으로 넘실대는 자본의 큰 물결에  
영혼마저 값 매기며 길 잃은 세상 속에  
주 음성 멀어지는데, 어디로 가야하나

손에 쥔 것 많을수록 마음은 비어가고  
보이는 것 쫓을수록 안개만 자욱하니  
십자가 좁고 험한 길, 어디로 가야하나

그럼에도 주 따르리 내딛는 눈물의 발  
흔들려도 붙드시는 주님 손 의지하니  
끝까지 멈추지 않는, 살아있는 생명길

## 민들레 외 1편

박 경 영

도시철도 출입구 옆  
한 줌 흙 가장자리

종종걸음 멈춰 세운  
한 떨기 노오란 꽃

올봄도  
하나님 사랑  
버린 땅도 꽃 피네



| 박경영 |

- 1998년《문학21》시, 2001년 공무원문학가협회 동시 신인문학상.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사)부산문인협회, 창원문인협회 회원.
- 보국훈장 광복장 서훈(2009), 대한민국예총회장상수상, 부산광역시 표창수상(2025).
- 시집 『사람과 세상과 하늘에』외 산문집 수기 등 다수

## 우리는 하나

홍부의 꿈 영그는 박  
휘영청 달로 뜨면  
그리움 남남북녀  
고향 향한 두 손 모음  
바람아 하늘이시여  
저 철조망 걷어주오

천리 길 만남 길에  
들국화도 반겨 맞고  
80년 이산가족  
핏물 똑! 똑! 사연 사연  
남북아  
우리도 이젠  
하나 되어 하하하

## 동행 외 1편

변도우

조수석 거울을 보며 열심히 내 아내  
불현 듯 아내의 껏밥을 운전 중 만져 본다  
찌푸린 하늘에 번지는 동행의 환한 미소



| 변도우 |

- 시인, 시조 시인
- 정재(井濤) 변도우
- 시집 『나의 시 나의 삶』

## 어머니 추억 II

다녀왔습니다 오야 어여 온나  
누고 접니다 에미는 네 어머니  
쫄매만 더 땡겨 오른 누가 머라 카나

어머니는 언제나 집에만 계셨다  
어린아이 되시더니 아기로 가신 듯  
걷기를 힘들어하심에도 언제나 반기시는

하루 종일 말동무 없이 지내셨을 어머니  
식사는 언제나 당신 혼자 드셨다  
폭 꺼진 언제나 그 자린 아련한 내 망모 좌

\*43년간 아내와 한 집에 계셨던 어머니가 97세로 소천하신 지 벌써 3년이 되었다.

## 내려놓음 외 1편

多才 윤 현 수

욕심은 어디까지  
채워도 한限이없네  
등의 짐 허리 휘고  
큰 재물 근심 걱정  
언젠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설 텐데

이웃과 베탌다  
값없는 나눔 열매  
인생에 복된 삶은  
최선을 다함이라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됨이라 언제나



| 윤현수 |

- 아오 다재多才
- 광안생명의교회 은퇴 장로, 현재 (주)영남교통 전무이사
- 2018년 11월 계간 《청옥문학》 시, 시조 등단
- 청옥문학협회 시조분과 회장, 석교시조문학 이사,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이사
- 수상 : 2021년 석교시조 우수상 수상
- 저서 : 시조집 『마음에 담은 세월』, 석교시조 22인 선집 외 다수

## 하나님의 큰 사랑

삼위의 하나님이 온 만물 창조 시에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거룩한 찬양받으려 만복준비 좋았네

세상 죄 지시려고 존귀함 내려놓고  
우리를 섬기시려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 대속물 고통고난 큰사랑

십자가 죽으심에 우리도 함께함이  
나의 삶 내 것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  
저 천국 하나님의 집 부활의 주 사셨네

# 악명 높은 자

임 병 주

플라톤 이상 국가  
이상한 이상 국가

공산사회 사상이  
발화한 시발 국가

궁극엔 개방사회와  
그 적들로 분화한다

소련이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으로

유물론 국가들의  
수장으로 등극하나



| 임병주 |

- 경북 달성 출생
- 대구 계명대학교 철학과 졸업,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우리글 문학》 신인상 수상 등단 (시)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 현) 해운대 새생명교회 담임목사

하늘의 저주를 받아  
91년에 몰락한다

역사의 실험에서  
유물론 붕괴되나

미련한 자들은  
시방도 신봉한다

악인은 그 사상에서  
절대자를 부정한다\*

\* 시 10:4, 14:1, 53:1

## 은퇴자 월례회 외 1편

허 성 욱

낮익은 음성들이 여기저기 손을 잡고  
방 안 가득 풀어 놓는 안부들이 서로 얹혀  
빙그레 미소 지으며 언덕을 넘고 있다.

밀양식 억양 한편 삼문동을 지나가고  
제주살이 경험들이 들레길을 따라갈 때  
그 해변 선인장 자생지 눈에 가물거린다.



| 허성욱 |

- 1984년 《시조문학》 천료
- 성지고교 교사 정년(녹조근정훈장), 크리스천문학상(2021), 거제교회 기관목사,
- 시조집 『월포리 사설』 외 3권
- 산문집 『하나님의 중력장』 외 다수
- 현) 허성욱심리상담클리닉 원장

## 고향 뒷산에 올라

어릴 적 기억 몇 편  
남아 있는 고향 뒷산

길도 없는 길을 찾아  
할아버지의 산에 올라

형님과  
낫질을 하며  
옛이야기 나눈다.

저 건너편 산 중턱쯤  
묻혀 있을 내력들이

쌓인 낙엽 아래에서  
슬금슬금 풀려나와

또 한 번 가을을 즐기며  
잔기침하고 있다.

《부산 크리스천문학》



# 부산 크리스천문인협회 회 원 모 집

## 크리스천 문인은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로 오세요

부산 크리스천문인협회는 예수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문학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회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학과 지성을 추구합니다. 우리회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항상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진실한 문학정신을 추구합니다.

주님의 말씀마다 문학이며 신앙 세계는 곧 문학의 원천입니다.

오늘도 뜨겁게 타오르는 열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문학의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작가님을 기다립니다. 기성 문인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작가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 **연락 주실 곳** \_ 부산크리스천문학 편집실

■ **이 메 일** \_ 2050jsp@hanmail.net

■ **연 락 처** \_ 주간 : 010-2561-1221 / 편집장 : 010-9875-0087

### ■ 신인상 원고 모집

부산 크리스천문인협회에서 신인을 선발하는 작품을 공모합니다.

당선된 분은 작가로 활동할 수 있으며 우리 회 회원으로 영입합니다.

응모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장르를 응모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시 · 시조 - 각 5편씩           | • 동화 - 1편(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
| • 동시 - 5편                  | • 소설 - 1편(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
| • 수필 - 2편(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 • 평론 - 1편(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

### ■ 원고 보낼 곳 \_ 부산크리스천문학 편집실

• **주 간 이메일** \_ 2050jsp@hanmail.net / **연락처** \_ 010-2561-1221

• **편집장 이메일** \_ nssky99@naver.com / **연락처** \_ 010-9875-0087

# 아동문학

## 〈동시〉

송순임 | 다섯 손가락 외 1편

이들자 | 꽃밥 외 1편

정명진 | 싹! 비밀이야 외 1편

## 〈동화〉

남 순 | 청학동 땡땡

안미영 | 꽃이 피기는 피겠제?

오윤형 | 숯탕이 할아버지

이효정 | 젓가락 행진

임지연 | 요미와 나미

정현옥 | 거름더미에서 핀 새싹

## 다섯 손가락 외 1편

송 순 임

할머니, 나 이제  
햇살 반에 올라가요.  
예나가 고 조그만 주먹을  
꼭 쥐었다 짹 편다.

정말?  
어느 새?

예나의 다섯 손가락 사이로  
햇살이 눈부시다

아~ 그렇구나!



| 송순임 |

- 1997년 《시와 시론》 박화목 추천 동시 등단
- 제2회 《문학도시》 작가상(2011), 제19회 오륙도 문학대상(2025)
- 저서 『봄비와 은행나무』 『등소화가 피는 골목』 『터놓고 하는 세상 이야기』

## 고양이가 들어 있는 예쁜 도자기

도자기 공방에 갔더니  
예쁜 컵 속에 고양이가  
귀엽게 앉아 있었어.

귀여워 귀여워  
여기에 차 한 잔 주세요.

앗, 잠깐만!

만약에 물을 붓는다면  
얼마나 뜨거울까?

아니야~ 아니야~  
물 붓지 말고  
사탕가득 넣어줘야지

공방에서 고양이 한 마리  
컵에 담아왔어.

## 꽃밥 외 1편

이 둘 자

노오란  
분홍  
보라  
자주  
소국으로

밥을 지어  
단풍나무 그늘에서  
친구들과  
남남남

나비아  
별아



### | 이 둘 자 |

---

- 2016년 《문학도시》 등단
- 제32회 부산문학상 우수상 수상
- 2019년 『민들레의 재능기부』, 2024년 『꽃밥』(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창작지원금), 2025년 『할아버지의 손님』(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지원금)
- 2025년 부산광역시교육청 행복한 글쓰기, 북부교육지원청 사람책도서관 강사

너희들도  
이리와

같이 먹자

## 흑집

분꽃 씨를  
뿌리고  
호미로  
다독다독

햇빛  
바람  
봄비가 놀리 오더니

새싹의  
손을 잡고  
나왔다

봄은  
손도 따뜻하다

## 췌! 비밀이야 외 1편

사라 정 명 진

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대!

췌!

그게 우리 때문이래.

췌!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한테 살짝 와 계신대.

췌!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가까운 것 같아



| 정명진 |

- 2018년 《문학도시》 시 등단
- (사)부산문인협회, 시사위예술인협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부산시낭송협회 회원

췌!  
그래서 나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불러.

췌!  
너무 신기하지 우리 예수님.  
그런데,  
너도 느껴본 적 있니?

## 참 이상도 하지!

참 이상하지!  
왜 산꼭대기에  
하늘에 닿을 듯  
커다란 배를 지었을까?

참 이상하지!  
왜 토끼는 토끼끼리  
코끼리는 코끼리끼리  
꼬리를 흔들며  
두 마리씩 걸어 들어갔을까?

참 이상하지!  
망치 소리 푹, 푹,  
바람 소리 쏘아  
노아 할아버지는  
왜 혼자였을까?

빗소리보다 먼저  
들려온 한 목소리

노아 할아버지는  
아무도 보지 않아도  
끝까지 만들었나 봐.

나도  
조용히 귀 기울이면  
하나님 말씀이  
들릴까?

# 청학동 땡뻘

남 순

지리산 청학동에 땡뻘이 살았어요. 땡뻘은 알에서부터 청학동 호랑이 훈장선생님의 교육을 들으며 태어났어요. 그래서인지 바른생활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땡뻘은 청학동 호랑이 훈장선생님보다 더 무서웠어요.

드디어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여름 방학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리산 청학동 서당으로 몰려들었어요.

“와~, 신나다!”

바다 초등학교 아이들도 예절교육을 받으려고 지리산 청학동



| 남순 |

- 2004년 《아동문예》 문학상
- 제6회 남재문학 작가상, 제21회 부산문학상 우수상 수상
- 동화집 『무지개나라 화가아저씨』 외 3권
- 그림동화 『빨강 연필』(공저) 외 4권
- 동요작사 「윙크 윙크」 외 다수

서당으로 왔어요.

‘음!’

서당 선반 위에서 침을 뱉족 세우고 아이들의 행동을 지켜보는  
녀석이 있었어요.

땡땡였어요. 땡땡이 침을 세우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요.

“예, 각자 방에 침을 풀어 놓고, 마당으로 나오세요.”

호랑이 훈장선생님은 별명과 다르게 아이들에게 자상했어요.

바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서당 근처에 피어 있는 들꽃들의 이름을  
잘 몰랐어요. 매일 푸른 바다와 갈매기를 보고 자라서 그래요.

“이 꽃 이름이 뭐지요?”

“이건, 시계꽃이다.”

“그럼, 시계꽃이 시간을 알려주나요?”

“하하하. 녀석!”

“선생님, 이건 무슨 꽃이에요?”

“이건, 각씨꽃이란단다.”

꽃 이름을 물어본 아이가 얼굴을 붉혔어요.

“선생님, 이건 무슨 꽃이에요?”

“이건, 노루오줌꽃 이란다.”

“노루오줌 이래. 꽃이 오줌을 싸나봐. 킁킁.....”

아이들은 입술에 웃음이 잔뜩 물렸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바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잠을 잘 생각이 없었어요. 엄마의 잔소

리에서 벗어나 훨훨 날아갈 것 같았거든요.

“카드 챙겨왔지?”

“응.”

땡땡은 남자 아이들이 둘러 앉아 카드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아이들이 한창 신나게 놀고 있을 때였어요.

선반 위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던 땡땡이 침을 뵙쪽 세웠어요. 동동이의 태도가 땡땡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요녀석, 내 침 맛 좀 봐라.”

“앗, 파가워!”

속임수를 쓰던 동동이가 통통한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금세 손등에 깨알만큼 부풀어 올랐어요. 동동이는 손등이 간지러워 자꾸 긁었어요.

“가방에 모기약.”

동동이는 엄마가 챙겨준 모기약을 뿌렸어요.

“으악!”

땡땡은 얼른 여자 아이들 방으로 도망쳤어요.

여자 아이들 방에서는 이야기꽃이 한창이었어요.

“애들아, 이걸 우리 삼촌이 남극에서 보내왔어. 이 얼음주머니를 이렇게 이마에 대면 온몸이 시원해져.”

“어머, 넌 그런 삼촌이 있어서 참 좋겠다!”

아이들은 가인이의 말을 찰떡같이 믿었어요.

그러나 땡땡은 며칠 전에 어떤 아이가 가인이처럼 똑같이 거짓말 하는 것을 보았어요.

‘나도 눈썰미가 있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저것 봐. 겉포장에 연하게 쓰인 글씨까지 똑같잖아!’

학교 앞 문방구에서 산 게 틀림없었어요.

‘에잇, 내 침 맛 좀 봐라.’

“아앗!”

땡땡은 가인의 입술 위에 침을 한 방 놓았어요.

“어머, 어떡해!”

가인이는 금방 두툼해진 입술을 만지며 울상을 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카드놀이에서 속임수를 쓴 동동이의 손에 붉은 자국들이 여러 개 생겼어요.

거짓말을 한 가인이 입술이 퉁퉁 부었어요.

예절시간에 호랑이 훈장선생님은 동동이의 손을 뻗히 내려다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가인이는 예절시간 내내 입술을 만졌어요. 입술이 점점 부풀어 올랐어요. 그래서 호랑이 훈장선생님이 묻는 말씀에 제대로 대답을 잘 할 수 없었어요.

훈장선생님은 동동이와 가인이를 번갈아 보면서 자꾸 웃었어요. 누가 그랬는지 짐작하는 눈치였어요.

3일 째 되던 날이었어요.

“이제 카드놀이 그만 하자.”

“니가 웬일이고?”

동동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당 아궁이에 카드를 던졌어요.

‘낄낄낄~.’

땡땡이가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던 가인이는 입술이 자꾸 부어올라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얼굴 표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바다초등학교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짐을 싣은 아이들은 버스를 타려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동동이와 가인이를 본 땡땡이는 미안했어요. 그래서 모기의 쫓쫓한 자존심을 접고 사과하려고 버스 쪽으로 날아갔어요.

“에에앵…….”

하지만 동동이와 가인의 눈에는 땡땡이가 호랑이보다 크게 보였어요.

“엄마야~!”

동동이와 가인이는 신발이 벗겨졌어요.

“신발~.”

아이들이 소리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스 안으로 도망쳤어요.

# 꽃이 피기는 피곤했제?

안 미 영

외갓집 대문 옆에는 내 키보다 훨씬 큰 대추나무랑 감나무가 나란히 서 있었다. 두 나무 사이로 하얀 찔레꽃이 담장을 예쁘게 감싸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은은한 찔레꽃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마당 안쪽 담장에서는 닭들이 꼬꼬댁 소리를 내며 모이를 쪼아 먹고 있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어서 온나~.”

대문 안쪽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외할머니는 신발을 신는 둥 마는 둥 뛰쳐나와 나를 안아주셨다. 외할머니 옷에서는 언제나 맛있는 냄새가 났다. 갓 지은 따뜻한 밥 냄새, 구수한 된장 냄



| 안미영 |

- 2025년 《아동문학평론》 등단
- 자갈자갈 그림동화 동인
- 그림동화 『잡기놀이』(공저) 외 다수

새, 그리고 햇볕에 따뜻해진 흙냄새까지.

“어데 보자. 허허, 우리 훈이 키가 쑥 자랐네!”

“할매~, 으음.”

나는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싫지는 않았다. 외할머니 품은 언제나 포근하고 따뜻했다.

외갓집 대청마루 천장 밑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 중에 제일 선명한 사진은 환하게 웃고 있는 막내 삼촌의 대학 졸업 사진이었다. 삼촌은 서울에서 하던 일이 잘되지 않아서 모든 걸 정리하고 외갓집으로 내려와 있었다.

“석아, 오늘은 아랫집 숙이 할매 집에 모심는 거 도와주러 가제이.”

마당을 끌고 있는 삼촌을 바라보며 외할머니가 말씀하셨다.

“네, 알겠습디.”

“훈아, 너는 정지에 가서 무우식혜 좀 들고 따라온나.”

외할머니는 고무대야를 머리에 이고 앞장서서 걸어가셨다.

논에 도착하자 숙이할매 손녀 희야가 대야에 앉아서 놀고 있었다.

“훈아~ 너는 여서 희야랑 좀 놀아주래이~.”

나를 톨롱톨롱 쳐다보는 희야의 눈망울이 귀여웠다.

“배 타는 거 맵기로 재밋재?”

둥~둥~, 스르륵 대야를 밀어주자 희야가 방긋방긋 웃었다.

모심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어? 어? 아이쿠!”

“으앙~.”

흔들리던 대야가 논두렁에 엎어지면서 희야는 울음을 터트렸고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삼촌과 함께 지내는 외갓집에서의 하루하루가 즐겁고 신이 났다.

“삼촌, 서울에 언제 가요?”

“응, 삼촌은 안 가고 니캉 여기서 계속 살 낀데?”

삼촌은 찔레꽃 줄기를 까서 건네주며 말씀하셨다.

나는 삼촌의 말이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상콤 달콤한 찔레꽃 줄기를 한입 베어 물었다.

그날 밤이었다. 나는 외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잠이 들랑 말랑하고 있었다.

“석아, 앞으로 우짖끼고?”

외할머니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

삼촌의 축 처진 어깨는 말이 없었다.

“그냥 여서 내캉 농사 한번 지어보면 어떻겠노?”

“아이고~ 엄마! 막내가 공부머리는 있어도 농사 머리는 쥔병입니더.”

엄마는 이부자리를 펼치며 삼촌을 흘깃 쳐다보았다.

잠깐 동안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했다.

“그라믄, 한번 해보겠습더.”

삼촌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시간을 다시 흐르게 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니캉 내캉 잘 한번 해보제이~.”

외할머니의 입가에 사르르 미소가 번졌다.

삼촌은 외할머니 곁에서 차근차근 농사일을 배우셨다. 하지만 가끔은 서울에서 일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셨다.

벼들이 이삭을 피울 때쯤 서울에서 함께 일했던 삼촌의 친구가 외갓집을 찾아왔다. 신고 온 구두에서는 반짝반짝 빛이 났고 말끔한 양복을 입은 아저씨였다. 아저씨가 하룻밤을 묵고 떠난 날 아침이었다.

“어무이, 이번에는 진짜 잘 될 것 같습니다.”

삼촌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있었다.

“니 저번에도 돈 갖고 가서 결국 못 받았단 아이가.”

“친구가 이번에는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만 더 믿어주이소.”

외할머니의 한숨이 땅에 닿는 것 같았다. 외할머니는 주름이 깊게 패인 손으로 치마 끝을 만지작거리다가 오래된 이불장을 열었다. 그리고 신문지에 곱게 싸인 돈뭉치를 꺼내 망설이듯 삼촌에게 건넸다.

한 달 뒤 삼촌은 양손 가득 선물을 사 오셨다.

“훈아~ 여기 선물이다.”

삼촌은 내가 평소에 갖고 싶어 했던 축구공을 사 오셨다. 그리고 엄마와 외할머니 선물도 사 오셨다.

“어무이, 친구가 이자로 돈을 많이 보내줘서 한턱 쏘는 겁니다.”

삼촌은 의기양양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그 후로 삼촌은 몇 번이나 외할머니의 돈을 가지고 갔다. 나누어서 갚기로 한 돈은 이자와 함께 약속한 날마다 정확하게 들어왔고, 그때마다 저녁밥상에는 소고기가 올라왔다.

어느 날, 삼촌이 허둥지둥 밖으로 뛰쳐나갔다.

“삼촌! 어디 가요?”

“훈아, 삼촌 서울에 후딱 댕기 오꾸마.”

삼촌은 약속한 날짜에 돈이 들어오지 않자 불안하다며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허탈한 얼굴로 돌아오셨다. 매일같이 기차길을 건너서 읍내 마을금고에 가셨다.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하러 다니시던 삼촌은 결심에 선듯한 표정으로 경찰서에 가셨다.

“어찌 안되겠습니까?”

“이런 거는 쪼매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예.”

경찰서와 마을금고를 오가며 지쳐가는 삼촌의 얼굴에는 점점 어둠이 드리워졌다. 나는 그런 삼촌의 모습이 낯설고 무서웠다.

“석아, 이제 그만 이자뿌라. 돈이 거짓말하는 거지. 사람이 거짓말 하겠나.”

외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삼촌의 어깨를 토닥이셨다.

삼촌은 몇 날 며칠을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술만 드셨다. 그러던 어느 새벽녘, 술에 잔뜩 취한 삼촌은 기차길을 건너다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그날 이후로 외할머니는 밥도 안 드시고 툇마루에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셨다. 밤이면 외할머니의 울음소리가 문밖까지 새

어 나왔다.

“석아, 니 어디 갔다 왔노?”

외할머니는 나를 안으며 삼촌의 이름을 불렀다.

“할매, 저는 훈이예요.”

외할머니의 눈빛이 평소와는 달랐다.

“석아, 이리 올라 온나. 배고프재? 얼른 밥 묵자.”

외할머니는 억지로 나를 밥상 앞에 앉히셨다.

“훈아, 그냥 밥 묵어라. 할매가 또 삼촌이 보고 싶은 갑다.”

엄마는 누렁지 그릇을 손에 들고 앉으며 말씀하셨다.

“아이고, 내가 못 살겠다. 이 할마씨 또 오데 갔노?”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외할머니가 말도 없이 사라지는 날들이 많아졌다. 어떤 날에는 짙레 꽃밭을 헤매다 온몸이 가시에 찢려 피가 나기도 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도 없이 온몸이 젖은 채로 마을 사람들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훈아, 엄마랑 같이 저기 기찻길에 또 나가 보자.”

외할머니가 사라지면 엄마는 제일 먼저 기찻길로 가셨다. 오늘은 다행히 외할머니가 기찻길 옆에 우두커니 앉아 계셨다.

“엄마! 여기서 뭐 합니꺼. 어서 집에 가입시더.”

엄마는 외할머니의 팔을 잡고 일으키셨다.

“야야, 오늘은 우리 석이가 꼭 올끼다.”

외할머니는 기찻길이 끝나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엄마, 언제까지 이랄깁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 보이쇼.”

엄마는 속상한 듯 외할머니의 양손을 잡고 흔들었다.

외할머니의 조각난 마음들에 몇 번의 계절이 스며들었다. 어느 한 계절에는 흐트러진 꽃잎으로 왔다가 또 어느 한 계절에는 고운 바람으로 왔다가 또 그다음 계절에는 코스모스로 삼촌은 다녀갔다고 하셨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땅속에서 새싹들이 조심스레 얼굴을 내밀고, 가지 끝마다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훈아, 꽃이 피기는 피겠제?”

외할머니는 마당을 천천히 거닐며 나직이 중얼거리셨다. 그리고 삼촌이 지내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나오셨다. 외할머니 눈빛은 봄처럼 따뜻하면서도 슬퍼 보였다.

다음날 아침, 담장 사이에 하얀 짙레꽃이 소리 없이 피어나 있었다. 은은한 짙레꽃 향기는 바람을 타고 마당 곳곳으로 흩어졌다.

# 숫탕이 할아버지

오 윤 형

“애들아, 오늘 우리 집에 가는 거 알지?”

“그럼. 늦을 거라고 엄마한테 말하고 왔어.”

오늘은 부반장 준하 생일이다. 4학년 올라온 후 첫 생일 파티라 무척 기대되고 신났다. 우리는 수업이 끝나자 우르르 교실을 빠져 나왔다.

“숫탕이, 같이 가자.”

상현이가 큰 소리로 내 별명을 불렀다.

“너, 자꾸 까불래? 딸기코.”

나도 질세라 상현이의 빨간 코를 놀리면서 달아났다.



| 오윤형 |

- 2023년 《아동문예》 동화 등단
- 자갈자갈 그림동화 동인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 그림동화 『네가 딱이야!』(공저) 외 다수

우리는 툭툭거리며 아파트 단지를 지나 주택들이 모인 동네로 들어섰다.

“준하야.”

할아버지 한 분이 빨간 장미 넝쿨이 늘어진 집 앞에서 준하를 불렀다.

“할아버지.”

앞장서서 걷던 준하가 할아버지를 향해 뛰어갔다.

“우리 준하 친구들이구나. 어서 오너라.”

준하 할아버지가 인자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다.

마당에서부터 맛있는 냄새가 우리를 반겼다. 김밥, 치킨, 피자에 톡 쏘는 콜라까지 음식이 한 상 가득한데 나는 준하 할아버지에게 자꾸 눈길이 갔다.

“많이 먹어라.”

할아버지가 양념치킨 접시를 내 앞에 밀어 놓으며 말씀하셨다.

“할아버지. 애는 우리 반 반장, 정하늘이예요.”

“애는 별명이 숯탕이래요. ㅋㅋㅋ.”

“그래? 눈썹이 진하니 참 똑똑하게 생겼구나.”

나는 난생처음 들어보는 할아버지의 칭찬에 기분이 좋았다. 굵고 딱딱한 할아버지의 손이 친구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내 차례가 되었을 때는 나도 모르게 가슴이 콩닥거렸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할아버지를 마음속으로 자꾸 불렀다.

“할머니, 나도 할아버지 계셨지?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나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다짜고짜 할머니를 보냈다.

“애가 갑자기 없는 할아버지를 왜 찾고 난리야?”

엄마가 난처한 듯 얼른 내 말을 막았다.

“나도 우리 할아버지한테 칭찬 듣고 싶어.”

내가 생각해도 참 엉뚱한 말로 엄마와 할머니를 난감하게 했다.

“하늘아, 생일 파티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준하는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셔.”

“아~, 오늘 준하 생일 파티에서 준하 할아버지를 만났구나.”

엄마는 당황한 눈빛으로 할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우리 하늘이 할아버지가 어디 계시나?”

할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시며 방으로 들어가셨다.

잠시 후 할머니는 어디서 찾아냈는지 할머니 나이만큼 오래돼 보이는 사진첩을 들고 나오셨다.

“우리 하늘이가 당신을 찾네요.”

할머니는 마치 옆에 사람이 있는 듯 말씀하시며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놓으셨다. 내 손바닥보다 작은 사진에는 멋쟁이 모자를 쓴 신사가 품을 잡고 앉아 있었다. 색깔은 흐리지만 또렷한 눈빛과 입 모양은 분명 나를 보고 웃고 있었다. 나는 한참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생기셨구나!”

나도 모르게 눈물 한 방울이 사진 위로 툭 떨어졌다.

“에구. 우리 하늘이, 친구 할아버지가 몹시 부러웠구나?”

할머니가 내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다.

“우리 하늘이가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지. 요 솟검댕이 눈썹 하며…….”

“진짜예요? 할머니, 내가 할아버지 닮았어요?”

나는 거울 앞에서 할아버지 사진과 내 얼굴을 번갈아 보며 열심히 또 다른 닮은 곳을 찾았다.

출장 가셨던 아빠가 돌아오셨다. 며칠 만에 가족이 다 함께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다.

“하늘이, 아빠 없는 동안 뭐 하고 지냈어?”

“학교, 학원, 학교, 학원. 재미없었어.”

“아빠가 없어서 심심했구나!”

아빠는 시큰둥한 내 말을 다정하게 받아주며 엄마를 쳐다보았다.

“너, 엇그제 친구 생일 파티에 가서 잘 놀다 왔잖아?”

엄마는 내 말투에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하늘이 좋아하는 꽃게 찌개 했는데 어서 밥 더 먹자.”

할머니는 얼른 계살을 발라 내 밥그릇에 얹으며 말씀하셨다.

며칠이 지난 후, 토요일 아침이었다.

“하늘아, 오늘 아빠랑 할아버지께 갈래?”

“네? 할아버지가 어디 계시는데요? 할아버지 산소에 가는 거예요?”

“가 보면 알아.”

나는 가우뚱했지만 기분 좋게 따라나섰다.

아빠 차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또 시골길을 지나 어느 강변 한적한 곳에서 멈추었다. 차에서 내린 아빠는 말없이 강둑길을 걸었다. 강변의 나뭇잎들은 마치 아빠와 나를 잘 왔다고 반기는 듯 살랑살랑 흔들렸고, 강물도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다.

“할아버지 산소는 어디에 있는 거지?”

나는 아빠를 따라 걸으며 선뜻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우리 하늘이가 이만큼 컸으니 이제 이야기를 해 줘도 되겠구나.”

발걸음을 멈춘 아빠가 강물을 바라보며 말을 꺼냈다.

“아빠가 중학교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오랫동안 큰 병을 앓으셨지. 고향에는 마땅한 병원이 없어서 진주에 있는 큰 병원으로 왔는데 그만 그곳에서…….”

나는 아무 대꾸 없이 아빠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때는 아빠도 어렸고, 어쩔 수 없이 여기 남강에 할아버지를 뿌렸단다.”

나는 말없이 아빠 손을 꼭 잡았다.

‘아! 아빠는 아빠의 아빠가 보고 싶었구나!’

며칠 전 내 마음보다 몇 백 배 더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을 아빠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았다. 조용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아빠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만났을까?

물어보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그냥 아빠 손만 꼭 잡고, 아빠 옆에 가만히 서 있었다.

“이제 그만 내려갈까?”

얼마쯤 지난 후, 아빠는 한결 밝아진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내가 할아버지 닮았잖아요.”

나는 내 숯덩이 눈썹을 한껏 치켜뜨며 맞잡은 아빠 손을 흔들었다.

# 젓가락 행진

이 효 정

“이것 봐라!”

하빈이가 젓가락으로 콩나물을 집어 올려 내 눈앞에서 흔들었습니다.

“형은 아직 포크 쓰지?”

이 학년 하울이는 일 학년 하빈이가 알미웠습니다.

“하울이도 다시 연습해 볼까?”

엄마가 젓가락을 내밀었습니다.

하빈이는 연습을 안 해도 젓가락질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젓가락질이 잘 안되었습니다.



| 이효정 |

- 2024년 《아동문예》 등단
- 자갈자갈 그림동화 동인
- 그림동화 『젓가락 행진』(공저) 외 다수

“하울아, 젓가락으로 이 소시지를 다른 접시에 옮겨볼래? 옮긴 소시지는 다 네 거야.”

엄마는 소시지가 든 접시를 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싫어요!”

하빈이에게 놀림을 당하기 싫었습니다.

“형, 한 번만 더 해보자!”

젓가락을 쥐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손가락을 여기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손에 힘을 줘!”

엄마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젓가락 짝이 딱딱 맞았습니다.

“우와~ 잘한다!”

어느덧 소시지 열 개를 옮겼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지만 뿌듯했습니다.

“하울이, 잘했어!”

나와 하빈이는 젓가락을 들고 외쳤습니다.

“만세!”

# 요미와 나미

임 지 연

겨울.

유기전 보호소 구석에 작은 털실뭉치만한 하얀 강아지가 있었어요.

“너는 솜사탕을 닮았구나.”

요미는 우리 가족이 되었어요.

봄.

커다란 고양이 나미가 입양되었어요. 나미는 요미가 지내온 헛



| 임지연 |

- 2013년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백일장 장원(수필)
- 제1회 자갈자갈 그림책 작가상 수상
- 그린 책 『나그네 새』, 『꿈꾸는 장어』, 『별난 재판』
- 그림동화 『네가 딱이야』(공저) 외 다수

살 좋은 자리를 단숨에 차지해 버렸어요.

“여긴 내 자리야, 멍.”

요미가 양갈지게 짓었어요.

“먼저 눕는 게 임자지, 나옹.”

나미는 능글맞게 고집을 부렸지요.

여름.

요미와 나미는 밥그릇 앞에서 늘 으르렁거렸어요. 요미는 나미의 통조림이 탐났고, 나미는 요미의 사료를 탐냈어요.

여러 번의 계절이 지났어요.

그리고 낙엽 지는 가을이 찾아왔어요.

요미의 다리가 가늘게 떨었어요. 좋아하던 사료도 씹지 못했지요.

노을이 유난히 붉던 오후, 요미의 마지막 숨이 햇살 속으로 사라졌어요.

나미는 요미의 낡은 방석 위에 몸을 동그랗게 누워 있었어요.

‘요미야, 오늘도 햇살이 참 따뜻해!’

# 거름더미에서 핀 새싹

정 현 옥

“봄, 봄, 봄이다!”

바람이 바쁘게 돌아다니며 알렸어요.

마을 끝자락 도시 농부네 텃밭에도 봄이 왔어요.

작년 가을이었어요.

농부는 호박을 반으로 잘라 씨앗을 거름더미에 던졌어요.

잠자던 호박 씨앗이 꼬물거렸어요.

‘예구, 이게 뭐야?’

깜깜한 어둠 속에서 호박 씨앗은 딱딱한 돌맹이를 만났어요.

‘어유, 힘들어!’



| 정현옥 |

- 2023년 《아동문예》 동화 등단
- 자갈자갈 그림동화 동인
- (사)부산문인협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 그림동화 『탱탱볼』(공저) 외 다수

호박 씨앗은 있는 힘을 다해 깨어날 준비를 했어요.

한편, 도시 농부도 봄소식을 들었어요.

밀짚모자를 쓴 농부가 텃밭으로 왔어요. 장갑을 끼고 쇠스랑을 들었지요.

“자, 봄 준비를 해 볼까?”

농부는 땅을 부드럽게 일구었어요.

“음, 여기에 호박을 심어야겠군.”

농부는 텃밭 가장자리에 준비해 온 호박 모종을 정성껏 심었어요.

“잘 자라거라. 토닥토닥…….”

농부는 거름더미 흙을 가져다가 모종 위에 소복하게 올려주었어요. 그리고 물도 듬뿍 주었지요.

“여기요, 목말라요.”

거름더미 속 호박 씨앗이 농부를 불렀어요. 농부는 듣지 못했어요.

호박 씨앗은 너무 서운했어요.

아지랑이만 아롱거렸어요.

다음 날 농부가 텃밭을 둘러보았어요.

“타박타박…….”

“야, 농부 발소리다!”

호박 모종이 농부 발소리를 들으며 작은 연두 잎을 피웠어요. 호

박 씨앗도 가슴이 설레었어요.

‘우리는 언제 잎을 피우지?’

호박 씨앗도 빨리 연두 잎을 피우고 싶었어요.

“쇠아……, 쑥쑥 자라거라.”

농부는 호박 모종에 물을 주었어요.

농부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나도 목마른데.”

호박 씨앗은 농부가 알아줬어요.

며칠 후였어요.

“아암~.”

호박 씨앗들이 여기저기서 기지개를 켜어요.

거름더미 속에서 연둣빛이 싹텔어요.

“꼼지락, 꼼지락…….”

호박 씨앗들이 어둠을 헤치고 눈을 비비며 부스스 일어났어요.

그리고 발에 힘을 주어 푹푹하게 섰지요.

“우와, 키가 커졌어!”

호박 싹들은 단단한 모자를 쓴 채 거름더미 밖으로 얼굴을 빼꼼 내밀었어요.

“아이, 눈부셔!”

해님을 처음 만난 호박 싹들은 실눈 떴어요.

“어머, 저기 좀 봐!”

동작 빠른 호박 싹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어디?”

모자를 쓴 호박 싹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우와, 부럽다!”

“튼튼하다!”

모자를 쓴 호박 싹들은 호박 모종을 보았어요. 벌써 녹색 잎을 피웠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

동작 빠른 호박 싹이 목에 힘을 주며 외쳤어요. 그리고 모자를 획 벗었어요.

“나도 벗을 거야!”

모자를 쓴 호박 싹들이 약속을 한 듯 모두 모자를 벗었어요.

어느덧 산과 들에 봄꽃 축제가 한창이었어요.

갑자기 꽃샘바람이 불어왔어요.

농부의 텃밭에도 꽃샘바람이 찾아왔어요.

농부는 마음만 동동거렸어요.

“아이 추워. 덜덜덜…….”

추위를 많이 타는 호박 모종이 온몸을 떨었어요.

“더는 견딜 수가 없어.”

호박 모종이 바람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쓰러졌어요.

한편, 거름더미 호박 싹들도 긴장했어요.

“허리에 힘을 쥐.”

“지푸라기라도 붙잡아.”

호박 싹들은 서로서로 큰소리 외치며 허리에 힘을 주었어요. 넘  
어지지 않으려고 힘껏 지푸라기를 붙잡았지요.

얼마 후 조용해졌어요.

“휴우, 잘 견뎌어!”

“난, 허리에 힘을 많이 주었어.”

“난, 지푸라기를 꼬옥 잡았어.”

호박 싹들이 한마디씩 했어요.

거름더미 호박 싹들이 고개를 살짝 들어 주위를 살폈어요.

꽃샘바람이 달아난 자리에 봄바람이 살랑살랑 다가왔어요.

“텃밭 호박 모종은 비닐하우스에서 태어났대. 그래서 힘이 없었  
나 봐.”

지나가던 봄바람이 일러 주었어요.

“그래, 어쩐지.”

거름더미 호박 싹들이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꽃샘바람이 떠나고 호박 모종이 노란 얼굴로 말했어요.

“너무 추워 얼어버리는 줄 알았어.”

“허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

호박 모종들이 앓는 소리로 말했어요.

“쭈쭈쭈.”

움직이지 못하고 야위어진 호박 모종을 본 농부의 얼굴이 어두

왔어요.

“올해 호박 농사는 텃네, 텃어.”

농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거름더미 호박 싹들도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우리가 힘을 내어보자!”

어깨가 축 처진 농부에게 호박 싹들이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영차, 영차……!”

호박 싹들이 보송보송한 초록 잎을 피웠어요.

“우와!”

거름더미를 본 농부의 얼굴이 해님처럼 환해졌어요.

호박 싹들이 손을 나풀나풀 흔들었어요.

## 수필

공기화 | 별난 커피타임

김복임 | 머위잎 편지

김해용 | 외진 오지에서 강도를 만나다

노장현 | 삼월의 눈물

명인숙 | 드로아의 밤을 묵상하다

박희두 | 북한 방문 증명서

변순희 | 명주 오빠

성윤자 | 누수가 만들어 준 텃밭

윤평원 | 코에 붙어 넣어진 창조의 숨결

전섭태 |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전진경 | 모든 것이

조광순 | 겉잎이 품은 온기

최방식 | 겨울 농장 풍경

한인환 | 벌꿀

# 별난 커피타임

공 기 화

담소를 나누며 커피타임을 갖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매달 고등학교 동기생과 만나는 모임에서 식후에 언제나 카페나 전통찻집에서 차를 나누며 담소를 나누곤 한다. 처음으로 커피타임을 가진 것은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지 못하고 빌빌거리고 있을 때였다. 군 복무 중에 다 잊어버린 영어를 회복하기 위하여 뉴스위크(News Week)를 구독하였다. 아침 식사 후 초등학교 동기생들이 잘 모이는 마을의 다방에 가서 친구들이 오기 전에 영어신문의 내용을 대충 읽었다. 당시 우리 마을은 토지 개발 구역이어서 다방마다 복덕방 영감들이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었다. 그들이 종업원들에게 대



## | 공기화 |

- 땅끝교회, 은퇴 장로.
- 2001년 《월간문학21》 수필 신인상, 2016년 《문학도시》시 신인상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고문), (사)부산문인협회, 한국장로문인협회, 부산수필문인협회, 부산남구문인협회 회원.
- 시집 『흔들리며 산다』 외 다수
- 수필집 『뒤통수를 그리다』 외 다수

하는 위세가 대단하였다. 영감들은 커피 한 잔을 시켜 두고 신문을 읽으면서 소일하는 나와 같은 향토예비군 백수를 별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마을의 친구가 몇이 모이면 왁자지껄한 우리들의 커피타임이 시작되었다. 9월이 되자, 나는 서울의 대학으로 복학하였고, 친구 몇은 원양어선을 타러 해외로 떠나 우리들의 커피타임도 막을 내렸다.

요즘 교회에서 커피타임을 갖는다. 주일마다 교회의 엘림 카페에서 친구들과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나에게 소중한 시간 중 하나가 되었다. 2년 넘게 거의 정례화하다 보니, 이젠 약속이나 한 것처럼 지키고 있다. 2024년 초봄 주 집사가 암 수술 후 항암 치료 받으면서 바짝 야위어서 나타난 이후에 교회의 2부 예배가 끝난 후에 엘림 카페에서 동갑내기 친구 몇 명이 모여 커피타임을 갖게 되었다. 우리의 대화가 거의 끝날 즈음이면 투석 치료받고 있는 강천운 집사까지 합석한다.

주 집사는 위암 말기에 간에까지 전이되어 수술하여 기적적으로 소생하였다. 그의 체중이 75kg에서 50kg 미만이 되어 예전 옷을 입으면 우장 바우 같아서 예전 옷은 벗어버리고 작은 것으로 구입하여 입었다. 강 집사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좋지 않아 이를 한 번씩 투석 받고 있다. 야윈 몸에 황달기도 조금 있어 서행 보행하는데 경사 있는 길은 식식거리기도 걷다가 쉬다가 걷곤 한다. 가끔 예배 중에 당뇨약을 찾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나 교회에 출석하려는 집념은 대단하다.

병으로 시달리는 그들은 한 주일 동안의 치료 경과를 알려준다. 나 역시 허리가 좋지 않아 지팡이를 짚고 합석하니 그야말로 이 모임은 장애인의 집합소가 되었다. 우리의 커피 타임은 킥다(喫茶)하기보다 신체적 고통을 가진 사람들끼리 동병상련(同病相憐)하며 위로하는 곳이다. 서로 격려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 우리는 상부상조하기도 한다. 특히 성 장로는 구포에 가서 암 수술 후에 좋다고 하는 영양식을 사서 영도까지 와서 주 집사에게 갖다주기도 하였다. 혹 수술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의 격려금을 주머니에 넣어 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

엘림 카페에서 만나면 얼굴부터 본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안색(顔色)을 보고서 건강 상태를 짐작하는데는 웬만한 돌팔이 의사 수준이다. 최근에 만날 때마다 주 집사나 강 집사의 안색이 더 좋고 병세가 악화하거나 통증이 없고 활기차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그것을 보며 일주일 동안 무사하게 지낸 것에 감사의 말을 나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 모여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 주고 있으니, 이곳은 치유의 기적을 위해 거적매기를 깔고 환자들이 모여든 베데스다나 실로암 연못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건강에 대한 노력도 대단하다. 주 집사는 송도, 해운대, 광안리 해수욕장 백사장이나 봉래산에서 몇 시간 동안 걷는다고 한다. 강 집사는 투병 생활하는데 힘들어한다. 불평하지 않고 걷기, 헬스와 스트레칭을 하면서 병마를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다.

2부 예배를 마친 후, 10시 15분경에 엘림 카페의 그랜드 피아노

결에는 작은 테이블을 두고 대여섯 명이 둘러앉아 앉는다. 그곳은 자갈치, 부산대교, 영도다리와 바다가 잘 보이는 창가이다. 가끔 배가 지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 시간에 커피 마시러 온 교우들은 우리가 앉는 테이블을 비워둔다. 그들이 우리의 커피타임에 앉는 장소를 비워두는 배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곳은 당회원들이 모이는 접견실과 가까워서 우리가 앉아 있으면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들이 일부러 찾아와 인사를 나눈다. 그들이 따뜻하게 손을 잡으며 하는 격려의 인사가 그저 고맙기만 하다.

카페를 운영하는 권사들은 우리가 마시는 차가 무엇인가 알고 있다. 그들이 알아서 아메리카노와 밀크커피를 준비한다. 주 집사가 커피를 많이 마시지 못하니까 백내장 수술 후 선글라스를 낀 손장로가 양이 많은 아메리카노 커피를 작은 컵에 덜어서 주 집사에게 건넨다. 우리는 천천히 커피를 음미하며 마신다. 이것이 우리의 별난 커피타임의 모습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투병 생활뿐만 아니라 간증도 나눈다. 이곳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니,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기도 동역자가 되었다. 주 집사와 카톡으로 자주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그의 글은 나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는 축매제가 되기도 하였다. 어느 날은 옷이 밝고 찬란하게 변화되는 꿈을 꾸고 와서 “장로님,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나 봅니다.”라며 이야기한다. 예전보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기 때문인지 우리의 대화가 처음보다 진지해졌다.

교회에서 이런 별난 커피타임을 갖다 보니, 1960년대에 유행했던 ‘커피 한 잔’이란 노래가 듣고 싶다. 복덕방 영감들에게 곱지 않던 눈총을 받으며 커피타임을 가졌던 그 시절이 그리기도 하다. 이제는 다방이란 곳을 눈을 닦고 보아도 볼 수도 없지만, 예전처럼 커피 한 잔을 시켜 두고 죽치고 앉아 있을 장소가 없다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병으로 회복하려는 사람들이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베데스다나 실로암 물가와 같은 모임과 대화하는 장소가 교회에 있어야 한다. 엘림 카페에서 우리의 별난 커피타임에 모이는 형제가 늘고 있다. 비록 아픔을 가진 몸이라 하더라도 기다려지는 우리의 커피타임이 오래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면 한다.

## 머위잎 편지

김복임

새봄, 머위나물은 몸과 마음을 깨워주는 약이다. 머위잎 한 장에는 겨우내 눌러 있던 흙의 숨결과, 햇살의 기다리던 시간들이 겹겹이 스며 있다. 어린 순은 나물로, 조금 자라면 쌈으로, 즐기는 무침이나 찜으로, 장아찌로도 먹는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채소다.

젊을 때, 시부모님의 텃밭에서 나는 푸성귀를 많이 가져다 먹었다. 머위 순이 돋을 때면 새 학기기 시작된다. 그 무렵이면 책방이 바쁘다는 핑계로 시골에 갈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젊으실 때 기운이 좋으셨다. 하루에 몇 번 들락거리는 버스를 타고 진동에서 마산



| 김복임 |

- 2011년 《수필과 비평》 수필, 2015년 《아동문예》 동화 등단
- 동화집 『꽃샘』
- 수필집 『목련나무가 있는 집』, 『아버지의 우물』, 『람전은 흐른다』
- 현) 황산문예 회장

으로, 또 부산 오는 버스를 타고, 우리 집까지 오는 버스를 타고,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들고 오르막을 올라오셨다. 그 보따리를 풀어보면 채소가 푸짐했다. 눈만 붙은 쑥, 냉이, 뿌리가 붉은 땅두릅, 여린 머위 순이 나를 쳐다보던 기억이 새롭다.

어머님이 부산 요양병원으로 오시고부터,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시골을 자주 갔다. 텃밭에서 쑥쑥 자라는 푸성귀들을 모른 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머위 순을 자르다 보면, 뿌리가 흙과 함께 따라 나올 때가 있다. 머위 뿌리들도 평생 밭을 일구며 살아오신 어머님 가까이 가고 싶었을까. 머위 뿌리들을 부산으로 가져와 정원 한쪽에 심어 두었다. 그 머위 뿌리가 해마다 돌아나와 나를 반기는 일은 어머님의 마음처럼 곰상스럽다.

머위는 몇 번을 베어도 다시 잎을 내밀며 후덕함을 보여준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식물이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이다. 화려한 꽃도 아니고 값비싼 약초도 아닌, 어디에나 흔히 돌아나는 풀 한 포기. 그 ‘가장 흔한 것’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며, 머위는 해마다 새순을 틔우며 그 생명력을 보여준다.

귀촌 후 몇 년째, 지천에 널린 나물과 채소를 챙겨 자녀들이 사는 부산 가는 길은 큰 즐거움이다. 이제는 어머님처럼 주는 사람이 되어, 여행용 가방에 철마다 나는 채소들을 차곡차곡 채워 담는다. 상우리에서 함양행 버스를 타고, 다시 부산 가는 버스를 탄다. 자연이 선물한 머위 반찬으로 개척교회 목사인 아들도 주일예배 후

교우들과 점심을 나누고, 엄마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은 막내딸도  
직원들과 함께 나물 맛을 음미하리라. 어느새 터미널에 도착하면  
딸이 환한 얼굴로 반긴다.

머위잎을 다듬다 보면 손바닥에 검은 물이 든다. 물든 손은 단순  
한 얼룩이 아니라 어머니의 삶의 흔적이었음을 알게 한다. 어머니  
의 삶은 풀물에 배인 손바닥처럼 푸성귀를 만지며 평생을 사신 분  
이다. 머위 데쳐낸 검은 물빛이 손바닥에서 가실 날 없던 삶, 시골  
에 가면 하룻밤을 자고 올 때가 많았다. 잠결에 일어나 보면, 그림  
처럼 앉아 계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초저녁에 잠시  
주무시고 온 식구들이 잠든 밤에 일어나 푸성귀를 다듬어 정교하  
게 묶으시던 모습. 많은 자녀의 학비와 살림에 보태기 위해 마산  
시장에 내다 팔려고, 장거리를 정성껏 준비하시던 생전의 어머니  
모습이 지금도 마음에 어린다. 푸성귀와 한 세상을 살아낸 어머니  
의 검은 손바닥.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푸른 머위잎 편지다.

# 외진 오지에서 강도를 만나다

김 해 용

20대 초반 지리산 골짜기에 들어가 2년간 무공해 생활(사람 만나지 않고, 신문 보지 않고, 라디오 듣지 않음)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고 고심했을 때 3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다.

첫째: 거짓말하지 않고 살자.

주요한 선생이 쓴 도산 안창호의 일대기에는 “꿈에라도 거짓말을 했으면 뉘우치라,” 는 말이 있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만인이 인정하는 애국자다. 그러면 거짓말하지 않는 것도 애국이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어떤 거짓말도 하지 않고 살기로 했다.

둘째: 삶에 최선을 다하자



| 김해용 |

- 수필가, 교회 은퇴 장로
- 두리원 대표(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SINCE 1987년)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이사
- 저서 『프로폴리스의 위력』 『토양의 병은 육체의 병』 외 10권

그렇게 살면 사회에서 낙오자는 되지 않는다. 이 말은 가난한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의 말이었다. 나 자신도 삶에 최선을 다하면 세상에서 낙오자는 되지 않을 것이다.

셋째 : 국가가 나의 피를 필요로 하면 한 방울의 피도 아끼지 않고 모두 내어놓겠다. 는 결심이 있었지만, 죄송하게도 국가를 위해서는 1cc의 피도 흘리지 못했다.

2년간의 지리산 생활을 청산하고 집에 왔을 때 어머니는 남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되자 집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짓꼴이었다. 부득불 외가가 있는 경북 영천 시골을 찾게 되었다. 마을에서는 나를 보고 “도시에서 예수를 믿다 쫓딱 망해서 온 자라” 평했지만, 그 말에는 하등 거짓도 없었던 것은 나는 실지 망해서 온 자였기 때문이다.

60년대 시골은 좁은이로 터질 정도로 가득했다. 중학교 진학하지 못한 자들도 많아 그들에게 중학교 과정을 가르쳤을 때 의식주는 해결되었지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은 아득하게만 보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고 고심하면서 찾게 되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한 내게는 노동력이 적게 들고, 돈이 없다 보니 적은 자본으로도 할 수 있어야 했다. 그렇게 찾다 보니 양봉<sup>養蜂</sup>이 보였다. 이 당시 9급 공무원의 월급 1만 원 할 때 벌 한 통 값은 7천 원이었다. 벌은 한 통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2통에서 시작해야 한 통이 잘못되어도 벌을 합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어카도 들어가지 못하는 120평의 시골집을 1만 5천 원에 구입

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벌 2통 값은 너무나 큰돈이었다,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 거둬진 절약으로 1967년도에 벌 2통을 1만 3천원에 구입했다. 구입한 벌 2통을 담 모퉁이에 갖다 놓고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태어나서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다시 재기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때 벌통 위에는 눈물로 혼근했고, 눈물이 아침 햇살에 비취졌을 때는 반짝거리는 보석같이 보여 기도의 응답으로 보였다.

4년째가 되었을 때는 벌 2통이 40통으로 늘어났고, 가을에는 싸리꽃에서 많은 꿀을 채밀採蜜해 늦가을에는 빗을 갠고도 현찰 50만 원을 쥐면서 30년간 이어오던 가난에서 영구히 벗어날 수 있었다.

그 당시 시골 논 한 평은 300원(현재 30만 원)했다. 그래서 24만원으로 800평을 구입하게 되므로 가난에서 영구히 벗어날 수 있었다.

밀원지가 좋은 양봉장을 찾던 중 20년 전 200통의 토종벌이 있었던 지역은 밀원지가 좋은 것으로 보고 300평의 땅을 매입하고, 거기에 창고 및 거주까지 할 수 있는 집을 지었다. 버스에서 내려 오베 양봉장까지는 6km로였다. 버스에서 내려 3km 걸어가면 마을 끝자락에 정씨 문중의 재실이 있었다. 그 앞에는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언제나 돌을 갖고 놀고 있었다. “너의 부모는 안 계신냐?” 했더니 “대구에서 살았는데 부모님이 헤어지면서 할머니와 같이 살게 되었다”고 했다. 다음에 갈 때는 그가 입을 옷 한 벌을 사서 갔다. 그리고 할머니를 만났더니 부모는 이혼하면서 부득이

손자를 맞게 되었다고 했다.

“공부할 시기에 공부를 못하면 평생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조카를 학교에 보내주십시오. 학교에 들어가는 경비는 제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하고는 떠나왔다.

아침 일찍 봉장蜂場에 가서 합봉合蜂 시킨 벌들을 해결해 주어야 아침부터 일할 벌들이 많아진다. 내일 가면 오전까지 일 못 할 벌들이 많아져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이것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은 20대에 결심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직업에 최선을 다하면 낙오자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항상 뇌리에 박혀 있었다. 봉장에 가려면 집에서 3km 걸어 나와야 하고 버스를 타고는 20km 가서 하차한 뒤 다시 6km 걸어가야 하는데 그중 3km로는 인가는 물론이고 밭도 없는 좁은 골짜기로 오지 중의 오지였다.

포항 가는 막차 버스가 7시 반에 있어 그 차를 타기 위해 집에서 7시에 나왔다. 그날이 영천 장날이라 버스 안에는 손님들로 가득해 써서 가는 사람도 많았다. 써서 가게 되면 천장에 붙어 있는 줄을 잡아야 했다. 그러면 위쪽 옷 하나가 자연히 올라가게 된다. 내 앞에서 3번째 사람의 호주머니 뒤에는 밧줄로 푼푼 뭉쳐진 것이 주먹 크기 정도 굵기였다. 저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길래 저런 것을 차고 있을까? 하고 여러모로 생각해 보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그를 곰곰이 살피게 되었다.

나이는 30대 초반 키는 1m 75cm 정도 인상은 날카롭게 보였고,

몸은 운동선수와 같이 날렵해 보였다. 그렇게 살피다 보니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다. 도로에서 3km까지는 집들이 띄엄띄엄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집도 농지도 없는 좁은 골짜기로 완전 오지였다. 마지막 주택에서 400m 정도 올라가면 낭떠러지계곡에서 맑은 물이 흘러내려 길가는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곤 했다. 그곳에 이르면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는 버스 안에서 유심히 살폈던 그자였다. 차고 있던 노끈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 그제야 알 수 있었다. 그 노끈을 목에 걸면 사람을 쉽게 해칠 수 있고, 죽은 사람을 숲속 10m 들어가 던져扔으면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고, 1m 앞의 사람도 볼 수 없는 곳이었다.

조리개를 메고 가는 나를 소를 팔고 가는 사람으로 보았던 것은 이 당시는 은행을 잘 이용하지 않는 시대였고, 소를 팔고 오면 돈을 방으로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집 모퉁이 짚단에 몰래 숨겨두고 들어가던 시대였다. 그렇다 보니 이자는 나를 소 팔고 가는 자로 보았던 것이다.

제게 있는 것 무엇이든 다 갖고 가십시오. 줄 것은 시계밖에 없습니다. 저는 벌을 키우기 때문에 양봉장에 가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희미한 달빛이지만 몸이 움츠러드는 기색이 역력히 보였다. 그리고 잠시 후에 헤어졌다.

윗마을은 영천군이고, 아랫마을은 월성군에 속했다. 마을 길옆에는 점포가 있었고, 그 점포 주인은 마을 동장이기도 했다. 이 어두운데 어떻게 왔느냐? 하면서 놀라기도 했고, 오면서 당한 이야기를 했더니 경찰에 신고 해야 한다면서 신고해 주었다.

며칠 뒤에 알게 되었지만, 그자는 대구에 살고 있었고 전과가 있었던 자였다. 내가 옷 사주었던 소년의 삼촌이었다. 내 얘기를 그의 어머니로부터 들었을 것이다. 이 일이 들통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를 죽이는 것이 상책이었지만, 손자에게 옷 사주고 학교에 보내면 경비는 다 부담하겠다고 한 나를 차마 죽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나의 적은 선행이 나를 살려 주었고, 그리고 선행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 삼월의 눈물

노 장 현

겨울 끝자락은 언제나 미련이 길다. 겨울이 남긴 마른 입김이 여전히 공기 끝에 달려 있지만 스치는 바람결은 어느새 부드러워졌습니다. 세상은 약속이라도 한 듯 시작이라는 설렘을 준다. 이월의 마지막 밤을 지나 삼월 첫 새벽을 맞이할 때 우리는 단순히 달력의 한 장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얼어붙었던 생의 감각을 다시 일깨우는 의식을 치른다. 삼월은 계절의 전령이자 정지해 있던 삶의 필름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첫 뼈대이다.

해동의 계절이 오면 세상은 소란스러워진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대지가 제 삶을 스스로 찢고 연한 싹을 밀어 올리는 소리가 들



| 노장현 |

- 《에세이문예》 수필 등단, 《부산시단》 신인상 등단.
- 뉴에이지문학, 효원수필문인회, 부산수필문예, 한국에세이문인협회, (사)부산문인협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이사.
- 시집 『아직 길은 손바닥에 있다』 『시월노을』

린다. 산기슭의 잔설은 햇살의 채찍질에 못 이겨 녹아내리지만, 그 녹은 물은 손끝이 저릴 만큼 차갑다. 겨우내 숨죽였던 개울물이 얼음장을 부수며 자갈들과 부딪히는 소리가 공기 중에 가득하다. 세상은 이토록 생의 의지로 들끓는데 내 시간은 아버지를 보낸 그해 삼월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삼월의 삶을 형상화한다면 그것은 아마 낮에 었드린 채 내뿜는 더운 숨결일 것이다. 아직 산등성이에는 잔설이 남아 있고 바람은 여전히 옷깃을 여미게 하지만 발밑의 흙은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얼었던 땅이 녹으며 내는 질척이는 소리는 대지가 다시 숨을 시작했다는 신호이다. 수필가 피천득은 오월을 찬미했지만, 나는 삼월의 거친 생명력에 더 마음이 있게 된다. 화려한 꽃을 피우기 전 딱딱한 지표면을 머리로 밀어 올리는 새싹의 치열함이야말로 우리 삶의 짙은 면목이기 때문이다. 무언가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부드러운 순이 바람을 견뎌내는 일이며 어두운 흙 속에서 빛의 방향을 가늠하는 고독한 일이다. 삼월은 우리에게 말한다. 삶은 화려한 만개가 아니라 어둠을 뚫고 나오는 작업 그 자체라 한다.

삼월의 이미지는 소리로도 형상화 된다. 겨울 동안 죽은 듯 고요하던 계곡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얼음장 밑으로 흐르던 물소리가 점차 명랑한 음률로 변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시간의 흐름을 체감한다. 그것은 정체되어 있던 고통이 해소되는 소리이며 막혔던 혈관이 뚫리는 생명의 박동이다. 사랑이며 불어오는 바람은 어딘가 습기를 머금고 나무 끝을 간지럽히는 훈풍이다. 나뭇가지는 바람에 몸을 맡기며 수액을 끌어올린다. 가지 끝에는 불

게 달아오르는 모습은 소년의 불처럼 생기로 가득 차 있다. 내 핏줄의 내면에도 뜨거운 열망이 요동치며 생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리라.

아버지는 삼월의 흙을 닮은 투박한 흙손 같으신 분이였다. 해동이 시작되면 아버지는 먼저 헛간에서 낡은 가래와 호미를 꺼내 드셨다. 겨우내 얼어붙은 밭이랑을 고르며 봄을 기다리던 아버지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다. 그 틈 사이로 배어 나오던 흙냄새는 세상 그 어떤 향기보다 따스했다. 땅이 풀려야 사람 팔자도 풀리는 법이다. 무심하게 내뱉으시던 그 말씀은 당신이 평생을 견뎌온 겨울에 대한 뒤늦은 고백이었음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이제 그 손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해동된 땅위로 흐르는 차가운 물줄기처럼 내 마음 바닥을 차갑게 적신다. 땅이 녹는 것은 만물을 살리기 위함이라는데, 왜 나의 마음속 얼음은 녹을수록 더 깊은 슬픔의 웅덩이를 만드는지 알 길이 없다.

삼월의 새벽은 자주 안개에 잠긴다. 그것은 땅 껍질의 차가운 공기를 만나 피어오르는 대지의 한숨이다. 나는 그 안개 속에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본다. 뚜렷하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아버지의 환영이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 가깝지만 다가가면 저만치 물러나 일렁이는 비정함이다. 잡으려 하면 흩어진다. 봄에 피는 새벽안개가 온몸을 축축하게 적시는데 그 그리움의 질감은 무한하다.

삼월은 과정의 계절이다. 성급한 이들은 당장이라도 꽃이 흐드러지길 바라지만 서두르지 않는다. 산수유가 노란 안개처럼 피어나고 매화가 고결한 향기를 뿜기까지는 마지막 시련을 거쳐야 한

다.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기다림이 속에 있다. 몽우리가 부풀 때의 그 긴장감은 마음을 설레게 한다. 그리고 찬바람을 맞으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는 인내, 삼월의 이미지며 는 바로 인내하는 희망이다. 절망의 끝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 마음속에 아직 피지 않은 삼월의 몽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삼월의 산등성에 점묘화처럼 찍히던 노란 산수유 꽃이나, 봄의 전령사로 산기슭에 화사하게 피어나는 개나리꽃은 사월을 재촉하는 희망이다. 곧 터질 듯 부풀어 오른 목련 봉오리는 삶의 빛이다. 그러나 삼월의 바람 한 자락에 떨어지는 꽃잎은 허망하기에 그지 없다. 사람들은 봄을 희망이라 부르지만, 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나에게는 부활하는 통증의 계절이기도 하다. 내가 바라보는 나무마다 수액이 차오르는 소리가 들릴 때면 내 몸 안의 모든 슬픔도 수액이 되어 눈으로 차오른다. 씨앗은 어둠 속에서 썩어야만 싹을 틔우고 얼음은 녹아야 강물이 흐르는 것이다. 하시면서 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자연의 이치로 가르쳐 주시었다. 그래서 내 눈물이 삼월의 대지에 스며드는 것을 단순히 슬퍼함이 아니라, 씨앗을 틔우기 위한 필연적 해갈이라 하겠다. 그것은 내 안에 남겨진 아버지의 가르침이다. 삼월의 눈물은 차갑지만 투명하다. 그것은 슬픔의 결정체이자, 다시 올 만남을 기약하는 정화수다. 올해도 대지는 해동의 진통을 겪으며 푸르름 속에서 자라는 것이다. 이제는 아프지 않은 아버지의 미소를 만날 준비가 희망이겠다.

삼월은 대지로 나선다. 무채색이던 세상에 연두색 점들이 찍히고 딱딱했던 마음의 빗장이 풀린다. 봄기운이 방 안을 채울 때, 마

음의 환기도 함께 이루어진다. 나는 과거 무거운 외투를 벗어 버리고 가벼운 걸음으로 미래를 향해 걸어가라고 손짓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은 이미 요동치며 나라는 나무에도 푸른 잎이 돌아날 것이다. 3월은 끝이 아니며, 정지가 아니라 시작이다. 찬란한 슬픔의 봄이 오기 전 가장 순수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계절. 오늘도 그 투박하고 따뜻한 삶의 형상을 닮아보려 노력한다. 거친 땅을 뚫고 올라오는 연약한 초록의 힘으로 다시 나의 생명을 밀어 올려 본다.

## 드로아의 밤을 묵상하다

명 인 속

상큼한 초록 숲이 산을 덮고 있다. 한 점 티 없이 맑게 살아온 사람, 오직 주의 인도를 따라 충충히 걸어온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만 같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서 살아간다. 어떤 것은 내가 의도한 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갈 때도 있다.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면 우리는 성공했다고 만족해한다. 백세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내가 세운 계획들이 과연 멀리 앞을 내다보고 제대로 한 것일까?



| 명인속 |

- 2010년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백일장 장원(수필)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문학중심작가회, (사)부산문인협회 회원.
- 한국해양문학상 최우수상.
- 시집 『오래된 길을 걸으며』
- 수필집 『가벼움으로 가는 길』
- 해유대 미래교회 권사

아니면 협소한 안목과 미약한 정보를 바탕으로 치밀하지 못하게 세운 것일까? 자신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판단의 결과는 전적으로 자신의 몫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실패의 쓴맛은 오랫동안 가슴에 남는다. 반대로 성공을 하게 되면 그 기쁨의 희열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남들에게 자랑도 하면서 우쭐대는 자신감이 생긴다. 그리고 실패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난다. 무덤덤하게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 두 번의 실패는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다시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 성공과 실패는 ‘도전’을 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얻는 면류관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실패도 성공도 소중한 결과물이 되는 것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성경 사도행전(16장 6절~1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사도바울은 2차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아시아로 건너가기 위해 많은 애를 썼지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 사도바울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았기에 날씨가 좋지 않았거나 일행 중에 환자가 발생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된다.

아시아는 사도바울에게 익숙한 환경일 것이다. 소아시아에서 계속 전도를 하고 있었으니 좀 더 나아가 아시아에서 전도 활동을 하려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원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도바울이 아시아로 건너가기

위해 드로아에 도착한 날 밤에 환상(꿈)을 보여 주신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사도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이 환상을 본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바로 출발하여 빌립보 성에 다다르게 된다. 유럽 선교가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사도바울이 가려고 계획한 ‘아시아’는 익숙함의 안주일까? 실패의 아이콘일까.

사도바울이 익숙한 환경인 아시아에서 전도 활동을 하려는 계획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기에 몇 번의 실패를 하면서도 아시아로 건너가기 위해 애를 쓴 것을 보면 사도바울의 계획은 확실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는 환상을 본 후에 자신의 계획을 바로 수정하고 낯선 지방인 유럽을 향해 전도의 길을 떠나는 모습이 감동으로 다가왔다. 좀 더 넓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유럽을 택함으로 말쑤이 전 세계로 빠르게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나의 ‘아시아’는 어떤 것이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 내 생각과 소견에 따라 가고자, 또는 하고자 했던 ‘아시아’들과 소원했던 기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나야말로 죄인 중 죄인이 아닌가 하는 죄스러움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 다가올 가혹한 고통을 아시기에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달라고 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기도하셨다. 겿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절절한 기도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숙연해지면서 나의 신앙

생활을 반성하게 된다.

내가 처음 부산에 와서 코로나19 팬데믹 전까지 40년이 넘게 섬겨왔던 교회가 있었다. 예방약이 없는 생소한 전염병은 빠른 속도로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을 사망하게 했다. 전염병 예방의 첫 번째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이다. 성당이나 교회들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각자 집에서 화상으로 진행했다. 거의 일 년 만에 긴급하게 연구 개발한 백신들이 나오긴 했으나 수량이 한정적이었고 전염병의 기세는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섬기던 교회가 매도되었고 다른 곳으로 교회를 옮겼다. 이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지만 그 무렵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진 나는 병원 입원 생활을 해야 했고 교회 일에 관여할 여력이 없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 갈급함이 쌓여갈 때 새벽기도를 드리려고 교회가 이사한 곳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었다. 그러나 예배실 문 앞에 서니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해운대 언덕의 카페를 매입하여 십자가를 세운 새 교회는 예전의 교회가 아니었다. 낯설고 어색했다. 교회가 아니라 정말 카페처럼 보였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몇 년 만에 예배드리러 온 것에 감사의 눈물이었는지 알 수 없는 눈물이 나서 그냥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 다음부터 교회에 가지 않았고 분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답을 구했다.

팬데믹에서 앤데믹을 선포하기까지 3년여의 세월이 흘러갔다. 팬데믹 기간 3년은 우리들의 일상을 많이 바꾸어 놓았다. 마트나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것을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 주문하면 다음 날이나 빠를 때는 오전에 주문하고 오후에 받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배달이 일상이 되었고 꼭 필요한 일에만 사람을 대면하게 되었다. 교회들이 예배를 회복해 갔으나 예전처럼 모이지 않는다고들 했다.

그렇게 주일예배를 못 드리는 현실에 익숙해질 무렵이었다. 우연히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교회를 발견했다. 새벽기도에 나갔다. 목사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단비를 내려주었다. 매일 새벽기도를 드렸다. 그러다가 주일예배에도 참석했다. 몇 년 만에 드리는 주일예배였는지 모른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리에 있다는 것이 감격하여 눈물이 났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주일예배를 드렸다. 집에서 TV로 드리는 예배에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날마다 즐거운 찬양을 들으며 차츰 건강도 회복되었다.

사도바울의 아시아 전도를 유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새로운 신앙의 길을 열어 주신 것 같았다. 비록 규모는 작은 교회이지만 설교 말씀의 은혜와 성도들 간의 사랑과 헌신은 결코 작지 않았다. 그동안 교회를 가지 않았던 남편도 나섰다. 목사님 말씀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주일예배에 빠지지 않는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고 기쁨이 충만한 탓이다.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만 해도 감사가 흘러넘치는데 남편이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자 은혜 홍수를 만난 것만 같다.

드로아의 밤에 환상으로 사도바울의 아시아 전도계획을 유럽으로 돌리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신앙의 길(교회)을 열어주신 것이었다. 사도행전 16장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 된 것은 축복이다. 나의 여생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삶이되기를 소망한다.

봄이 가고 있다. 이제 땀을 흘리는 여름이 시작될 것이다. 일 년 농사는 땀 흘리는 여름에 성장한다. 나의 신앙도 땀 흘리는 여름을 살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 북한 방문 증명서

박 희 두

책상 위에 통일부가 발행한 방문증명서가 작은 신분증 모양으로 놓여 있다. 발행한 날자가 2005년 12월 5일이며 북한의 개성 방문을 허락한다는 정부의 증명서였다.

방문 목적은 개성시 축구공 전달이라고 되어 있다.

나는 부산YMCA 활동에 봉사한 일 있다. 당시에 김해에서 중국 민항기가 김해공항에 착륙하다가 인근의 산에 추락해서 많은 사상자를 낸 대형 인명사고가 있었다. 그때 우리는 의료구조 봉사단체를 조직해서 활동해야 하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의료봉사 단체를 조직하였다. 그 단체가 YMCA Green Doctors라는 의료



| 박희두 |

- 1997년 월간 《문예사조》 수필 등단
- 대연교회 장로
- 부산성소병원장
- 수필집 『사과나무 과수원과 아이들』

봉사단체였다.

내가 단체의 대표를 맡았고 정근 원장이 총무를 맡아 조직을 구성하여 창립총회를 거창하게 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많은 의료 봉사활동을 하였다. 중국의 상해 부근 시골 마을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도 가고 우루무치에 가고 또 멀리 인도의 남쪽 케랄라 지방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 그리고 북한의 개성공단이 시작되는데 개성공단의 의료지원 봉사단체로 우리 그린닥터스 봉사단체가 의료봉사 지정을 받게 되었다.

북한의 개성에 허허벌판의 땅을 고르고 흙먼지가 날리는 날 우리는 개성공단의 들판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다. 백양로 교회 신동작 목사님이 함께하셔서 북한 땅에서 간절한 기도를 해주셨다.

그리고 우리 그린닥터스 의료봉사단체는 북한 땅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시작하였다. 환자 진료는 물론이고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 등을 보내고 인도에서 봉사하고 있던 경북의대 출신의 김정룡 의사선생을 개성으로 보내어 개성공단에서 상주하며 진료를 하게 하였다. 또한 앰불런스 차량 한 대를 구입하여 개성공단으로 올려 보냈다. 우리는 이 차량을 통일 앰불런스라고 불렀다. 그 후에 북한측에서도 구급차를 원하여 부산의 여러 교회들로부터 협조를 받아 구급차를 하나 더 구입하여 북한 측으로 보냈다.

우리가 개성공단을 오가며 봉사한 때가 2002년 가을부터 2010년까지 수년간 봉사를 지속했다. 우리는 2005년에 북한의 어린이

들에게 축구공을 보내기로 하고 예산을 모아 축구공 500개를 준비하여 차에 싣고 개성에 올라갔다. 때마침 북한에서도 평양에서 높은 분이 개성으로 내려왔는데 박철수라는 분이였다. 인사를 나누었는데 인품이 좋아 보였다.

언젠가 우리나라 중앙언론에도 나온 인사였다. 그런데 우리 봉사단체가 재정적 능력껏 축구공 500개를 구입하여 북한의 어린 학생들에게 좋은일 한다고 보냈는데 북한에서는 감사한 내색은 보이지 않았다. 가난하게 사시는 북한 사람들이 오히려 욕심이 더 많으신지 고마운 느낌이 별로 없다.

체제가 다른 북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국가에서 공급하는 체제 때문인지 우리가 애써 준비한 축구공 선물에 고마움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들의 대답은 축구공 500개가 너무 작다고 하며 북한에 학생들이 많은데 이 보다 두 배로 천 개를 가져오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더 하는 말이 부산에 가면 바다에 배가 많다는데 그 배를 한 척 가져오라는 것이다. 가만히 보니 농담도 아니었다. 공산당의 북한 체제는 감사나 고마움을 모르는 체제였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개성에 봉사활동을 했고 정부의 협조도 이루어 냈다.

통일부 내에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조직되고 위원장님이 차관급으로 경남고 출신의 부산분이라 협조가 잘되어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받아 개성공단 내에 길다란 건물을 하나 지었다. 시골의 초등학교 건물같이 기다란 건물인데 이 건물의 1/3은 우리단체가 사용하고 또 1/3은 북한 측이 사용하고中间的 1/3에는 검사기기 액

스레이 등 병원의 시설을 만들어 남북한이 같이 쓰기로 하였다. 그런데 저들은 공동시설을 함께 쓰지 않고 북한 측의 1/3 공간에서 의료활동은 하고 있었다.

저들 북한 의사들은 주로 산부인과 소파수술을 많이 하고 있었다. 여성근로자 대부분이 가임여성들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의사들은 북한에서 존경하는 가치관이 남측하고 다르다. 남한에서 자동차 정비공장의 기사나 엔지니어 정도로 보며 그들의 체제에서는 공산당원이나 간부가 역시 최고였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근무하였는데 개성시 내에서 개성공단으로 출퇴근하는 대형버스가 수십 대가 넘었다. 그들로 노력으로 인해 많은 인건비가 남측에서 북한 측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많은 북한의 젊은 여성들에게는 낯은 아이들이 있다. 특히 젖을 먹는 영아들을 한자리에 모아 아기들이 누워있는 영아 실에 가 보았다. 한 살 미만의 젖을 먹는 영아들이 열 명씩 누워있는데 어머니가 와서 젖먹이는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영아가 무려 600명이 한 공간에 누워있는데 들어가니 어찌 그리 향기롭지 않은 냄새가 많이 나는지 말도 못하고 참기가 힘들었다.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서 냄새가 나는데 북한 안내인은 잘 모르고 있다. 어머니가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 아이들의 영양상태도 좋지 않았다.

개성은 지정학적으로 참 잘 생긴 도시였다. 서울을 닮았다. 그래서 고려왕조를 지킨 도시다. 개성의 북쪽으로 송학산이 누워있는

데 아기를 임신하여 만삭이 된 여성의 배 모양이다. 서울의 북악산 모양으로 개성도 바위산이 많아 서울과 닮은 모습의 아름다운 도시다.

개성은 서울에서 멀지 않다. 판문점을 지나 남방한계선을 지나고 북방한계선을 지나면 곧 바로 개성이 보인다. 그리고 개성에서 다시 남쪽으로 돌아올 때 표시판에 서울까지 45Km이다. 부산에서 마산까지 거리다.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 20년 전의 일이지만 당시 개성의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아있다. 통일부에서 발급받은 방문증명서 하나가 지금도 나의 진료실 책상 위에 있으며 옛날의 기억 들을 돌이켜 보게 한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루속히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남북통일이 되어 자유롭게 왕래할 때 다시 개성을 방문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 명주 오빠

-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고 -

변 순 희

어릴 때에 키 크고 잘 생긴 오빠가 참 좋았다. 친 오빠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욱 따랐지만 오빠는 과묵하여 정을 주지 않았다. 오빠와 나는 고종사촌 간이다.

오빠는 우리 집에서 고교 3년간을 보냈다. 고모집이 시골이어서 공부를 위해 우리 집에서 하숙을 했다. 내가 보낸 관심에 비해 오빠는 늘 본체만체 하였다. 오빠의 집은 아버지의 고향인 거창군 신원면이다. 신원 양민 학살사건이 일어난 곳이다. 그 사건이 있던 날 오빠가 태어났다는 걸 늦게야 알았다.

1951월 2월 6일, 전쟁 중인 대한민국에서 군인들이 신원 대현리



| 변순희 |

- 2010년 《문학도시》 등단
- (사)부산문인협회, 부산동서문학회, 부산크리스천문학회 회원
- 저서 『저고리를 짓는 마음』
- 공저 『love, 부산』

고모집 동네에 들이닥쳤다. 1·4 후퇴로 북으로 올라가려던 공산당원들이 인천상륙작전으로 북에서 오는 보급로가 끊겨서 산으로 올라갔다. 추운 산골짜에서 견디기 힘이 드니 인접 산골마을에 충을 들이대고 밥과 반찬이며 가축과 옷이며 이불이며 다 가져갔다고 했다. 밤이면 빨갱이들이 내려와 위협을 하였고 낮이면 군이나 경찰들이 닦달을 했던 때였다.

국군 11연대 8대대 군인 수백 명이 리 단위의 3개 마을에 뒤져 마을 사람 모두를 빨갱이와 접촉한 통비분자라 하여 소개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마을에 불을 질렀다. 마을 사람 모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국군의 시퍼런 서슬에 살던 집을 떠나 신원초등학교에 갇혀서 신분 조사를 받아야 했다.

억지 춘향격으로 신원면장 입회 아래 군경가족과 공무원 가족을 골라내었다. 나머지 사람 719명을 공산당원과 접선하여 도움을 준 사람들이라 하여 공산당을 척결한다는 명목으로 인근 골짜기에 데려가 집단사살을 했다.

인근 박산골에 데려가 총으로 쏘 죽인 하루 전날 밤 이었다. 고모인 변재순 씨가 임신으로 산달인 그날 밤 자식의 용틀임으로 배를 잡고 뒹굴었다. 충을 대고 위협하던 군인이 상부에 보고를 하고 고모네 가족을 학교숙직실에서 아기를 낳도록 허락했다. 오빠는 거기서 태어났고 생명이 명주실보다 강하고 길다고 주자 향렬에 맞추어서 명주라는 이름을 얻었다.

얼마 전에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란 책을 읽었다. 제주도에 서는 1947년 3·1을 기점으로 1948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 서 발

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7~8만 명의 주민들이 희생당했던 사건이다. 그 속에 1948년 제주 4·3 사건이 있었고 연루된 인선의 아버지가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가 석방되었다. 그래도 주변의 눈길이 무서워서 집에 오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객지를 떠돌다가 몇 십 년이 지나 정권이 바뀐 뒤에야 집으로 돌아온 인선의 아버지, 그 사건의 당사자인 자식의 입으로 나온 글이었다.

8.15 해방 뒤 정부가 세워지면서 어수선했던 정국을 따라 1948~1949년 사이에 정부에서 좌익전향자를 계몽,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보도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검, 경간부들이 주도하여 각 이장 통장을 내 세워 할당된 인원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입시켰다. 인원을 채우기 위하여 어린애, 집안 식구 전체, 청소년도 있었고 북한의 강연을 한번 들었다는 이유로 보도연맹에 다 넣었다고 한다. 1950년 6·25사변이 일어나자 7월 8월 즈음에 예비검속이라 하여 모두 검거하여 재판도 없이 좌익단체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재판도 없이 모두 죽었다.

제주도에서도 해안을 봉쇄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총살을 당해야 했고 암매장 당한 숫자가 전국적으로는 삼십만 명이나 되었다. 1960년 4·19가 일어나 군부세력이 물러간 후에서야 유해를 찾을 수 있었고 그때 돌아가신 식구들의 행방을 말할 수도 있었다고 했다. 제주공항 공사하느라 파헤쳐진 곳에서도 경산 코발트 광산 및 인근 가창골에서도 학살자 유해수습 발굴을 했다. 남한 전체 곳곳에서 보도연맹에 가입한 남녀노소를 학교 교실에 수용하였다가 인근 밭, 강이나 바다, 골짜기로 데려가서 처형을 하고 모래밭에

죽여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며 깨끗하게 쓸어 갔다고 했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유엔군이 들어와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야 남로당을 주축으로 한 무장토벌대의 살육이 금지되었다고 했다.

적국이 아닌 자국의 백성이 자국의 국민을 사살한 사건이었고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원한이 사무쳐 지금까지 발굴하고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건 사건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목을 달고 우리 앞에서 써 내려가고 것이다. 제주 4·3 사건을 보면서 오빠를 떠 올린 것은 사건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천에 한명, 만에 한명이 있을까 말까하는 큰 은혜를 입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오빠가 태어난 후 가족들은 인근지역으로 잠시 몸을 피했다가 마을에 들어가 이웃의 가족과 논과 밭을 수습하여 한날한시에 모여 제사를 지냈다. 얼마 후 서울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오빠를 만날 일이 별로 없었다. 최근에 신원면에는 현장을 발굴하여 큰 뼈는 남자 묘, 작은 것은 여자 묘, 더욱 자잘한 것은 어린이묘로 만들어 기리고 있다. 6·25 사건이 지난 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오빠는 대학을 졸업하고 S그룹의 부장으로 지내다가 은퇴를 하였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명주실보다 단단하고 야물다는 이름을 얻었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번 씩 소환되는 역사적인 이름이 되었다.

김원일 씨가 ‘겨울 골짜기’ 1, 2권으로 책을 내었기에 읽어보니 거기에도 오빠의 이름이 나왔다. 그 지역 사람 외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은 듯한 이 사건이 우리나라 곳곳에 스며있을 것이다. 역사

가 긴 나라일수록 사건도 많고 피명을 자국이 땅속 깊이 스며있을 것이다. 우리는 오래된 역사의 흔적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눈매가 순하고 말을 아꼈던 오빠는 지난번 고모가 돌아가셔서 가보니 여전히 담담하게 대했다. 태어나면서 부터의 마음의 상처가 많아 보였다. 그래도 내 중학교 시절이 떠올라 추억에 잠긴다.

‘겨울골짜기’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 속에 희생된 선한 인간의 삶을 통해 전쟁의 비극과 휴머니즘을 탐구하는 반전소설로서 그 가운데 살아남은 오빠의 가정사는 역사의 한 줄기이며 애환이다. 전쟁 속에서 피어난 인간애의 한 단면일 수도 있고 아슬아슬했던 순간에 일어난 극적인 사건이기도 했다.

제주도 4·3 사건이나 거창 양민학살사건 등은 역사의 흐름 속에 한 축을 이루었고 지금도 그 시간은 한 많은 민족의 큰 명분이 되어 가슴 아프게 전해 내려오고 있다. 한강의 제주 4·3 사건을 다시 조명하게 만든 공신이며 시대의 사명을 간직한 작가이며 이 작품으로 인하여 다시 역사의식을 가지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주인공 인선은 말한다.

우리는 아직 역사와 작별인사만 하지 않는 거야, 정말 작별하지 않는 거야? 완성되지 않는 거야, 작별이? 미루는 거야 작별을? 기한 없이? 피로 얼룩진 역사를 잊어서도 안 되고 잊혀 저서도 안 된다고 저자는 말하는 듯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는 상상도 하기 싫다. 참전용사인 아버지는 생전에 말씀하셨다.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살고 싶지 않다고, 너무 징글징글하고 끔찍해서 다시 말하기 싫다고 치를

떨었다. 그러나 지금도 세계의 여러 곳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참상을 보고 들으며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책에서 이야기 해 주고 있는 것이다.

## 누수가 만들어 준 텃밭

성 윤 자

아침에 화장실 문을 열었다. 갑자기 욕실 천장에서 물이 머리 위로 똑똑 떨어졌다. 오물 냄새가 진동했다. 아파트 13층은 우리 부부가, 14층에는 과거 건축 일을 하던 노부부가 살았다.

처음에는 위층에서 스며드는 물인 줄 알고 14층으로 뛰어 올라가 알렸다. 살펴보니 누수의 원인은 위층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아파트 신축 공사할 때 잘못 연결된 하수관이 그 원인이었다. 처음부터 어긋난 하수관이 아파트가 점점 노후 되면서 하수관에 틈이 생겨 누수가 시작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14층 세대주는 우리 집의 불편을 털어 주겠다고 하루



| 성윤자 |

- 2003년 《한맥문학》(시), 2016년 《문학도시》 소설, 2017년 《부산크리스천문학》 수필 당선.
- 시집 『옛집에서의 하루』 외 4권
- 수필집 『이파리들의 행진』

에도 몇 차례씩 위아래를 오르내리며 욕실 천장을 부수고 수리했다. 재료비용이 크게 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워낙 협소한 화장실 천장이고 깊숙한 곳에 연결된 하수관이라 공사는 쉽지 않았다.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공사는 오랫동안 이어졌다. 공사 동안 14층 이웃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자주 이루어졌다. 형님 아우 사이가 되어 식사 시간에 서로 집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외식도 여행도 종종 같이했다.

그분들은 가까운 곳에 텃밭을 가지고 있었다. 누수 이후부터는 거기서 생산하는 모든 채소를 우리 집과 나누어 먹었다. 호박을 가져오면 호박전을 부치고 가지를 받으면 가지 요리를 해서 위층으로 가져다주었다. 그렇게 아래윗집은 먹거리 사랑이 이어졌다.

하루는 14층에서 나를 텃밭에 초대했다. 텃밭은 오갈피나무, 매실나무, 살구나무, 가죽나무, 감나무가 푸른 숲을 이루는 농장 안에 있었다. 약 200평 정도나 되는 농장이니 각종 나무가 우거져도 텃밭은 꽤 넓었다. 그 후로 시간만 있으면 농장으로 놀러 가서 잡초도 뽑아 주며 밭일을 도왔다.

그날도 신나게 밭일을 돕고 있었다. 14층 바깥어른이 포슬포슬한 밭이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뭐 좀 심어 보소.”

“아유, 텃밭을 주신다면, 정말 고맙지요.”

그렇게 나도 도시농부가 되었다. 여섯 해 동안이나 고구마를 비롯한 다양한 작물을 심어 수확의 기쁨을 누렸다. 시골에서 자랐지만 도시로 와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어딘가 채워지지 않던 것이 날

마다 소복소복 쌓이는 기분이 들었다. 생명을 키우는 농부로 살면서 풍성한 삶의 행복을 거둬들인 귀한 시절이었다.

그 후 몇 번이나 집을 옮겼지만 지금도 그분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도시농부가 되어 풍성한 작물을 수확해 본 것도 아파트 벽이 삼천리라는 그 벽을 허물어 버린 것도 순전히 누수가 이어준 덕분이다.

## 코에 불어 넣어진 창조의 숨결

산돌 윤 평 원

창세기는 인간 창조의 순간을 독특하게 기록한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는 구절은 단순한 생물학적 탄생을 넘어선다.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네 사마’인데,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창조주의 영적 본질이 인간 안에 들어간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표지다. 다른 피조물들은 “종류대로” 창조되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숨결을 받으며 창조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 숨결 속에 예술의 씨앗이 담겨 있다.



| 윤평원 |

- 온천교회 원로장로, 부경기독교역사연구회지도위원
- 시 『은혜의 품에 안겨』
- 시조 『정감이 묻어나면』 『아무렴, 감사하지요』
- 수필 『석동무늬 인생』 『이런 교회가 있었네』 『나이야 가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은 종종 환경 파괴의 근거로 오해받아 왔다. 하지만 히브리어 ‘라다’(다스리다)와 ‘카바쉬’(정복하다)는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듯,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하는 창조적 청지기 정신을 담고 있다. 단순한 지배가 아니라 가꾸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는 예술 창작의 본질과 정확히 일치한다. 시인은 언어라는 재료를 다스려 새로운 의미의 세계를 창조한다.

“그 이름은 연인가”라고 묻는 시인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시>

그 이름은 연(鸛)인가

그 이름은 연인가

얼레 풀려

하늘 끝 아련히 가물거리더니

얼레 줄 감아 보면

잡힐 듯 다가온다

그 이름은 두레박인가

추억의 샘물 길어 들여다보면

소복이 담겨진 그리움이여

눈을 감아도

귀를 막아도

술한 몸짓으로 속삭이는 사연들

켜켜히 쌓여 가는

정분인데

세월로 덮는다고

묻힐 리야

— “은혜의 품에 안겨” p120.

연鶯은 얼레 줄에 매여 있지만 하늘 끝까지 날아간다. 얼레를 풀면 아련히 가물거리고, 줄을 감으면 다시 가까이 온다. 시인은 언어라는 얼레 줄로 아득한 감정과 기억을 다스린다. 멀리 보냈다가 다시 불러들이며, 보이지 않는 것을 가시可視적 언어로 포착한다.

화가는 색과 형태를 정복하여 보이지 않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작곡가는 소리를 다스려 침묵 속에 숨어 있던 감정을 해방시킨다. 그들은 모두 주어진 세계의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부창조자’(sub-creator)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인간 예술가는 다르다.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것들—언어, 색채, 소리, 형태—을 재료로 삼는다. 시인이 “두레박”으로 “추억의 샘물”을 길어 올리듯, 예술가는 이미 존재하는 경험과 기억이라는 우물에서 창작의 재료를 길어 올린다.

하지만 여기에 바로 인간 창조성의 아름다움이 있다. 두레박에 “소복이 담겨진 그리움”은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 감정이지만, 시인이 길어 올려 언어로 담아낼 때 그것은 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로 태어난다. “눈을 감아도 귀를 막아도 술한 몸짓으로 속삭이는 사연들”—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온갖 감각과 이미지로 전달하는 것, 이것이 예술이 하는 일이다.

제한된 재료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미 있던 것들의 새로운 조합으로 전에 없던 세계를 열어 보이는 것.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코에 붙어 넣어진 그 ‘생기’ 때문이다. 그 숨결은 우리

에게 단순히 생명만 준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창조성 일부를 선물로 준 것이다.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은 지배가 아니라 책임이다. 정원을 맡은 아담처럼, 예술가는 자신이 다루는 재료와 주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리고 그 재료 중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이 시간과 기억이다.

“켜켜이 쌓여 가는 정분인데 세월로 덮는다고 묻힐 리야”-시인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것, 세월이 묻을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증언한다. 이것이 바로 예술가가 시간을 다스리는 방식이다. 물리적 시간은 모든 것을 지우지만, 예술은 흘러간 순간을 건져 올려 영원 속에 보존한다.

좋은 예술은 세계를 착취하지 않고 계시한다.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드러낸다. 이 시가 그러하듯, 연鵲의 이미지와 두레박의 이미지를 통해 그리움과 기억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인간을 대상화하지 않고 존엄을 회복시킨다.

문학이 인간 영혼의 깊이를 탐구할 때, 미술이 보이는 것 너머의 진실을 포착할 때, 음악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울려 퍼지게 할 때, 우리는 창조주가 인간에게 맡긴 그 청지기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이다.

결국 예술 창작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 있다는 증거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행동하지만,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실용성을 넘어 의미를 찾고, 기능을 넘어 아름다움을 창조한다.

연을 만들어 하늘에 띄우는 행위를 생각해 보라. 생존에 전혀 필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인간은 종이와 대나무로 연을 만들고, 실

에 매어 하늘로 날린다. 그리고 그 연이 “하늘 끝 아련히 가물거리”는 것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느낀다. 닿을 수 없는 것을 향한 동경(憧憬), 붙잡고 싶지만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애뜻함. 이것은 우리가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는 표지다.

시인이 추억의 샘물을 길어 올리고, 그 안에 담긴 그리움을 들여다보며, “눈을 감아도 귀를 막아도” 들려오는 사연들을 언어로 옮기는 행위—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불어 넣어진 창조주의 숨결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다.

예술가가 작품을 완성하고 “좋았더라”고 말할 때, 그것은 창조주가 자신의 창조를 보며 하셨던 그 선언의 올림이다. 불완전하고 제한적이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불어 넣어진 그 숨결로 계속 창조한다. “켜켜히 쌓여 가는” 창조의 역사,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자 사명이다.

코에 불어 넣어진 생기는 우리를 살게 했을 뿐 아니라, 창조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창조를 통해—연을 날리듯, 두레박으로 기억을 길어 올리듯—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분의 형상을 조금이나마 반영한다. 세월로 덮는다고 묻히지 않는 그 무엇, 바로 그것이 예술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생기의 흔적이 아니겠는가.

#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전 섭 태

나이가 들면서 이전에 어떠한 일상으로 살아왔는가를 뒤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고민에 자주 빠진다. 젊은 날에는 개인마다 직장생활이던 개인사업을 하던, 일에 매여 일상의 삶이란 것이 앞만 보고 달려왔었다. 조금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쉬든지 아니면 여가 활용으로 문화생활이나 여행 등으로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의 직분에 매여 공동체의 카테고리 안에서 구성원으로 주어진 임무로 열심히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일과 직위에서 벗어나 주어진 책무 없이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믿음의 친구(중·고등학교 동기 신우



| 전섭태 |

- 부경대학교 경영학 박사, 희곡 『가면을 쓴 가족』 등단.
- 토요일단 약 15년 동안 경성대에서 정기공연 함.
- (사)부산문인협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 희곡작업 ; 정극, 인형극, 뮤지컬창작, 방송스킷드라마극

회)들과 만나서 서로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지나간 세월 동안의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보냈을까?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서로 공감하게 되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을 열심히 돌아보았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음을 후회하게 되었고, 또한 일에 매여 교회 커리큘럼에 매여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보낸 세월의 뒤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회의가 들기도 한다.

주일 본 교회 예배를 위하여 서울에 근무하는 성도님이 비행기를 타고 매주 내려온다는 것을 자랑으로 얘기하시는 부흥강사님이나 헌신예배 강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날들을 회상해본다. 또한 주일하루 온전히 본 교회 예배를 위하여, 형제 친지의 관혼상제는 모두 외면하고 등지고 살아온 날들이 후회가 되기도 한다. 그런 세월의 뒤에 이제 일가친지의 가까운 형제가 믿음의 반열에 있지 못한 상황을 보면서, 이제야 나이 들고 고착화된 저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이 미안하고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현실을 보면서, 우리들은 주일의 개념을 어떻게 보냈는지 후회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 돌이켜 후배들에게는 처한 곳에서 예배드리기도 하면서 이웃과 친구와 형제자매를 돌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더욱 보람된 신앙생활이 아닌가 하고 가르치고 싶다.

또한 지난날 현실을 외면하면서 교회생활만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세월을 보낸 것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든다. 기독교인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상식과 공정과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되

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은 왜일인가?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상식과 공정과 정의와 법치를 외치지 못하고 권력에 아부하면서 현실의 안락과 권력으로부터의 보호와 위력을 맛보고 부리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목회자들과 정치인들이 교회(신앙)와 정치는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치가 세상을 추하고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데도 전혀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부끄럽기도 하다. 중국에는 국가가 정치적인 편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회와 종교인들을 합법적으로 억압하는 법률이 만들어져도, 즉 종교의 자유가 위축되는 상황이 와도 그냥 받아들이고 권위와 왕에게 순종하여야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교육자들의 가르침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 틈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의문의 함정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 독일이 종교개혁의 본산지임에도 불구하고 1-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수천만의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무슨 일인가? 그렇게 신앙의 참 자유와 성경말씀의 진리를 고수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시도하고 따랐던 그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 무엇을 하였던 것인가? 1-2차 세계대전을 묵인하고 도왔던 그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였단 말인가. 아마도 그들은 정치와 종교는 별도로 분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되고 기도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교인들에게 주입시키면서 교회를 운영하였을 것이다. 당시 역사적인 사

실을 알아보자.

첫째, 독일의 종교개혁(Reformation)은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가 1517년 10월 31일에 시작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해, 로마 가톨릭교회의 면죄부 판매와 부패한 교권 체계를 비판했다. 이 사건으로 유럽 전역 교회에서 개혁운동이 확산되어 개신교(프로테스탄트)가 탄생했다.

둘째, 제1차 대전인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 세르비아 전쟁이 발발하여 유럽 전체로 확산(1918년 11월 11일 종전)되었다. 기독교계 각국의 교회들은 대부분 자국 정부를 지지했다. 독일의 루터교와 영국의 성공회, 프랑스의 가톨릭교회 모두 애국주의적 설교를 통해 전쟁 참여를 정당화했다. 일부 신학자들은 전쟁을 지지하는 교회의 태도를 비판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국가 이데올로기를 구분하고 주장했다. 이것이 신정통주의 출발점이 되었다.

셋째, 제2차 세계대전인 1939년 9월 1일(독일의 폴란드 침공) ~ 1945년 9월 2일(일본의 항복). 나치 독일에서는 일부 교회가 히틀러에 협력했다. 이를 “독일기독교운동”이라 부르며, 나치의 인종 이념을 신학에 끌어들이었다. 그러나 “고백교회”는 저항했다.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같은 신학자들이 전체주의를 비판하다가 옥중에서 순교했다. 전쟁 후 기독교는 회개와 신학적 성찰을 시작했고, 인권·평화 중심의 신학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종교개혁은 교회의 부패에 대한 신앙적 저항이었다면, 두 차례 세계대전은 교회가 정치권력과 신앙 사이의 긴장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다시 묻게 한 사건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접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기복신앙에 매여 살아오고 있었는지, 돌이켜보면 저 자신부터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사실이다. 세상을 비판하고 짜증을 내 보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왔음을 어떻게 하겠는가?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 믿음의 정체성을 잘 들어내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상적인 삶의 형태가 교회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만 짜여진 커리큘럼에 의하여 움직이고 시간을 보내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세상을 향한 자신들의 생각마저도 더 이상의 바깥세상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라고 생각을 굳힌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일례로 지난번 원고에서 언급하였듯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의 원인과 그러한 사건들의 역사적 배경이나 그러한 사건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깊이 있는 고찰을 외면하고 그냥 사건의 진행 과정이 주는 감정에 치우쳐 가볍게 판단하고 이를 아름다운 문장과 미려한 수사만으로 문학적인 평가의 기준을 삼아 글을 쓰고 있다면 우리들의 행위를 한번 쯤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끊임없는 고민과 토론과 대화로 세상과 상대방의 생각과 서로 소통하면서 그러한 깊은 성찰의 결과를 글로 표현해야 할 것이다. 즉 우리의 정체성을 성경 말씀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 문인들이 다른 세상의 문인들과의 차별화된 삶일 것이다.

# 모든 것이

전진경

봄이 온 것 같은데 정신을 차려보니 벌써 봄은 거의 다 지나가고 초여름이 온 것 같다. 방안 소파 위에는 아직 옷걸이에 걸지 않은 초봄 옷 들이 뭉툭뭉툭 쌓여 있다. 허리가 아파 이 옷 저 옷 그날의 날씨 따라 또 그날 모임에 따라 걸치던 옷들을 입고 나선 옷걸이에 걸지 못해서다. 딸과 며느리가 와서 옷 정리를 하고 걸어 줄려고 하지만 내가 반대다. 내 옷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빨리 갈 아입지 다른 사람이 내 옷을 정리하면 당 사자인 내가 모르면 어찌 나 싶어 한사코 말린다. 이렇게 살다보니 내 방은 정리 정돈이 하나도 안 된 정신없는 노인이 살고 있는 어지러진 방이다.



| 전진경 |

- 2001년 《문학과예술》 등단
- 모시울, 부산수필,(사) 부산문인협회, 새시대문학,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 부산진구청명예술학교장, 부전교회 은퇴권사

약 사십 평 이층 방을 사무실로 세를 주다가 우리도 좀 넓게 멋지게 방을 꾸며 살아 보자고 남편이 먼저 제의했다. 교회 인테리어 업자가 와서 보더니 방 하나는 너무 넓다며 아늑하게 꾸며 주겠다고 했다. 믿고 맡겼더니 원래 벽에다 이십 센티 정도의 나무를 방 전체에 박고 거기에 도배도 할 필요 없는 합판을 두르니 방이 좀 작아진 것 같았다. 새로 싹 꾸미는 데 많은 돈을 들였다. 그때는 몰랐다. 피아노를 넣고 침대를 넣고 자개놓을 몇 개나 넣고 책상에도 책장을 넣고 큰 소파를 넣으니 방이 꽤 괜찮아 보였다. 원래 주택으로 쓰던 삼층과 사층을 비우고 이방에서 살다보니 냉장고도 필요하고 찬장도 필요했다. 넓게 보이고 멋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한 십년은 이방에만 들어오면 다른 방에 갈 필요가 없으니까 참 편하다고 생각했다.

남편도 가고 내 나이가 팔십 줄에 들어서니 이 방이 지저분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내 옷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또 책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몸이 가볍게 움직여지고 싹싹 치우며 살 때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그러나 팔십 줄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양쪽 엉덩이 밑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 지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몸이 아프리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평생을 살아도 몸이 약해 아파본 기억은 없다. 여북했으면 남편이 살았을 때 아이들에게 ‘너그 엄마는 소다 소’ 했을까. 몸이 찌부둥 하면 한숨 자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했으니까. 사실 지금 따지고 보면 현재의 내 나이만큼 산 친척은 시어머님 빼곤 아무도 없다. 남편이 육남매의 막내였는데 전부 다 가고 나 혼자 남았다.

친정에도 마찬 가지다. 전부다 가고 열 살 밑의 여동생과 나 뿐이다. 따지고 보면 나도 오래 산 셈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늙었다고 생각해 보지 못했다. 몸이 아프니까 이제야 내 나이를 가늠하게 된다. 몸도 마음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아플까? 스스로도 의문이 되어 병원에 갔더니 협착증 이라고 했다. 그게 무엇이나고 물었더니 몸이 너무 편해 엉덩이 근육이 빠져서 그렇다며 아플 때 마다 먹으라며 알약이 두알 들어있는 약 봉지를 서른 개를 주었다. 그리곤 의자를 두 개 가져다 놓고 양손으로 꼭 잡고 뒷다리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을 하루 만개씩 하란다. 내 참기가 막혀서. 이렇게 서서히 늙는다고 했다. 몸이 늙는다고 한다. 의자도 새로 두 개 사고 의사 선생님 시키는 대로 몸을 일으키며 뒷다리를 까딱까딱 하고 있다. 지팡이도 샀다. 그리고 보니 나는 할머니 중에 할머니다. 그러나 남들은 내 얼굴이 칠십대로 보인다고 가만 앉아 계시면 절대 할머니로 안 보인단다. 웃어야 할까. 걸으면 엉덩이와 허리가 아픈데,

그러나 이상하게도 내 차 운전석에 앉아 허리를 쭉 펴고 운전대를 잡으면 평안하다. 그래서 아직 운전을 하고 있다. 내가 다니던 교회가 서면에 있다가 교대 앞 옛날 송월타운 자리에 멋지게 새 성전을 짓고 옮겼다. 전철을 타러 갈수도 없고 버스를 타러 가는 것도 번거롭다. 천상 내 차를 몰고 교회 가는 게 제일 편하다. 교회가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힌다.

교회에 도착해 내가 앉는 자리까지 가노라면 눈에 보이는 아이들은 너무 귀엽고 청년들은 너무 잘생기고 든든하며 나와 눈이 마

주치는 사람마다 반갑게 인사하고 내 교회가방이 무겁다고 서로 들어준다. 앞 내 자리에 앉아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보고 마치면 맛있는 점심 먹고 눕었지만 은빛 찬양대라 따로 사십여 명 모여 찬양 연습하고 오후 예배드리고 집에 오면 오후 여섯시가 넘는다. 참 주일은 행복하다.

매주 수요일은 나는 아침 아홉시만 지나면 집에서 나와 열시 전에 교회에 도착한다. 몇몇 할머니들이 와서 앉아 계신다. 나는 내 자리에 가서 잠깐 기도하고 피아노 앞에 앉는다. 우리가 젊어서 부르던 찬송가를 열시 삼십분 전까지 열심히 연주한다. 완전 내 시간이다. 요즈음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곡은 배우기가 어렵다. 찬송가만 육백여곡이 되는데 그건 잘 안 부른다. 나는 오직 찬송가만 피아노 친다. 수요일 오전 예배 마치면 내 또래의 권사님들은 찬송가를 들을 수 있어 좋다며 칭찬을 하기도 한다. 나는 웃으며 속으로 ‘주님 찬송가가 좋아요’라고 말한다. 이렇게 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요즈음은 티브이를 잘 안 본다. 내 손 안의 핸드폰에는 세상만사 이야기가 다 들어있다. 내가 전혀 모르던 세상사가 넘친다. 참 무서운 세상이구나, 싶으면서도 왜 이들은 예수를 안 믿고 이런 고통을 당하나 싶은 게 새삼 나는 감사드리며 꼭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못하면 전도 하는 분들께 힘이라도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너무나 큰 어른으로 보이고 외할머니는 정말 할머니로 보이고 칠십도 안 된 시 어머니는 노인중의 노인으로 보였다. 나는 시 어머니를 할머니라 부르다,

어머니라 부르라는 주의도 받았는데 지금 내 나이를 아이들이 안다면 얼마나 늙은 할머니로 보이겠는가. 아찔하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아직 나는 화장을 한다는 것이다. 세수하고 얼굴에 크림과 분만 바르고 거울을 보면 영락없는 할머니지만 눈썹을 그리고 입술연지를 붉게 바르고 보면 그뻔 사람으로 보인다. 옷을 갈아입고 나가면 나는 내가 할머니란 생각이 없어진다. 아직 재밌는 얘기도 나누고 싶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고, 차 몰고 바닷가도 가고 싶다. 돌이켜 보면 이 험난한 세상에 밥걱정 안하고 내 집에서 평안히 살아간다는 이 지극한 평범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된다. 오직 감사함뿐이다. 나에겐 오직 주님뿐이다. 주님의 뜻 이라면 무조건 따를 것이다. 나에게 생명을 주어 이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 외엔 할 말이 없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 생명을 주님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 겉잎이 품은 온기

조 광 순

오래전 일이다. 희붐한 쪽두새벽에 담장 밖에 있는 작은 텃밭으로 나간다. 나는 이곳을 유기농 가게라고 부른다. 긴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돌아나는 초봄이 되면 텃밭은 채소로 풍성하다. 묵은 김치가 지루해질 때쯤 신선한 채소가 당긴다. 지금은 겨울 배추만이 텃밭을 지키고 있다. 가장 먹음직스러운 배추 한 포기를 뽑아 든다.

윗지방에 눈이 내리면서 영하의 날씨로 푹 떨어졌다. 하늘이 잔뜩 흐리더니 진눈깨비가 바람을 타고 내려와 메마른 대지를 축축이 적신다. 고추바람이 등을 거세게 떠민다. 개구쟁이 녀석처럼 머



| 조광순 |

- 2023년 《문학도시》 수필등단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묵우수필문학연구회 회원

릿결을 마구 형클어 놓고는 쏜살같이 달아난다. 한 손으로 흐트러진 머리를 잡은 채 재걸음으로 대문 안으로 들어선다. 손이 시리도록 찬 공기지만 마음은 한결 상쾌하다.

마른 옷을 입은 배추의 밑동을 잘랐다. 겉잎을 한 잎 두 잎 벗겨내고 통통하게 살이 오른 샛노란 속잎을 흐르는 물에 씻어 한 잎 베어 물었다.

“아~ 고소해!”

뻗뻗해 보이지만 그 맛은 연한 배처럼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 듬성듬성 썰어 겉절이를 해서 밥상을 차렸더니 아침인데도 가족들이 밥 한 그릇을 금세 비웠다.

해마다 배추 모종 백오십 포기를 심는다. 모종 때는 농약을 거의 치지 않으니 벌레와의 사투는 끝이 없다. 배추는 벌레에 뜯기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더 단단한 힘을 기른다. 사람 사는 일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스친다.

화학비료 대신 퇴비를 넉넉히 넣어서 키웠다. 하지만 속이 찬 배추는 많지 않다. 화학비료를 적당히 해야 속이 짙고 잎도 부드러워진다. 우리 배추는 김장철이 되어도 속이 부실하고 잎은 뻗뻗하고 질기다. 애써 김장을 해도 인기가 없다.

한두 해 실패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남부지방의 배추는 심한 한파에도 쉽게 얼어 죽지 않는다는 것을. 그 후로는 배추가 얼었다 녹았다는 반복한 뒤 김장을 한다. 그렇게 담은 김장은 맛이 일품이다.

겨울 배추는 묵묵히 견뎌낸다. 연하고 고소한 단맛을 품기 위

해 가뭄의 목마름과 동장군의 매서운 기승 속에서도 한결같이 버틴다.

너털너털한 겉잎 속에 모성애가 보인다. 살을 에는 밤공기에 품속 배추가 놀랄까 봐 겉잎은 기꺼이 털옷이 되어 준다. 바람이 스칠 때마다 바스락바스락 자장가를 불러주며 키워낸다. 이른 봄 햇살이 들면 털옷을 벗겨 파란 하늘을 구경시켜주듯 애지중지 길러낸 겉잎 배추다. 자신은 불품없이 찢기고 메마른 잎이 되었지만, 또 다른 생명을 키워낼 밑거름이 되기 위해 제 삶을 내어준다.

비록 식물이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인다. 그 속에 깃든 고귀한 모성애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음 한편이 뭉클해진다. 사람이나 배추나 시련을 겪으며 속을 채워가듯, 고생 끝에 보상이 따르듯 마침내 그 어떤 배추와도 견줄 수 없는 명품 배추가 된다.

문득 며칠 전, 배추 서리를 맞았던 날이 떠오른다. 그날도 아침 먹거리를 준비하려고 바구니를 들고 텃밭으로 나갔다.

“아니! 누가 배추를…….”

김장하고 남은 배추는 싹 배추로 먹으려고 남겨두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야밤 서리를 해 간 것이다. 배추 겉잎이 길가에 여기저기 쓰레기처럼 내버려져 있었다. 순간 어이가 없었다.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남의 밭에 들어와 배추를 몰래 뽑아갔을까.

아까운 마음보다 왠지 모르게 기분이 씩씩했다. 버려진 배춧잎을 주워 거름 자리에 옮겨놓고 한참을 서 있었다. 우리처럼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도 감사한 마음이 스며들었다.

그 마음 끝에 문득 어머니가 떠오른다. 우리는 여름휴가 때가 되면 늘 아이들을 데리고 섬진강이 있는 시택으로 갔다. 큰 시숙님은 막내 가족을 위해 강가에 낚시할 자리를 미리 잡아두셨다. 우리는 텐트를 치고, 남편은 밤이 새도록 낚시를 즐겼다. 나와 아이들은 얇은 물가에서 손전등을 비추며 다슬기와 조개를 잡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어머님은 분주하게 움직이셨다. 비지땀을 흘리며 아픈 다리를 끌다시피 하면서도 집에서 키운 토종닭과 강에서 잡은 자라와 약재를 무쇠솥에 넣어 푹 삶아주셨다. 자식들 몸보신에 좋다면 그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분이셨다. 오직 자식을 위해 제 몸을 다 내어주신 어머니의 일생은 겉잎 배추와도 다르지 않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수십 년이 지났다. 나는 아직도 몇 가지 유품을 간직하고 있다. 어머니의 주민등록증과 작은 수첩이다. 낡은 수첩에는 매직으로 쓴 아들들의 전화번호가 적혀있다. 어쩌다 마주할 때면 여전히 가슴이 뭉클해진다. 내게는 엄마였고 가장 존경하는 분이었다.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문득 어머니가 떠오른다. 눈을 감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마음 한편이 따뜻해진다. 오늘도 나는 겨울 배추 한 포기를 바라보며 가만히 어머니를 떠올린다.

## 겨울 농장 풍경

최 방 식

한겨울 용천리 농장은 적막 속에 묻혀있다. 차가운 날씨에 고요함이 깔려있고 쓸쓸하게 인적도 끊어졌다. 간혹 오전 중에 옆집 농장에서 시내로 불일을 보러나가는 자동차 엔진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앞집 농장주는 농한기라 방안 아랫목에 등지고 누웠는지 아니면 먼 곳으로 해외여행을 갔는지 요즈음 인기척이 없다.

찬바람이 불고 적막이 내려앉은 이곳은 겨울만 되면 적막강산이다. 농장에 오는 길에는 키 큰 잡목들이 마른 가지만 남긴 채 볼품 없이 엉성하게 서있다. 농장 초입에 가파른 언덕길은 시멘트 포장길이다. 갓길 도랑은 빗물에 씻기어 내 키보다 깊은 웅덩이 계곡



| 최방식 |

- 2017년 《부산크리스천문학》 수필 등단
- 2018년 《문학도시》 수필 등단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부회장
- 수필 『함께 뜨는 손가락』
- 향토지 『용당동의 빛과 어둠』

이 되어 운전을 까딱 잘못하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도 경사진 언덕길을 오르면 호흡이 거칠어지고 힘이 들지만 옷을 벗은 겨울나무들의 골격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소리를 들을 수 있다. 움푹 패인 계곡으로 뻗은 나무뿌리는 문어발처럼 붙어있고 편백나무 향기를 맡을 수 있다. 농장 대문 앞에 도착하니 수년 전 서툰 솜씨로 만든 아치형 나무대문이 이제 비바람에 부식이 되어 삐딱하게 틀어져 손을 봐야 될 것 같다.

겨울의 과수밭에도 차가운 바람에 잎을 떨군 나무 가지들이 하늘로 솟아있다. 땅은 돌덩이처럼 굳어있고 여름날 무성하던 잡초들도 이제 마른 풀이 되어 바람에 흔들린다. 배나무 몇 그루가 있어 전지를 하려고 가지를 보니 꽃눈이 예전처럼 많이 보이지 않았다. 묵은 가지 끝에는 꽃눈이 없거나 말라죽어가고 있었다. 해마다 꽃눈이 맺지 않은 오래된 가지는 베어내고 새로운 가지를 키워야 하는데, 열매만 딸 줄 알았지 새가지를 키울 줄 몰라 방치한 때문이다. 과수농사를 잘 알지 못하는 초보농부의 티를 드러내고 말았다. 가지를 만지며 애석해 하면서 미련 없이 잘라내야 했는데, 아쉬운 마음이 든다.

나는 나름대로 농사정보와 인터넷을 찾아보고 과수농사에 정성을 쏟았지만 실제 수확은 예상과 차이가 많이 났다. 처음 농사지었던 분에게 물려받고 난후 한두 해는 열매가 튼실하고 수확이 제법 많았지만, 해가 갈수록 몇 그루는 말라죽고 수확은 줄고 열매의 크기도 점점 작아졌다. 가지에 꽃눈이 많이 맺지 않는 것도 비료와 거름이 부족하거나 적기에 병충해를 예방을 하지 못한 탓 이었다.

또한 퇴비를 넣어야 하는데 부지런함이 없었다. 농사경험이 말하는 영농기술의 차이인 것 같았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만족한 농사를 짓지 못한 것을 점검하며 농업센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좀 더 정성을 쏟아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몸이 잘 따라 주지 않는다.

그런데 앙상한 가지 마디에는 부드럽고 갈색의 조그만 꽃눈과 잎눈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숨을 죽이며 붙어있었다. 땅은 한기를 머금었고 이 추운 엄동설한에도 신기하게도 연약한 새싹처럼 보였다. 이 상황에도 나무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자라고 있는 것 이였다. 주위의 땅은 얼어붙고 영하의 차가운 계절이지만, 생명의 경이로움을 보면서 새로운 기쁨과 행복을 주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탄성이 나왔다.

하나님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 봄을 기약하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연약한 생명을 잉태하고 소리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생명들은 잉태되는 과정이 다르고 성장하는 환경과 모양이 다르지만 변화하면서 절정의 시간들을 보내며 종의 명맥을 이어가고 머무는 듯 가는 계절의 순환처럼 흘러간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도장지를 자르고 잘라진 굵은 가지들을 모아 화목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장작더미에 쌓아 놓았다. 장작더미 아래와 길에는 낙엽으로 수북이 덮여있다. 바람이 몰고 온 갈색의 낙엽은 참나뭇과의 떡갈나무와 상수리나무의 잎이 대부분인데 참

으로 셀 수 없이 많다.

낙엽을 보고 있으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이 떠올라 나를 처연하게 만든다. 한때 산과들을 초록으로 물들이며 풍성한 신록으로 장식했지만, 화려했던 시절의 푸른 에너지가 소진되고 쓸쓸하게 낙엽이 되어 땅위를 덮고 있어 머잖아 땅에 묻혀 생을 마감 할 것이다.

겨울 농장은 조용하며 단조로운 색과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다. 흐르는 물도 얼어 고드름이 맺혔다. 화단의 수국은 누렇게 변한 가지만 엉성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피던 꽃들도 자취를 감추었다. 그렇지만 천리향은 오상고절 푸른 잎에 가지마다 군데군데 꽃망울을 달고 봄을 기다리며 씩씩하게 화단을 장식하며 생기를 준다.

남새밭에는 미처 뽑아 먹지 못한 쪽파가 추위에 마른 잎사귀를 덮어쓰고 웅크리고 있고, 반 평도 안 되는 비닐하우스에는 상추 몇 포기나 숨을 죽이며 납작 엎드려 봄을 기다리고 있다. 배추와 무를 뽑은 밭은 텅 비어있다. 김장때 손자가 체험학습으로 배추를 뽑고 포기를 나르며 고사리 손으로 김장을 도우며 소리 지르던 여운이 아직 배추밭에 남아 있는 것 같다.

이번 김장도 여는 때나 마찬가지로 힘이 들었다. 70포기를 담그는데 연례행사처럼 큰일을 치르는 것같이 힘겹게 지나갔다. 주위의 대부분 이웃들은 절임배추를 택배로 받아 수월하게 김장을 하듯 우리도 내년에는 수월하게 하자고 약속을 하지만 번번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계절이 바뀌고 구월 초순 배추 심는 계절이 오면 빈 밭을 가만히

놀리고 있는 농심은 어디에도 없다. 자연스럽게 발동이 걸려 무와 배추를 심고 키웠던 결과물 때문에 김장때는 배추를 뽑고, 운반하고, 다듬고, 쪼개고 소금을 뿌리며 절이는 힘든 하루를 보낸다. 다음날 배추를 씻고 비스듬히 세워 물기를 빼는 동안 양념장을 만든다. 다음날도 딸과 아내와 함께 삼일동안 고난의 김장행군을 하면서 딸은 몇 번이고 내년에는 절임배추를 꼭 사서 김장을 하자며 닭달을 하여 약속은 하였지만 내심 내 마음은 나도 모른다.

겨울농장은 쉽지만 또한 안전을 점검하는 시간이다. 그동안 썩고 오래된 위험한 나무계단을 치우고 서툰 솜씨로 나무를 재단하여 엔진 톱으로 자르고 만드는데 한나절이 걸렸다. 모양은 별로지만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그런대로 기분이 좋았다. 이런 일을 하면서 예전에 미처 몰랐던 나의 새로운 취미와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다. 무엇을 자르고 만들고 하는 목공일이 재미있어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몇 년 전 데크로 평상과 침터를 만들고 아치형 대문을 만들면서 힘든 줄도 모르고 만든 적이 있었다.

농장일은 사소한 일이 많아 치우고 치워도 끝이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치우고 나면 조금 나아 보인다. 서둘러 할 일이 없지만 이렇게 두서없이 일을 하다보면 어느새 겨울은 가고 새로운 계절이 올 것이다.

# 벌꿀

한 인 환

맥전(脈田)에게서 택배가 왔다. 밤꿀 한 병이다. 뚜껑을 돌리니 벌써 비릿한 냄새가 난다. 남정네 정액 냄새다. 그래서 밤꽃이 필 때면 동네 아낙네들 정신이 혼미해진다고 하지 않든가.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봤다. 약간 텁텁한 뒤 끝에 달콤한 진품 벌꿀의 향이 입안에 가득 찬다. 맥전의 고마운 마음까지 혀끝에 진하게 전해온다. 얼마 전 우리 고등학교 동기회 카페에 밤꿀이 간경화나 간암에 좋다는 글이 게재되었다. 맥전은 이 글을 읽자마자 단번에 날 생각했나 보다.

그는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던 공직을 정년퇴임 하고, 아무 연고



| 한인환 |

- 부산 땅끝교회 은퇴 장로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이사

도 없는 파주 땅에 터를 잡았다. 그 뒤편이 바로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침투 루트라는데, 그는 겁도 없이 우리가 '맥전사(脈田寺)'라 부르는 한옥을 짓고 전원생활에 들어갔다. 그러나 모르긴 해도 전원생활이 꿈에서나 좋은 게지, 솔직히 노년에 초짜 농사꾼이 된 게 아니던가.

텃밭 규모를 넘어 각종 채소에다 유실수 등, 이것저것 심고 가꾸고, 또 가축도 개, 닭, 거위, 염소 등, 우리 할배 농군은 힘도 안 달리나? 양봉도 여러 해 시행착오 끝에 이제 겨우 꿀맛을 좀 보나 보는데, 이렇게 딸딸 굵어 날 털어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에게 그리 대단한 존재는 되지 못한다.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로 알지도 못했다. 그는 키가 큰 편이고 나는 작으니, 재학 중에 벌써 어울리는 친구들부터 달랐다.

2013년 말부터 내가 우리 동교회 카페에 '묵은지'를 비롯해서 어쭙잡은 글을 올릴 때, 그는 댓글로 분에 넘치는 응원을 해주었다. 솔직히 그의 따뜻한 격려 때문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습작을 계속 올렸고, 이제 부산 크리스천 문인협회에 수필로 등단하기에 이르렀다.

서로 주고받아야 오래 가는 친구가 된다는 데, 나는 이렇게 받기만 하니 이 빛을 어이할꼬.

‘별꿀’ 하면 당연히 ‘몸에 좋다’는 상식부터 먼저 떠오른다. 일반적으로 17% 수분에다 83% 고형분은 과당과 포도당이 차지해

서 칼로리 원으로 속효성이고 영양가가 높다. 유채, 메밀, 싸리나무, 아카시아, 밤나무 등 밀원에 따라 빛깔과 풍미와 약효가 달라진다.

벌꿀 1kg를 모으기 위해 벌은 560만 개의 꽃을 찾는다고 하니, 우리는 벌꿀의 단맛만 알았지 일벌의 수고는 잊고 있다.

더구나 ‘벌꿀’ 하면 나에게는 ‘가짜’란 단어도 동시에 떠오르니 민망한 일이다. 하기가 옛날부터 ‘벌꿀은 부자지간에도 서로 속인다.’고 했으니 나만의 고약한 생각은 아닌가 한다.

오래전에 조 아무개 가수가 TV에 나와 우스개로 하던 말이 지금도 기억난다. 그가 어릴 적에 꿀 장수가 작은 방에 세를 들었다. 꿀 장수는 설탕에 캐러멜 색소를 풀어 가마솥에 고와서 가짜 꿀을 만드었고, 교회 권사였던 그의 모친은 종종 그 일을 거들어 주었던다. ‘내 주를 가까이하게 함은~’ 찬송을 불러가며 주적으로 가짜 꿀을 신나게 저으면서 ‘이 꿀이 팔려야 방세 받지’하며 중얼거렸다고 한다.

또 나에게는 ‘벌꿀’ 하면 반드시 생각나는 아린 기억도 있다. 지금은 소양 댐으로 수몰된 양구군 도사리에서 군복무를 했었다. 일병을 달고 첫 휴가를 받았다. 주임상사가 마을에서 양봉을 쳤고, 나는 집에 가져갈 휴가선물로 꿀 한 병을 샀다. 아마 일병 봉급 반년 치는 털었지 싶다. 가방에 꿀 유리 대병을 넣으니 병목 부분 반쯤은 밖으로 나왔다.

군용 휴가버스로 용산역까지 왔는데, 부산행 군용열차는 야간 열차라 몇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다. 꿀 병을 간수하기가 조심스럽

고 힘들어 PX에 맡겨 두었다. 나중에 찾으러 가 보니 PX 바닥이 온통 유리조각에 깔범벅이다. 고양이가 깎았는데 누구 탓을 하랴. 그때 아린 가슴이 지금도 아리다.

이번 3월 초에 제주도에 왔다. 박 장로와 함께 말로만 듣던 동채 조경공사에 들렀다. 가는 길목의 도로변에 노란 유채꽃이 만발하다. 봄이 성큼 다가와 있다.

봉긋하게 솟은 한라산 정상을 찬찬히 훑어 내려오면, 그 자락 언저리 16만 평 부지에 야자수를 비롯하여 각종 아열대 조경수가 뿔뿔하게 들어차 있다. 거대한 수목원을 방불케 한다. 뒤돌아서면 서귀포 앞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지고, 파도가 산방산에 몰려와 부딪치며 하얀 포말을 날린다.

누가 봐도 천혜天惠의 요지라 숨이 턱 막혀온다. 부러움의 수준은 벌써 넘어 완전히 압도당해 얼이 다 빠졌다. 텅텅한 차림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고교 동기 동채가 그저 위대하게만 보인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는가? IMF로 온 나라가 허덕일 때, 그도 공장을 정리하고 제주로 내려왔단다. 제발 사 달래서 혈값에 억지로 사들인 땅이 이제 수십, 수백 배 뛰었으니 그의 예지에 더해진 천복天福은 오히려 두렵기까지 하다.

걸어서 둘러보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여, 승용차로 경내를 두루 구경했다. 우리 키높이를 훌쩍 벗어난 거목들이라 고개를 젓히고 나무 위를 쳐다보기에 뒷목이 빠근하다. 우리 눈높이로 편하게 보이는 부분은 온통 나무 둥치뿐이라 무미건조하고 좀 황량한 느낌

마저 들었다. 눈치도 빠르게 동채가 설명을 덧붙인다. ‘작년 가을에 맥전이 와서 튕립 일만 포기를 심어놓고 갔다’고.

동물 가족 때문에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을 텐데, 맥전이 무슨 여유로 이 제주 땅에까지 내려와서 재주를 부려놓았을까? 이제 조금 있으면 튕립 구근이 싹을 틔워, 튕립 만개萬個가 만개滿開하면 얼마나 장관일까, 상상만 해도 흥분된다. 뽕뽕한 야자수림 아래에 빨강고 노란 튕립 꽃이 빈틈없이 어울려 조화를 이루게 하다니, 이제 맥전도 도를 통해 가는가 보다.

형형색색 튕립 꽃 사이로 나비가 날고 꿀벌이 모여들면 얼마나 멋들어진 풍경일까? 천상의 정원이라는 생각까지 들다니 내가 지나치게 흥분하고 있나 보다.

참, 꿀벌이 모여들면 당연히 꿀이 있을 게 아닌가. 혹시 튕립 꽃 벌꿀은 밤꿀 뽕치게 간 질환에 특효가 있지는 않을까? 이 판에 내 벌꿀부터 먼저 챙기다니, 나도 어지간히 쪼잔한 작자다.

## 〈후기〉

맥전이 ‘다솔사’를 어떻게 아냐고 물어왔다. 우리 동기회 카페에서 나의 동백 시화전 ‘딱따구리’를 읽어본 모양이다.

딱따구리(25. 부크문 동백시화전)

딱딱딱/ 따르르딱/ 새벽 예불 묵탁은/ 큰스님보다/ 한 수 위다  
딱딱딱 부귀영화/ 따르르딱 무병장수

그러나/ 듣지 못한다/ 나무 둥지 속에서/ 새파랗게 질려가는 중생/  
살려 주세요

다솔사 차밭은/ 어제처럼/ 이슬에 젖고 있다

내가 지금 다솔사 근처 촌가에 살고 있다고 하자, 맥전이 반색을  
한다. 맥전의 고향집이 바로 이 부근이라 다솔사는 초등학교 때  
단골 소풍지였다고 한다. 그리고 바로 부크문 계좌로 책값이라며  
2만 원을 부쳐왔다.

‘맥전’ 그는 진품 벌꿀 같은 내 친구다.

# 소설

강신구 | 동지

Christian Literature 2026

# 등지

강 신 구

어제 갔다 온 친구가 떠들썩하게 자랑해서 좀이 쑤서 견딜 수 없다. 수업 마치자 몇몇 친구와 바로 가 보기로 했다. 무슨 지리산 멧돼지 삶은 국밥이 그리 맛있겠냐. 가방을 메거나 짊어진 채 축제가 열리는 혜덕고등학교 언덕길을 올랐다. 버스를 타려다 대신동으로 돌아서 가야하고 또 갈아타니 시간도 걸려, 걸어서 지름길로 갔다. 북병산 언덕은 오르막이 가팔랐다. 산복도로에 이르러서 다 온 줄 알았는데 다시 계단이 높게 이어졌다. 우뚝한 학교가 가깝게 보이면서도 멀다.

“계단을 헤아려 봐 100개도 넘는 것 같아.”



| 강신구 |

- 2022년 《문학도시》 소설 등단
- 부산수필문학상, 성파시조문학상
- 수필집 『밀국수』 『맹금머리』

학생들이 계단 입구에서부터 안내했다. 여학생들의 가방과 도시락을 들어주며 따르게 했다. 남학생들은 다니던 길이라 성큼성큼 올라가도 처음이고 너무 높아 할딱거리며 한발 한발 걸으니 뒤돌아보고 천천히 오라며 애기를 걸었다. 버스에서 내려 함께 가는 다른 학교 학생들과 어울려 계단은 굼실대는 걸음으로 복잡했다.

“다 왔어. 줄 서야 해.”

민수는 낚아채듯 다실의 소지품을 받아 가볍게 오르는데, 허우적거리며 힘들어하는 걸 보고 운동장 입구 경비실 옆에다 천막을 치고 책걸상을 펼쳐놓았다. 그 안에서 국밥을 가져와 맛있다며 퍼먹는다. 해거름 해서 올랐는데 어언 어스름이 졌다. 헉헉거리고 왔더니 냄새가 더 배고프게 한다. 여러 학교에서 학예전을 구경하러 모여들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데 여긴 국밥을 먹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그릇 들고 따라와.”

어제 첫날은 천 원씩 받았다는데 오늘은 그냥 배식한단다. 가까이 다가가니 커다란 가마솥에 김이 물컹물컹 올라오면서 찬바람을 훈풍으로 느끼게 했다. 살점을 떼어내 뼈가 드러난 멧돼지가 우거지와 함께 엉겨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끓었다. 대파와 생강, 양념 냄새가 더 입맛을 다시게 했다. 국 푸는 학생과 밥 떠 넣는 당번이 따로따로 여럿이 둘러서서 친절하게 담아줬다.

“서툴고 엉성하지만 맛은 좋아.”

국밥을 들고 임시 천막으로 들어가면 또 옆에서 편육 살점을 넣어주었다. 듬뿍듬뿍 많이 들라며 상냥한 인사이다. 시장이 반찬이

라고 딱끈한 저녁은 꿀맛이다. 산돼지라서 껌끄러웠는데 맛났다. 민수는 수육을 다실의 국에 더 넣어줬다. 운동장은 온통 성탄 트리와 점멸등으로 황홀한 교정이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곳곳에 천막을 치고 관람 학생을 기다리고 있다. 각 서클 활동을 홍보하고 같은 특활 학생과의 유대를 가졌다. 학교가 길어 저 끝 음악반까지는 한참 걸린다.

단복을 입은 보이스카우트와 천체 망원경을 걸어놓고 별을 찾는 우주소년단, 검은 도복에 목검을 들고 설치는 검도반 등등 시장처럼 시끌벅적하다. 다실이 관심을 보이면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지나갔다. 운동장을 거쳐 화학 반과 생물 반 교실로 들어가 비커 시약 처리며 채집 곤충을 살폈다.

분장한 반원들이 문 앞에서 길을 막고 들어가길 권했다. 집에서 온갖 것을 갖고 와 먹거리도 풍성하다. 만든 갖가지 수예품 선물을 나눠주는 등 흥겨운 시간이 흘렀다. 대우가 흥성하니 남녀학생들의 즐거움이 대단하다. 학업에 찌들어 뒤돌아보지 못했던 걸 여기서 여유를 부려본다. 중구와 서구 영도구며 남향과 외항의 밤 풍경이 그저 그만이다.

“박민수, 경치가 넘 좋아.”

명찰을 봤는가. 2, 3층을 오르며 창밖의 시내 풍경에 놀란다. 종교반에서는 “내주를 가까이하게 함은…….” 합창이 이어졌다. 복도는 학생들로 미어터졌다. 불 꺼진 교무실이며 수업 교실도 힐끔 들여다봤다.

“이게 내 자리야.”

1학년 교실에 들러 했더니 윤다실은 앉아보며 책상을 어루만졌다.

“여긴 사물함도 있네.”

썩썩하고 붙임성이 있는 특별활동 학생의 안내로 먹고 마시고 음악에 취해 교내를 한 바퀴 돌고 있다. 남다른 축제이다. 과학실의 놀라운 빛 영상이 뛰어났다. 인공위성의 모형을 설명하는 학생의 능름한 모습은 정말 과학자 기상이 엿보였다. 도서관 강당엔 서예와 그림이 가득 걸려있다. 내 그림에서 사진을 찍었다.

“청산도 내 고향 마을이야.”

옆 대강당에서는 연극반 학생들이 무대를 만들어 막을 치고 공연을 준비한다. 음악이 흘러나와 야단이다. 시간이 다 돼 가는 모양이다. 얼룩덜룩 환칠한 배우들이 들락날락하는 가운데 하나둘 모여더니 벌써 강당을 가득 메우고 있다. 다실은 민수가 안내하는 앞 가운데 자리로 가 앉았다. 좌우 막이 열리고 배부른 아내를 부축하며 여관을 찾는 중이다. 호적 하러 베들레헴에 왔다가 잠잘 곳을 구하지 못해 헤맸다.

“남학생이 불룩한 배를 내밀며 여자로 나오네.”

다실이 바닥을 치고 웃으며 말했다. 이곳저곳 여관을 찾았지만 모두 만원이었다. 요셉은 산기가 밀려오는 급한 마리아를 마구간이라도 데려가겠다며 서둔다. 일하는 청년이 자기 잠자는 방으로 안내할 때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마치고 내려가는 복새통에 다실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인사도 못하고 어둠 속으로 뿔뿔이 흩어졌

다. 버스가 끊어질까 조바심으로 서둘러서 내려갔다.

“그도 그렇지, 저녁 내내 도왔는데 고맙단 말도 없이 가버리나.”

정리한다고 어리뻘터니 그만 가고 없다. 며칠인데 끝난 뒷정리가 태산이다. 할 때는 몰랐는데 풀어헤치니 너무 많다. 어디에 썼는지 스티로폼과 골판지가 쏟아져 나왔다. 뒤 운동장에 쌓으니 산더미처럼 가득하다. 몇 며칠을 뜯어냈다. 추운 날 여학생들이 그리 많이 왔다. 국밥을 먹으러 왔다. 클럽 작품과 활동을 보러 왔을까.

축제로 들떴던 마음을 가라앉혀 정상 수업을 해 나갔다. 언제 그랬냐는 듯 저녁 자습도 했다. 학교마다 경쟁이어서 S대와 P대학교에 한 명이라도 더 보내기 위해 안간힘을 쏟는다. 3학년은 도시락을 2개나 싸 왔다. 저녁을 먹고 10시에 자습을 마쳤다. 집에 가면 자정 무렵이다. 1, 2학년도 따라서 오후 6시 하다가 8시까지 늘어났다. 자율학습이라 해 놓고선 다 하도록 다그쳤다.

복도엔 감독 교사가 어슬렁거리며 다녔다. 도망치거나 떠들면 붙들려 벌서거나 지도실에서 꾸지람을 들었다. 회초리를 들고 설쳤다. 자율은 무슨 강제다. 마치면 엽매였다가 풀려난 듯 후련한 마음으로 내달았다. 계단을 내려 버스를 타러 가는데 앞에 무엇이 다가섰다. 다실이다. 신당 옆에서 기다리다 나를 찾아 온 것이다.

“도망가더니.”

“도망은 운동장에서 기다리다가 으스스 떨려 갔어.”

버스 타고 남포동으로 내려갔다. 극장 골목 포장마차에서 닭꼬치를 들며 뜨거운 국물을 마셨다. 얼었던 다실의 몸이 조금씩 풀어지는가 또 배고팠던지 허겁지겁 먹어댄다. 마침 주머니에 돈이 좀

남아서 옆집 따끈한 가락국수도 한 그릇 비웠다. 영주동 언덕 집까지 내려다주고 영도 남향동으로 돌아갔다.

몇 번 와서 기다렸다가 못 만나고 갔단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까만 교복이 비슷해서 찾을 수 없었다. 꾸물꾸물 내려오는 키 큰 모습이 민수를 닮아 눈을 쫓고 기다리다 가로챌 수 있었다며 환하게 웃었다.

‘고맙기도 해라 이 찬 바람 부는 언덕에서 나를 여러 날 기다렸다니…….’

가방과 도시락을 받아 들고 앞서가다가 손을 내밀어 끌어주던 그 손길이 파스해서 생각이 났단다. 아는 친구에게 물었더니 박민수는 반에 우등생이 아니라 전교에서 뛰어난 성적이라며 깜짝 놀라게 했단다.

“어쩔 그리 공부를 잘할까. 나 윤 다실이 좀 갈켜 도.”

“잘 가.”

양 볼을 스치듯 살짝살짝 손바닥을 대고 가슴을 손가락으로 쿵 찌르고 몸을 한번 도리질하더니 골목으로 사라졌다.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가 와 계셨다.

“오 내 새끼 배고프겠다. 무얼 먹자.”

이모 집에 맡겨놓고 달마다 한 번 정도 올라오셨다. 밤이 깊어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하고 몇 마디 오순도순 주고받다가 잠이 들었다. 이모가 부산으로 오라고 해서 정성껏 거두어 잘 있는 데도 비쩍 마른 느낌이 드는가. 얼굴을 자꾸 쓰다듬으며 걱정스러워하는 어머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먹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올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전복과 절인 반찬을 갖고 오셨다. 가까운 조선소에 다니는 이모부도 엄청스레 잘해 주는데도 성이 차지 않은가 보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아침 등교 시간 버스 타는 데까지 나와 예, 했지만 볼 만지고 살짝살짝 때리며 가슴을 쿡 찌르는 자꾸 떠오르는 다실이 생각으로 멍청함을 억누를 수 없다.

겨울 방학이 끝나는 1월 말까지 청산도 집에서 지냈다. 그동안 쌓인 학습을 몇 번 복습했다. 풀리기 쉽게 어려운 과학과 수학 공식을 외웠다. 또 시작한 영어 회화 점수를 올리기 위해 문장을 익혔다. 기말고사 성적은 반에서 우등했다. 부모님이 성적통지표를 보고 반색하셨다.

“오, 내 새끼 잘했다.”

범 물어가지 않게 말은 섬으로, 사람은 도회지로 보내 배우고 키워야 한다. 부산으로 잘 갔지. 여기 머물렀으면 되겠나. 딸도 중학교에서 우등생이다. 자녀가 명석하다. 마을 가게 장사하는 일이 즐겁다. 트럭으로 완도나 광주에서 한 차 가득 싣고 와 팔았다. 전에는 배 닿는 청산 마을까지 걸어서 다녔는데 편편한 이 넓은 골짜기 사람들이 고개 도로가 생기면서 달구지를 끌거나 리어카로 짐을 실어 날랐다. 아버지는 중고 트럭을 구해 몰면서 편리하게 넘나든다. 얼마 전 전화기를 들어서 유선전화를 하니 참 좋다. 공중전화기로 몇 시 배로 들어간다면 아버지가 나와 기다린다.

“오빠 여기야.”

여동생이 뛰어오며 손 흔들어 보이는 게 좋다. 내 방에 날 보고 뜬 어머니는 수시로 들락날락한다. 맹물만 들고 들어올 때도 있다. 좀 전에 청소했는데 또 걸레 들고 흠친다. 그런 집이 참 행복하다. 그래도 다실이가 문득문득 떠올라 지금은 뭘 할까. 방학이 빨리 끝나가길 기다려진다. 길 가운데 쪽 들어선 포장마차에 지글지글 고추장에 버무린 떡볶이와 어묵에 시원한 국물을 마시고 싶다.

고분고분 하다가 마지못해 따르는 듯 수줍고 뻣는 듯 시치미 뚝 떼는 모습인 다실이가 간간이 생각한다. 기다리면 찾아오는 버스처럼 길 가다 스치는 수많은 여학생인데 뭘 그리 골똘히 더듬나. 머리를 가우뚱거리며 책을 펼쳤다. 아버지 어머니가 뒷바라지하시느라 저리 허리 휘도록 애쓰는데 탄 생각인가.

여기도 사방이 바다지만 이모 집 영도도 바닷물이 넘실대는 해안이다. 섬이 복잡거리는 큰 도시 같다. 차들이 왔다 갔다 오글오글하다. 들었다 났다 하는 영도대교가 복잡해서 그 옆에 아치형 부산대교가 하나가 더 생겼다. 등하교 때 복잡거렸는데 덜 하다. 건너보이는 학교에 1년간 다녀 눈에 선하다. 외딴 청산 섬에 살다가 부산 영도구와 중구, 서구를 가로질러 다녔더니 좀 익숙해졌다.

교실이 난장판이다. 어딜 갔다, 뭘 했다, 시끌벅적하다. 첫날은 자습 없이 대청소하고 일찍 마쳤다. 계단을 내려가는 데 저 아래 신당 골목에서 손짓하는 게 보였다. 누굴 기다리나 했더니 날 찾는 다실이다. 그 많은 학생 가운데 날 알고 팔짝팔짝 뛰기도 하면서 반긴다. 바로 앞에 버스 타려면 다른 학생이 알까 볼까 그냥 작은

골목길 밑으로 빠져 종종 걸어 내려갔다.

“우리 송도 가자.”

거북섬에 들러 찰랑찰랑 넘실대는 파도와 건너편 해수욕장 백사장을 밀어 올랐다 쓸려 내리는 물결 모습이 아름답다. 층층집이 높은 아파트처럼 우뚝하고 산등성을 넘어간다. 해가 기울면서 출출해 또 포장마차에 들어가 순대를 먹었다. 배들이 들락거리는 남항 방파제를 길게 들어갔다 나왔다. 입구 난전에서 호떡을 종이로 싸서 몇 개 먹었다.

“곰장어 먹자.”

자갈치까지 걸었더니 다리도 후들후들 떨리고 꿈틀거리는 석쇠의 갯장어구이가 먹고 싶었다. 한번 뒤집히면 익어서 먹을 수 있다. 무얼 먹어도 꿀맛이다. 먹음새가 좋아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잘 먹었다. 우린 찻집, 영화관, 음악실에는 들어가기 어렵다. 학생부 선생님들이 단속하러 다닌다. 교복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래 걷는 거야 뭐라 하겠나.”

아쉬운 듯 헤어지기 싫어 시청 옆 영도다리 난간에서 밑으로 드나드는 통통배를 보며 부산항의 풍경에 빠졌다.

“이게 우리 학교야.”

국제시장을 지나면서 동부여자상업고등학교, 시내 한가운데 운동장도 없는 높은 아파트 같은 학교이다.

“내일은 여기서 만나자.”

부평동 깡통시장까지 바래다주고 헤어졌다. 광복동을 길게 걸어 나와 남항으로 갔다. 5시 되면 어둑하더니 6시가 넘어도 흰하

다. 다실을 만나고 여자에 취해 공부가 뻘컘해졌다. 집에 와서 내일 할 예습을 대충대충 하고는 잠자리에 들었다.

2월은 기말시험과 졸업식이 있어 바쁘다. 이제 2학년 올라가면 1층 교실에서 2층으로 간다. 3학년은 3층으로 높아만 보인다. 4층은 도서실과 강당이다. 책 빌리러 갈 때는 동편 계단을 오르고 입학식이나 졸업식, 특별한 모임일 때는 강당으로 가는 데 중앙계단을 이용했다.

3층을 오르면서 좌우 교실을 보니 조용히 공부하는 모습이 엄숙하다. 언제 이 높은 곳에 오르나 생각이 들었다. 우린 팔랑팔랑 뛰어다니지만 3학년 선배는 어슬렁어슬렁 여유가 있어 보인다. 서울의 대학과 부산의 우수 대학교에 합격한 플래카드가 담벼락에 붙어서 많은 숫자를 자랑했다. 수능시험 성적이 어쩔 그리 많이 나오나 부럽다. 어제 만나자는 그 자리에 갔다.

“왜 이리 늦었어. 나 배고파.”

저녁 자습을 마치고 내려가니 그때까지 기다렸나 보다. 그녀는 자율학습이 없는가. 여태 이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어이쿠, 미안해라. 미안해.”

안 골목으로 들어가 부평시장 먹자 거리에서 동지도 아닌데 풀떡풀떡 끓는 팔죽을 사 먹었다. 떡볶이도 몇 개 먹으니 요기가 났다. 아직 날씨가 추워 입술이 파란 다실이다. 뜨거운 팔죽이 속을 데워서 훈훈하고 맵싸한 떡볶이로 입 안이 얼얼하다. 내 주머니가 달랑거려서 더 좋은 것은 어려웠다. 어디로 가야 하나. 용두산 공원으로 갔다. 전망대에 올라 시내를 내려다봤다. 약간 경사진 유리

창이 엮어질 듯 무너질 것 같아 어질어질하다.

“민수야, 부산항이 한눈에 보여. 그런데 어지러워 천길만길 낭떠러지야.”

밟는 바닥이 뿌지직뿌지직 부서져 빠질 것 같다. 높은 곳에서 아래가 아득한가. 겁에 질려 손을 잡아줘도 두 손으로 팔에 매달린다. 동아줄 잡듯이 꼭 움켜쥐었다.

“누가 볼라. 우린 교복 입은 학생이야.”

“보면 언제 기겁하겠는데.”

다실은 혼쫓이 났는지 식은땀을 다 흘린다. 엘리베이터로 내릴 땐 가볍게 팔짱을 끼었다. 매달리던 것과는 좀 느슨해졌다.

“오줌은 안 지렸어?”

“애는.”

학년이 오르고 교실도 바뀌었다. 담임선생님을 새로 맞았다. 함께한 정든 반 학생들도 열두 반으로 뿔뿔이 흩어져 나뉘고 새로 문이과로 만났다. 3학년 교실 밑이라 무게가 짓누르는 것 같다. 교무실도 가운데 있어서 분위기가 삼엄하다. 신입생도 들어왔으니 좀 점잖아져야 했다. 저 아래 1층 교실처럼 까불거리고 훌쩍훌쩍 뛰는 일은 참아야만 했다.

자율학습을 10시에 마쳤다. 3학년이라 따라야 한다. 떨그럭거리며 부산떠는 일이 영향을 준대서 늦은 시간까지 복습과 예습을 했다. 1학년 교실은 운동장을 끼고 있었지만 여긴 한층 높은 데도 저 아래가 다 보여서 아찔하다. 길다 길어. 소변보러 복도를 나가는 것도 눈치가 보인다. 어김없이 복도엔 감독 교사가 보고 있다.

마치고 냅다 뛰어 계단에 이르렀다. 혹시 다실이가 기다리려나 싶어 신당 골목을 내려다보니 가로등 빛만 뿜었다. 하기가 이 늦은 시간까지 어찌 기다리나. 바로 버스를 타고 남포동에서 갈아타 남향 이모 집으로 가면 됐다. 그런데 웬지 허전하고 씁쓰레함은 어쩔 일인가. 전망 탑에서 팔을 쓸어안고 매달리던 게 자꾸 걸린다. 기말 성적이 중간쯤으로 툭 떨어졌다.

“야, 어찌된 일이냐.”

친구 영수가 의아해 물었다. 엄마 올 때가 됐는데 걱정이 앞섰다. 겨울 방학 동안 못한 과목을 한다고 했어도 중간시험에서 올릴 수 있을까. 다잡아 나갔다. 진달래와 벚꽃 피는 좋은 계절이야 오건 말건 공부에 매달렸다. 600명 학년 전체에서 작년 1학기처럼 한 자릿수 성적을 보시고 즐거워하는 부모님 모습을 다시 그렇게 해드리리라 맘먹었다.

방과 후 1시간 하던 보충수업을 2시간으로 늘렸다. 얼마 후에는 0교시라 해서 1교시 전에 일찍 또 보충수업을 넣었다. 새벽에 나서서 수업을 받아야 했다. 학교마다 교육열이 점점 높아졌다.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어떤 학생은 감독 교사에게 부모님께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던 게 바뀌었다. 자습하는 교실마다 누에가 뽕잎을 갉아 먹듯 책장 넘기고 글 쓰며 숨소리만 조용히 들렸다. 한밤중 교실 불빛이 밝아 앞뒤 운동장도 환하다. 저 아래 중구와 서구 먼 영도구에서도 빛나는 교실이 돋보였다. 고등학교 학습 분위기는 온 주위를 밝게 비췄다.

주말인 토요일도 오전에 마치지 않고 오후 6시경 자습이 끝났다. 중간에 가는 학생은 특별한 일이다. 몸이 아프거나 집에서 오는 연락이 있어야 허락받아 갔다. 오뉴월 긴긴 해지만 한주는 후딱 지나간다. 지쳐 계단을 내려가는데 신당 옆에서 기다리는 다실이다. 늦게 마치자 돌아가길 여러 번이었다.

“민수야, 날 따라와.”

“어딜 가는데?”

“가 보면 알아.”

그녀는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버스가 오자 타라 눈짓했다. 몇 정거장 가서 내리는 종점이었다. 시내로 나가는 버스는 학생들이 앞에서부터 타와 만원이다. 반대로 들어가는 차는 텅 비었다. 내릴 때 둘 뿐이다. 산 중턱에 왜 왔을까. 다실의 영주동 집 부근이다. 대신동 넘어가는 도로를 따라 산 고개에 이르러 편편한 곳에 앉아 쉬었다. 공장이 들어섰던 빈터이다. 텅 빈 건물이 보였다.

“외져서 좀 으스스하다.”

“앞뒤로 서구와 동구, 부산진구, 영도구가 내려다보는 곳이야.”

싸 온 빵을 내놨다. 저녁 삼아 맛있게 들었다. 체할까, 물병을 입에 대주는가 하면 가끔 머리를 쓸어주었다. 볼도 꼬집었다. 여기는 넘나드는 차들만 가끔 있지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위로 구덕산 등산로이고 아래로는 북병산이 야트막하게 앉았다. 이 길로 곧장 가면 바로 민수 다니는 혜덕고등학교 후문이 나온다.

“어디 이런 데가 있나. 부산항이 한눈에 내려다보는 정치 좋은 곳이다.”

“민수야, 내일은 어때, 12시에 중앙동 지난번 만났던 시장 입구에서 만나.”

다실은 종점에서 버스를 타는 나를 잘 가라 손짓했다. 아래로 내려가면 가까운 곳에 그녀가 사는 아파트이다.

다음날 각자 평복을 입었다. 그렇지만 머리는 학생티가 났다. 자세히 보면 단발에다 상고가 드러난다. 휘청휘청 걷고 건들건들하는 민수 모습이다. 가끔 싱거운 허튼소릴 할 땐 웃음이 터지면서 몸이 짜릿짜릿해져 왔다.

“옥생관 짜장면 먹자.”

탕수육도 시켜 실컷 먹었다. 공부한다고 애를 써서인가. 이모 집 음식이 기름지지 않아서인지 민수가 야윈 것 같다. 타박타박 앞서 거니 뒤서거니 걸어서 남포동 극장가에 이르렀다.

“민수야, 우리 영화 볼래.”

“괜찮을까.”

날씨는 점점 더워져 후끈하다. 몸을 기댄 채 손잡고 만지작거리니, 어느새 영화가 끝나버렸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옆 골목에서 국밥을 먹고 왔던 길로 거슬러 가 버스를 탔다. 토크를 받은 차장이 문을 두드리며 “오라이” 하자 메리놀 병원 쪽으로 썩하니 올라갔다.

“다실아, 어딜 가.”

“어제 그 자리로.”

으스스 빈 공장을 지나 아래 산기슭으로 들었다. 트인 숲 사이로 부산항이 언뜻언뜻 보이고 영도도 건너다 보인다.

“저 건물이 민수 너 학교야.”

“운동장과 지붕만 보여. 맞아?”

산책로를 빠지니 차도가 나왔다. 서구가 한눈에 내려다본다. 구덕산이 빙 둘러 웅장하게 감쌌다. 올망졸망한 집들이 산 중턱까지 오르고 대티고개를 넘어간다. 둘은 극장에서부터 손잡고 다닌다. 놓을 줄 모른다.

덩치 크고 늘씬해서 다 청년으로 보는 것 같았다. 뱃고동 소리가 굵고 은은하게 들리는 아늑한 숲 속으로 접어들어 저무는 항구를 내려다봤다. 재깍재깍 툇툇툇툇 가는 게 아니라 찌르르 토르르 냅다 흘러서 밤이 깊었다.

“보금자리가 왜 이리 좋아.”

“등지가 아주 편안해.”

다음날도 만났다. 민수는 보충수업을 마치고 후문을 나와 이곳으로 올라왔다. 다실이도 정확히 어제 그 자릴 찾았다. 둘은 기뻐 두 손을 맞잡고 흔들었다. 도시락을 펼치고 학교 매점에서 가져온 빵과 과자 캔 콜라를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맛나게 먹었다.

“어찌 빠졌어.”

“눈이 아프다고 했어.”

“정말 눈이 아픈 거야.”

“아니야 괜찮아.”

만나고 또 만나, 사흘이 멀다며 날아들어 등우리를 비벼댔다.

경봉구 선생 책상에 전화번호가 놓였다. 수업 중에 왔는가. 메모이다.

“선생님, 여긴 영도경찰서입니다.”

박민수 담임을 확인하고 서에 들러 데려가라는 전갈이다. 가슴이 쿵닥쿵닥 뛰었다. 잘못된 학생이 했는데 부르니 그런다. 옆 골목 식당에서 저녁을 먹여 보냈다.

“내일 지각하지 말고 빨리 나오너라.”

골목길을 지나는데 잠자는 여인의 목에 금목걸이가 눈에 띄었다. 가다가 돌아서서 슬그머니 빼 팔았다. 신고로 경찰이 금은방을 조사하다가 학생을 알게 되었다. 신장과 생김새, 복장이 좋은 단서였다. 몇 안 되는 같은 교복을 입은 이곳 학생을 찾으려 들통이 났다. 바로 붙들렸고 송치되기 전 이모 댁에서 물어주고 서로 화해했다. 어찌 목걸이를 빼 가도 모르게 잠들었다. 피해자가 이웃 학생이니 용서해 달라는 말과 먼 섬에서 올라온 성적 뛰어난 착한 학생이란 점이 사건을 잘 풀리게 했다.

담임에게 지도하는 것으로 훈방이 결정됐다. 쪼들렸는지 그렇게까지 한 걸 보면 안 됐다. 마음먹고 더 열심히 공부하리라. 잘 챙겨주지 못한 것이 미안했다. 작년 봄에 광주에서 전학을 온 학생이다. 그에게 기대가 컸다. 중간시험이 학급에서 우수할 뿐 아니라. 전교에서 손꼽혔다. 자랑이었는데 어이없이 경찰서에서 나오다니. 부모님이 알고 와서 한바탕 난리가 났다.

“공부하라고 보냈는데 남의 물건을 훔치다니 이게 웬 말이야.”

“당장 집으로 내려가자 남사스러워 여기 있을 수 없다.”

아버지는 방바닥을 두드리며 가슴을 쳤다. 아들을 달달 콩 볶듯 하고 쥐 잡듯 했다. 이모부가 미안하다며 앞으로 더 잘 보살피겠다

고 거뜰거뜰 위로해 조금씩 누그러뜨렸다.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한참 통곡한 뒤에서야 진정되어갔다.

“잘못했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끓어 엮드려 어머니 품에서 흐느끼는 민수다. 전복을 양식하고 잡화가게를 하며 뒷바라지를 했는데 엉뚱한 짓을 했다. 때맞춰 귀가하던 민수가 들쭉날쭉 했다. 가끔 잡비를 더 달라 조르던 때도 있었다. 일요일은 종일 공부만 하던 아이가 요즘은 행하니 아침에 나가 밤늦게 들어왔다. 학교에서 자습하고 돌아오는 줄 알았다.

직박구리가 ‘찌-익 찌-익’ 소리치다가 예쁘게 ‘뭉라 뭉라’ 노래한다.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날까 쫓긋하고 귀 기울이는데 날은 저물어가고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밤이 이슬하도록 나타나 질 않는 민수다. 무슨 일이 생겼나 왜 못 올까. 몸이 아픈가. 집안에 걱정이 있다. 별별 생각을 하면서 보고픈 마음이 불타올랐다.

‘저 킁킁한 빈 공장을 어찌 빠져나가나.’

무엇이 불거져 나올 것만 같다. 손잡고 종점으로 가던 짧은 길이 이리 멀까. 훌쩍거리면서 가파른 골목길로 내려갔다. 주말에도 그 주위를 맴돌았지만 찾아오지 않는 민수다.

‘민수야 왜 안 오니. 무슨 말을 좀 해봐.’

토요일 오후면 그와 걸던 북병산 둘레길을 걸었다. 학교 운동장과 지붕이 보이는 곳에서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걸음을 옮겼다.

‘오늘은 올래나.’

제법 단풍이 들어 울긋불긋한 기슭이다. 이상하다. 잘 먹던 밥이 냄새가 나고 역겨움이 생긴다. 단잠을 자면서 꿈을 대낮처럼 꾸다.

먹은 게 없는데도 매스껍다. 매달 있던 게 없다. 겁이 털경 나기 시작했다.

‘나 어떻게 된 게 아니야.’

짓눌렀다. 그런 적이 가끔 있었던 일이라. 그러려니 대수롭잖게 넘어갔다.

초상집처럼 혼쫓이 난 민수는 정신 차리고 전처럼 공부에 전념했다. 중간시험에서 또 작년처럼 밀리고 말았다. 마음먹고 달려들면 상위에 오를 수 있다는 일념으로 골똥해졌다. 겨울 방학도 며칠 쉬고 매일 나와 자습했다. 두 번 갈아타는 등하교 시간과 잠자는 일 외에는 책과 벗하면서 안고 함께 지냈다. 그래도 마치고 계단을 내릴 때마다 신당 골목에 누가 있나 살폈다. 아무도 보이질 않았다. 가끔 후문으로 나가 뒷산을 걸어서 빈 공장 앞을 지나 버스 종점에 갔다. 찬바람만 행하니 불고 다실은 온데간데없다.

‘어찌 이리 소식이 없을꼬.’

궁금했지만 어쩔 수 없다. 이모 댁 감시가 심하고 부모님 전화가 이틀이 멀다고 왔다. 열심히 했더니 2월 기말시험이 다시 상위로 올라갔다. 먼저 이 소식을 다실에게 전하고 싶었지만 알릴길 없다.

“내 새끼, 잘했다 잘했어.”

어머님이 오셔서 즐거워하셨다. 머리를 감기고 속옷을 새것으로 갈아입혔다. 어린애처럼 다뤘다. 3학년 문과반으로 올라, 높아만 보이고 두려워했던 3층 교실 긴 복도를 걸으면서 최고의 대학 입학을 꿈꿨다. 3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더욱이 뒷산 접 벚꽃은 나를 자꾸 불렀다. 훈풍이 간질간질 겨드랑이를 건드렸다.

‘비비적대던 둥주리가 잘 있나.’

지나면서 힐끗 들여다봤다. 가다가 다시 되돌아 와 헤치고 들어가 어떤가 싶어서 지난 때를 생각하며 앉았다. 어찌 이리 아늑한 곳을 만났을까. 대낮에도 감쪽같은 곳이다. 한참 다실을 떠올리며 지금 뭘 할까. 그리움이 스멀스멀 차올랐다.

‘누가 버렸나.’

비닐에 쌓인 종이가 보여 펼쳐봤다. 다실의 편지다. 주소가 장승포다.

“민수야, 좋은 대학에 가야 해. 그때 만나.”

다실은 등록금과 실습비, 수학 여행비 등등을 부모로부터 받아 저금했다. 옷가지와 소지품을 하나하나 챙겨서 배 드나드는 장승포 1구 언덕에 방을 구했다. 1년간 휴학하고 출산 달을 기다리며 거처할 곳이다. 잘 먹어야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며 거동할 만할 때 멸치공장에 나가 일하면서 꿈적여야 했다. 음식 만드는 걸 엄마로부터 익히지 못해 대강하니 그런 어설피름이 어디 또 있을까 싶다.

냄비에 밥하고 된장찌개와 김치가 대수다. 뱃속 아기를 위해 가끔 고깃국과 구이를 먹을 땐 대파와 무, 고추, 마늘, 생강 등 양념을 준비했다. 조금씩 느니 하면 되네 느낌이다. 시원한 바다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항구가 좋다. 톱톱 연기가 폴썩폴썩 나는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재밌는 볼거리다.

언덕을 파서 지은 집으로, 받은 문헌 움집이다. 주인이 서글서글 좋아서 여린 나를 지켜주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여겼다. 일하고 들어올 때마다 생선과 과일이며 옷가지들을 살

때 하나 더 샀다며 갖다 바쳤다. 좋아서 어찌할 줄 몰랐다.

‘출산 때 도와주세요.’

아기 옷가지와 기저귀, 장난감 등을 사 모아 준비해 나갔다. 점점 배가 불러오고 움직이기 어려워지자 들앓아 있어야 했다. 주인 집에서 국과 반찬을 수시로 가져와서 섭생은 좋다. 책 읽고 자며 내려다보는 게 일이다.

“다실아.”

저녁 들고 자리에 누웠는데 부르는 소리에 문을 여니 민수가 왔다. 아주머니가 방문으로 안내해 줬다. 이런 몸으로 외딴 지역에 혼자 와 있느냐며 놀랐다.

“여자는 이런 일은 듣고 배우기도 해서 알아서 잘해.”

느꼈는지 당황하거나 덜컥 놀라는 기색 없이 안정시키고 위로해 주었다. 주말 자갈치에서 영복호를 타고 왔다. 뱃멀미를 했다면 어지러운 데 저녁 준비하는 다실을 밀치고 맛있게 먹는다.

“냄비 밥이 어찌 이리 맛있을까.”

누룽지까지 끓여 먹는다. 날 보란 듯이 짓는 거며 설거지 하는 훈기를 가득 느끼게 하여 외롭지 않게 하는 모양이다. 눈치 한번 빠르다. 민수와 밤이 이슬하도록 얘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다. 이곳은 반 친구 고향으로 소개받아 왔단다. 거제도 남단 경치 좋고 낭만 있고 해물이 많아 골라서 실컷 먹을 수 있다고 했다. 겨울이 와도 춥지 않은 따스한 곳이란 데 마음이 끌렸다. 아무도 모르는 낯선 곳이어서 안정맞춤이다. 도피란 게 이런 것이 아닐까. 거기다 민수가 왔으니 행복에 겨워 눈물이 핑 돌았다. 아침을 해서 서로

마주 보며 비웠다. 옷을 갈아입고 한 바퀴 돌겠다며 나갔다.

“해금강과 칠천량 전적지, 포로수용소를 보고 올게.”

점심때 들어오지 않아 멀리 갔나 했는데, 저녁나절에 즐거운 모습으로 이것저것 반찬과 과일을 안고지고 들어왔다. 연습한다며 미역국도 끓이고 멸치볶음도 하는 게 자주 해 본 솜씨 같았다. 짜고 싱겁고 어중간해서 대중이 없다. 오붓한 저녁상을 물렀다.

“학교 가야 하는데 어찌나.”

“며칠 쉬었다 갈게.”

“민수야, 오늘 밤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나서 가.”

박원술 3학년 담임은 민수 친구 신영수를 불렀다. 한주 내내 소식도 없는 민수 소식을 물었다. 영도 남향동 이모 댁에도 영문을 모른다며 걱정이 대단하다. 여자 친구를 사귀는 것 같다는 전갈이다. 그 일로 빚어진 일이라 짐작한다. 신당 옆에서 만나는 것을 봤다는 애기와 함께 시내를 쏘다니는 모습을 본 친구도 있다.

영수가 재미있어 꼬치꼬치 캐물으면 뒷산에서 만났다는 말도 들려왔다. 여학생이 민수 주위를 맴돌았다. 1학년 가을 축제 때부터니 3년째란다. 경찰서 일로 부모로부터 혼나고서는 착실히 공부했는데 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는 영수 얘기다.

윤의중 진로 부장도 걱정이다. 20명 특별반으로 S대 진학 대상이다. 학교 아래 애린 유스호스텔에 머물면서 방과 후 보충수업과 자습 지도받는 학생이다. 이제 몇 달 뒤 수능시험이 다가온다. 찾아야 하는데 증발한 민수를 어디 가서 데려오나. 모의고사 칠 때마다 성적이 상위로 나와 민수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다.

청산도 부모 집에도 담임 전화를 받고 또 발각 뒤집혔다. 잠잠하고 착실히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날벼락이었다.

“선생님, 자식 잘못 키워 미안합니다.”

금목걸이 절도로 속을 썩이더니, 또 여학생과 어울려 다니는 게 말이 되나. 도벽에다 바람피우는 난봉 아들이니, 집안 망신시켜도 유분수다. 이웃 부끄러워 어찌 얼굴 들고 다닐까.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여기 있게 하는 건데 더 잘 되라고 괜히 낯선 부산에 보낸 게 잘못이었다. 가장이 내친 자식이다. 버려두라고 엄명을 내렸다.

“거들떠보지도 말라.”

날마다 나가 일했다. 집 짓는 곳이나 어망 손질하는 테를 찾아 날품을 팔았다. 막노동 일당을 받아 맛있는 걸 만들어 먹고 옷가지와 집기 파스한 이불을 사 날랐다. 주말 저녁 쓰다 남은 돈 봉투를 쥐여 주며 부산 가는 막차 거제호를 타러 고개 넘어 두물 선착장으로 나간다.

“몸조리 잘해.”

주섬주섬 차려 나가는 민수를 보는 다실은 나 돕는다고 대학가는 일이 어물어지면 안 되는데 걱정이다. 밤마다 끔끔거리며 자는 것과 손과 발, 목덜미 등에 생채기투성인 것이 불쌍했다.

가득 채워진 광의 연탄을 갈아 불을 지피고 새 옷을 입으니 날아갈 것 같다. 이불을 덮으니 민수 생각으로 폭신한 게 사르르 행복한 잠이 온다.

‘민수야 아기 낳아 잘 키울게. 좋은 대학 가야 해.’

비었던 자리에 민수가 앉았다.

“민수, 따라와.”

조례를 마치고 2층 동편 진학상담실로 들어간다. 내달 출산이란 것과 한 주일 일을 하고 난방이며 의류, 식품, 상비약 등을 마련해 주고 왔다는 말에 답임은 할 말을 잃었다. 물끄러미 듣고 바라보다가 고개를 푹 숙인 민수 어깨에 손을 얹고 무어라 말을 할듯할듯 하다가 그냥 쓰다듬어주는 답임이다.

청산초등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자 완도중학교로 보냈다. 거기서도 뛰어나 고등학교는 광주로 유학을 보냈다. 이모가 그리 잘하는 아이를 거기서 썩일 수 없다며 부산으로 보내라 해서 배정받아 혜덕고등학교로 전학했다. 참 잘한 일인데 민수 아버지는 전화에서 울고 있는 목소리다.

주말마다 자갈치에서 한 시간 배 타고 들어갔다. 희멀거며 복스럽고 탐스럽게 생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보는 기쁨이 대단하다. 세상의 모든 희망이 한곳으로 쏠린다. 수능을 치르고 나서 기말시험도 잇달아 쳤다. 수업은 되나마나 하다가 겨울 방학을 맞았다. 언제 긴긴 새털 같은 3년을 공부하나 했는데 벌써 끝나간다.

‘아이 아빠라니.’

어깨가 짓눌렸다. 못난 망나니 아들이라고 펄펄 뛰시던 서슬 퍼런 아버님도 누그러지셨는가. 손자 이름을 항렬에 따라 ‘박시호’라 지어주셨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엿저녁 어머니를 보내셨다. 남향을 빠져 외항으로 나가 물줄기를 길게 깔며 장승포로 내닫는다. 귀한 손자를 청산도로 데려가기 위해서다. 하늘빛을 받아 바다 물결이 창창하게 반짝인다.

# 신인상

〈 시 〉

김진건 | 그가 아시나니 외 2편

원하숙 | 봄날 외 2편

신인상 심사평 | 박정선

Christian Literature 2026

## 그가 아시나니 외 2편

김진건

정직한 마음은 이미 안다  
교만한 사술의 얼룩에 물들었는지  
거룩한 믿음은 이미 안다  
혹 같은 사심이 빠져나왔는지

외모나 구슬을 취하지 않는  
그가 아시나니  
쾌함과 욕심의 경계가 어드메인지  
그가 이미 아시나니

겹겹이 쌓인 생각의 뒀안길을 살피고  
서둘러 세운 계획의 보폭을 늦추어라  
그는 인생이 아니시니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나니



| 김진건 |

- 고신대복음병원 정년퇴직
- 평신도신학교 졸업
- 사상교회 장립집사

너는 대장부답게  
그의 뜻 안에서 진실의 띠를 둘러라  
믿음의 대장부답게  
그 품에서 정직한 푸른 나무가 되라

## 내게 선함을 새겨간다

교만한 마음의 입술은  
빈 뺨과리처럼 요란하고  
분별없는 권위는  
오직 제 안위만 탐하느니라

스스로 행하시는 분의  
거룩한 자울 앞에 너 나서지 말라  
너의 자유의지는  
잠시 타오르다 사그라지는 숯불일 뿐

순전함으로 견뎌낸 욕을 보라  
온유함으로 길을 낸 모세를 보라  
누가 그들을 무대에 세웠는지  
누가 그들의 생에 인쳤는지

티끌로 빚어진 육신의 바닥과  
숨결로 세워진 영혼의 기둥 사이에서  
나는 오늘 선한 궤적을 새겨간다

## 형님

산등성 끝에 걸린 박달무처럼  
구름 뒤에서 말없이 길을 비추는  
형님,  
떠약별 내리쬐는 별판  
땀 뻘뻘 흘리며  
거친 손 덥석 잡으며  
함께 웃을 수 있고  
어둠의 골짜기 지나며  
어깨 맞대고 안심하는  
그런 사람  
부를 때마다  
입술이 감미로워지는 이름  
형님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 이사야 42:8

할렐루야

주님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문학이 다양한 장르를 표현 하는 것인지  
인간이 여러 형태의 삶과 느낌들을  
언어로 나타내는 것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인간의 본 모습은 흠이요,  
생기를 불어넣은 이는 여호와이시니  
모든 지혜는 그에게서 나고  
모든 무지는 흠이었던 나였음이니

임마누엘

당선의 기쁨은 그가 주신 것입니다.

한 자락 미풍인 나는 존재감이 없지만  
부끄러운 아름다운 나무에 곁붙어 있게 되어  
기쁨과 감사와 자랑스러움이 되었습니다.  
이끌어 주신 고마운 이의  
마음 길 따르기를 바랍니다.

## 봄날 외 2편

원 하 숙

소리 없이 다가온 봄  
햇살처럼 스며든다.  
마당 끝 담장 너머  
금세라도 들릴 듯한  
엄마의 노래  
싸늘한 바람 가르며  
피어나는 꽃잎 사이  
따스한 그리움이  
모락모락 숨을 올린다  
아름다워서  
더욱 사무치는 계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  
연분홍 치마를 hong얼거리며  
함께 걷던 엄마와의 시간



| 원하숙 |

- 『모두의 집』 공저, 『뽀뽀한 PUN스토리』 공저
- 『한국과학영재학교 학부모리포터 : 나는 아이를 이렇게 키웠다』 공저
- 『상담자의 책』 50+재단 집필 참여 외 사진책
- 『50플러스커뮤니티성장모델』 논문

붙잡을 새 없이  
봄은 또 그렇게 흘러가고  
진달래 피고 지는 사이로  
엄마의 모습은  
바람 되어  
가만히 스쳐 간다.  
꿈에라도 한 번 볼까  
기약 없는 봄의 끝에서  
그리움만 품은 채  
봄날은 그렇게 간다

## 오늘을 살아낸 당신에게

긴 밤 지나  
어김없이 오는 새벽,  
한 해의 문턱에 서서  
우리는 조용히  
서로를 돌아봅니다  
수많은 순간들이  
바람처럼 흩어져도,  
따뜻한 기억은  
아직 온기를 품은 채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 순간  
넘어져 있다 해도,  
한숨 대신 멈추어  
쉬어가도 좋습니다.  
세월 속 수없이  
흔들렸던 마음들,  
그 모든 시간이  
오늘을 살아낸  
당신의 용기였음을  
새벽은 알고 있습니다

## 새벽 해운대

깊은 어둠 속  
파도는 낮게 숨 쉬고  
거대한 빌딩들은  
고요 속에 멈춰 있다

달맞이 동산 너머  
아스라한 빛이  
건물 사이를 스치면  
바다는 그 빛을 품는다

새벽을 여는 기도들이  
바다로 스며들면  
해운대는 오늘도  
위로의 새벽을 맞는다

안녕하세요. 먼저 제 작품 『봄날』을 귀하게 읽어주시고 당선의 기쁨을 안겨주신 심사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작품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행복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는 봄이라는 계절 속에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제게 봄은 화사한 꽃의 계절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사무치게 그리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연분홍치마로 시작되는 ‘봄날은 간다’는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였습니다. 오월은 어머니가 태어난 달이기도 합니다. 한복을 곱게 입은 어머니의 모습은 봄바람처럼 오월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그리움에 이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글을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공감해 주심은 제게 단순한 기쁨을 넘어, 앞으로의 삶을 진심으로 써 내려가라는 격려인 것 같습니다. 일상 속 작은 떨림과 사람의 마음을 담아내는 글로 보답하며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불어 주신 마음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봄,  
아름다워서 더욱 사무치는 계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

그렇다. 봄은 해마다 소리 없이 다가온다. 여름, 가을, 겨울은 소리 지르며 다가오지만 따스한 봄은 비단결 옷자락을 살랑거리며 오듯, 소리 없이 다가온다. 모두에 인용한 시는 원하숙님의 작품 『봄날』의 일부분이다. 작품 봄날은 소리 없이 다가온 봄날과 함께 엄마에 대한 추억을 소환한다.

“마당 끝 담장 너머/ 금새라도 들릴듯한/ 엄마의 노래/ 나도 모르  
게 눈물이 난다/ 연분홍 치마를 흥얼거리며/ 함께 걷던 엄마와의  
시간”은 아름다운 노래를 연상케 한다. “꿈에라도 한 번 볼까/ 기  
약 없는 봄의 끝에서 그리움만 품은 채/ 봄날은 그렇게 간다”고 시  
인은 엄마를 그리워함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아름다운 것은 시  
인의 서정성이 아름다운 탓이다. 시는 독자에게 상상력을 불러일  
으키는 역할을 한다. 모든 시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좋은 시, 아름  
다운 시, 조화가 잘 된 시가 그렇다. 『봄날』은 독자로 하여 아름다  
운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따뜻한 봄을 따뜻한 엄마를 상징한다.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찾  
아온 소식처럼 소리 없이 찾아온 봄은 그리운 엄마를 은유한다. 특

히 “연분홍 치마를 흥얼거리며”라는 의태어가 눈길을 끈다. 치마가 흥얼거린 것은 엄마와 주고받았던 말 즐거운 순간을 말해준다. 수작이다. 이 외에도 원하숙님은 『새벽 해운대』, 『오늘을 살아낸 당신에게』를 선별할 수 있다. “새벽을 여는 기도들이/ 바다로 스며들면/ 해운대는 오늘도/ 위로의 새벽을 맞는다”에서 새벽을 여는 기도들이 바다로 스며든다는 것은 ‘나’를 떠나 타자를 향한 폭넓은 신앙 세계를 보여준다. 더욱이 새벽을 여는 기도는 어떤 지역(해운대) 전체를 아우른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낸 당신에게』의 두 번째 연에서 “어쩌다 이 순간/ 넘어져 있다 해도/ 한숨 대신 멈추어/ 쉬어가도 좋습니다/ 세월 속 수없이 흔들렸던 마음들/ 그 모든 시간/ 오늘을 살아낸/ 당신의 용기였음을 새벽은 알고 있습니다”라는 진술 역시 타자를 향한다.

다음으로 김진건님의 작품은 『그가 아시나니』, 『내게 선함을 새겨간다』, 『형님』을 선별했다. 세 작품 모두 신앙 세계를 제재로 한 작품이다. 제목이 말해준 대로 『그가 아시나니』는 주님을 대상으로 하여 화자 자신에 대한 다짐이다. “정직한 믿음은 이미 안다/ 교만한 사슴의 얼굴에 물들었는지/ 거룩한 믿음은 이미 안다”라는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믿음과 정 반대 방향에 있는 것들. 신실한 믿음 파괴하는 것들인 교만에 대하여 경계하는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그 품에서 정직한 푸른 나무가” 되기 위해서이다. 『내게 선함을 새겨간다』 역시 신실한 믿음을 추구하는 것으로 일관한다. 『형님』은 순수함과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수작이다. “산등성 끝에 걸린 박달무처럼/ 구름 뒤에서 말없이 길을 비추는 형님”은

가슴 깊숙이 젖어드는 감동을 준다. 앞의 두 작품이 신앙인으로서 상식적인 것이라면 “형님”은 전혀 가공이 없는 원시적인 인간미를 품고 있는 작품이다. 형님은 “피약별 내리쬐는 별관/ 땀 뻘뻘 흘러며/ 거친 손 덥석 잡으며 함께 웃을 수 있고/ 어둠의 골짜기 지나며/ 어깨 맞대고 안심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부를 때마다/ 입술이 감미로워지는 이름 형님”이다. 산등성 끝에 걸린 박달무처럼 구름 위에서 말없이 길을 비춰주는 형님은 ‘내 삶의 안내자’이다. 특별히 돋보이는 부분은 “부를 때마다 입술이 감미로워지는 이름”이라는 표현이다. 누군가를 부를 때마다 입술이 감미로워진다는 것은 사랑이다. 주님이 온 인류에 실현하고 싶어 했던 사랑이다. 따라서 ‘형님’은 온 인류가 될 수 있고, 나의 이웃이 될 수 있고 나의 벗, 가족이 될 수 있다.

시는 개인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 행위이다. 그리고 문학은 체험을 바탕으로 한다. 체험에는 직간접과 선험적 체험이 있다. 어느 것이든 체험은 시의 진료가 된다. 그리고 문학은 감동이 존재해야 한다. 감동은 일부러 만들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즉 체험이 감동을 만들어 낸다. 『봄날』과 『형님』을 읽으면서 시는 이렇게 써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순수미를 지닌 감동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두 분을 망설임 없이 선한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기 바란다. 당선을 축하한다.

심사평 박정선 | 문학평론가, 부산크리스천문학 고문

# 부 록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역대 회장 (1989~2026)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2026년 임원조직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편집부

2026년 회원 게시판 동정

편집후기

Christian Literature 2026

---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역대 회장 (1989~2026)

---

\* 회장은 추대, 임기는 2년

- 제 1 대 : 양왕용 (1989-1993) (시인, 부산대 교수 역임, 장로)
- 제 2 대 : 한영자 (1994-1995) (수필가, 문학박사, 권사)
- 제 3 대 : 정선기 (1996-1997) (시인, 부산일보 논설위원 역임, 장로)
- 제 4 대 : 김인환 (1998-1999) (시인, 복음신문 사장 역임)
- 제 5 대 : 남송우 (2000) (평론가, 부경대 교수)
- 제 6 대 : 허성욱 (2001-2002) (시조시인, 목사)
- 제 7 대 : 안유환 (2003-2004) (시인, 소설가, 목사)
- 제 8 대 : 류정희 (2005-2006) (시인, 권사)
- 제 9 대 : 하현식 (2007-2008) (시인, 평론가, 장로)
- 제10대 : 박정선 (2009-2010) (시인, 소설가, 평론가, 권사)
- 제11대 : 박춘덕 (2011~2012) (시인, 평론가, 고신대 명예교수)
- 제12대 : 공기화 (2013-2014) (수필가, 부산교대 명예교수, 장로)
- 제13대 : 신 선 (2015-2016) (시인, 문학박사, 사모)
- 제14대 : 임종성 (2017-2018) (시인)
- 제15대 : 박춘덕 (2019-2020) (시인, 평론가, 고신대 명예교수)
- 제16대 : 김종현 (2021~2022) (시인, 음악가, 사진작가, 장로)
- 제17대 : 최귀례 (2022~2023) (시인)
- 제18대 : 송정우 (2024~2025) (시인, 장로)
- 제19대 : 송정우 (2026~현재) (시인, 장로)

---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2026년 임원조직

---

### ■ 임원조직

회 장 : 송정우

부 회 장 : 김경희, 변도우, 송순임, 양윤희, 조현숙, 최방식

감 사 : 권갑숙, 윤현수

이 사 : 감윤옥, 김복임, 김해용, 김혜영, 권영숙, 남 순, 노장현,  
명인숙, 모정희, 백성기, 손정란, 이돌자, 이승훈, 이선화,  
유문경, 전진경, 정신자, 최만공, 한인환

사무국장 : 감윤옥

사무차장 : 이승훈

재무국장 : 모정희

재무차장 : 이가언

서 기 : 이승훈

---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편집부

---

주 간 박정선

편 집 장 남 순

편집위원 감윤옥, 권갑숙, 모정희, 송정우, 조현숙

### ■ 연회비 안내

회 장 : 60만원

부 회 장 : 25만원

이사·감사 : 15만원

고 문 : 10만원

사무·재무·서기 : 7만원

회 원 : 7만원

### ■ 신입회원 입회비 안내

입회비 10만원, 연회비 7만원 (총 17만원)

### ■ 납부계좌 안내

부산은행 101-2042-4502-05 부크문 모정희

---

## 2026년 회원 게시판 동정

---

### ❖ 회원 동정

- 유문경 : 배우자(배정행) 소천
- 송정우 : 문인의 날 ‘공로상’ 수상  
2026년 고등학교 문학교과서 「땅콩」 시 수록
- 이돌자 : 2026년 읽어주기 좋은 책 『할아버지의 손님』 선정
- 임지연 : 제1회 ‘자갈자갈 그림책 작가상’ 수상

### ❖ 신간 안내

- 감윤옥 : 제3시집 『봄 햇살 젖은 발자국』 예인문화사
- 김복임 : 세 번째 수필집 『람천은 흐른다』 세종출판사
- 남 순 : 네 번째 동화집 『별난 재판』 아동문예
- 안유환 : 산문집 『문학의 시점』 수필과비평사
- 이가연 : 제1시집 『이제 바다로 갑니다』 세종출판사



## 편집후기

- 2026년 상반기 제45호도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잘 마무리 되었다.  
특히 이번호에는 신인상을 수상하신 분들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
- 원고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작품평을 써주신 전 부산문인협회 회장 변종환 시인에게 감사를 드린다.
- 모든 회원님들의 문운이 빛나기를 기도한다.

〈편집부〉

## 참고사항

- 부산크리스천문학이 격조 높은 문학지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회비와 후원금 입금계좌는 맨 아래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 부산크리스천문학 제45호

등록번호 [부산, 사01034]

인 쇄 일 | 2026년 6월 15일

발 행 일 | 2026년 6월 20일

발 행 처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발 행 인 | 송정우

주 간 | 박정선

편 집 장 | 남순

편집위원 | 감윤옥, 권갑숙, 모정희, 조현숙

인 쇄 처 | 세종문화사

출판등록 제02-01-96

주소 | 48964 부산시 중구 흑교로 71번길 12 (보수동2가)

전화 | (051) 463-5898, 253-2213~5 | FAX (051) 248-4880

이메일 | sjpl5898@daum.net(세종출판사)

ISSN 2384-3780

※ 이 책의 무단 전재 및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값 15,000원

정기구독료 및 회비 입금계좌

부산은행 101-2042-4502-05 부크문 모정희

《부산 크리스천문학》



# 부산 크리스천문인협회 회 원 모 집

## 크리스천 문인은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로 오세요

부산 크리스천문인협회는 예수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문학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회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학과 지성을 추구합니다. 우리회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항상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진실한 문학정신을 추구합니다.

주님의 말씀마다 문학이며 신앙 세계는 곧 문학의 원천입니다.

오늘도 뜨겁게 타오르는 열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문학의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작가님을 기다립니다. 기성 문인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작가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 **연락 주실 곳** \_ 부산크리스천문학 편집실

■ **이 메 일** \_ 2050jsp@hanmail.net

■ **연 락 처** \_ 주간 : 010-2561-1221 / 편집장 : 010-9875-0087

### ■ 신인상 원고 모집

부산 크리스천문인협회에서 신인을 선발하는 작품을 공모합니다.

당선된 분은 작가로 활동할 수 있으며 우리 회 회원으로 영입합니다.

응모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장르를 응모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시 · 시조 - 각 5편씩           | • 동화 - 1편(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
| • 동시 - 5편                  | • 소설 - 1편(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
| • 수필 - 2편(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 • 평론 - 1편(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

■ **원고 보낼 곳** \_ 부산크리스천문학 편집실

• 주 간 이메일 \_ 2050jsp@hanmail.net / 연락처 \_ 010-2561-1221

• 편집장 이메일 \_ nssky99@naver.com / 연락처 \_ 010-9875-0087

## 문학의 시점



1942년 경북 포항 출생. 월간《수필문학》천료(1997), 계간《문예한국》시 신인상(2001), 계간《한국동서문학》소설 등단(2012). 소설집 『동근별』 『그는 언제나 맨 발이었다』 『하이네 자서전』, 장편소설 『주네브행 열차』, 시집 『그림자의 귀향』, 수필집 『마음을 건드리는 노래』 등 10여 권 제8회 <광나루 문학상>, 제23회 <부산문학상>, 제21회 <한국해양문학상>, 제2회 <부산크리스천문학상> 수상. 부산문인협회·부산소설인협회 회원. 전 부산일보 문화부 기자, 예장통합목사.

농부예의 꿈이 기자가 되고, 목회자의 길을 걷다가, 이제는 글 쓰는 사람의 자리로 돌아왔다. 오늘까지 나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도움, 과분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들었다. 이런 말씀들이 나를 춤추게 했을까? 돌아보면 삶 속에는 달고 쓴 것들이 어우러져 있었다.

— 거울 앞에서 중에서